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사랑어린이집의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병행 가정연계 실행연구

202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이 혜 선

사랑어린이집의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병행 가정연계 실행연구

배 지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이 혜 선


# 인 준 서


이혜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4월

심사위원장 전 홍 주  (인)

심사위원 박 선 혜  (인)

심사위원 권 정 윤  (인)

심사위원 김 고 은  (인)

심사위원 배 지 희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에서는 사랑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였다.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한 가정연계의 실행과정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와 부모 및 교사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영유아교육현장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가정연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랑어린이집의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병행 가정연계의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2. 사랑어린이집의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병행 가정연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영유아와 부모 및 교사의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S시의 사랑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사랑어린이집의 원장인 연구자와 교사 7명, 만 1세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 23명 그리고 22가정의 부모들이다. 연구는 2021년 11월 4일부터 2023년 2월 12일까지 실시되었으며 Kemmis와 McTaggart(1988)의 나선형 실행연구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3차시의 실행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사랑어린이집에서 진행해 온 가정연계가 부모들이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속해서 참여할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과 가정연계 방식이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방식으로만 이루어졌고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과정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한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모들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영유아들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한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가정연계의 1차 실행에서는 놀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들의 놀이 이야기를 스마트 알림장을 통하여 부모와 주고받았다. 2차 실행에서는 다양한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모교육과 대면 참여를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3차 실행에서는 부모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각 단계는 계획과 실행, 그리고 평가의 순환적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각 단계의 실행이 진행되는 동안 실행과정을 확인하고 점검하였으며, 실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 방법을 모색하였다. 실행의 모든 과정에서 영유아, 부모, 교사들과 관련된 질적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영유아의 개별 놀이 관찰 기록과 동영상 자료, 일일 및 주간보육계획안, 부모면담 자료와 부모들의 평가서, 스마트 알림장 기록, 교사들과의 협의 및 회의 자료 등이다. 수집된 자료들은 정리, 메모, 개방코딩, 범주화하기 과정으로 분석하였고, 자료화 과정에서 생성된 아이디어와 분석적 의미 모두를 다시 자료화한 다음 반복하여 검토하며 구성하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 활성화를 위한 가정연계의 1차 실행에서는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하였고 부모들과 영유아들의 놀이 사진과 영상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담은 놀이 이야기를 스마트 알림장으로 주고받았다. 2차 실행에서는 부모들과 다양한 놀이 방법을 공유하기 위하여 영유아들의 놀이 진행 과정과 놀이 방법이 드러난 사진과 영상 등의 놀이 사례를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면 부모교육과 대면 부모참여를 시작하여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실

행에서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과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대면 참여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놀이를 주도하거나 가정에서 놀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놀이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고 놀이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배움을 형성하게 되었다. 부모들은 놀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영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놀이를 통해서 나타난 자녀의 변화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들은 또한 교육적 놀이를 이해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비대면 가정연계 실행 경험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가정연계의 효과를 경험하면서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가정연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였고 결과에 대해 만족하게 되었으며 가정연계를 통해 부모들과 편안하게 소통하며 신뢰감을 향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사의 전문성과 자신감이 상승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놀이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실행한 후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교사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놀이 활성화 및 가정연계 방법이 다각적으로 모색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11
3. 용어의 정의 .....	11
II. 이론적 배경 .....	13
1.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 .....	13
1) 놀이의 개념과 놀이의 특성 .....	13
2) 놀이와 교육 그리고 교육적 놀이 .....	17
3)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 .....	23
2. 가정연계 .....	32
1) 가정연계의 개념과 필요성 .....	32
2) 가정연계의 효과 .....	36
3) 가정연계의 유형과 방법 .....	38
4) 가정연계에서 부모의 역할 .....	40
3. 비대면 원격교육 .....	43
1) 비대면 원격교육의 개념 및 특징 .....	43
2) 비대면 원격교육의 필요성과 유형 .....	47
3) 비대면 원격교육과 가정연계 .....	51

Ⅲ. 연구방법 .....	53
1. 실행연구 .....	53
2. 연구자 .....	54
3. 연구기관 .....	57
1) 사랑어린이집 .....	57
2) 씨앗반, 새싹반, 꽃잎반 .....	58
4. 연구참여자 .....	60
1) 사랑어린이집 교사들 .....	61
2) 사랑어린이집 부모들 .....	66
3) 사랑어린이집 영유아들 .....	68
5. 연구절차 .....	70
1) 사랑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방안 .....	71
2) 문제상황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모색 .....	77
6. 자료수집과 분석 .....	82
1) 자료수집 .....	82
2) 자료분석 .....	84
Ⅳ. 연구결과 및 해석 .....	85
1.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병행 가정연계의 실행과정 .....	85
1) 1차 실행: 놀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 높이기 .....	86
2) 2차 실행: 다양한 놀이 방법을 부모와 공유하기 .....	106
3) 3차 실행: 부모와 함께 놀이하기 .....	123
2.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병행 가정연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	148
1) 영유아의 변화 .....	148

2) 부모의 변화 .....	164
3) 교사의 변화 .....	177
V. 논의 및 결론 .....	191
1. 논의 .....	191
2. 결론 및 제언 .....	209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사랑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현황 .....	58
<표 2> 사랑어린이집의 일과 .....	60
<표 3> 연구 참여 교사들의 일반적 배경 .....	61
<표 4> 씨앗반 부모들의 일반적 배경 .....	67
<표 5> 새싹반 부모들의 일반적 배경 .....	67
<표 6> 꽃잎반 부모들의 일반적 배경 .....	68
<표 7> 씨앗반 영아들의 일반적 배경 .....	69
<표 8> 새싹반 영아들의 일반적 배경 .....	69
<표 9> 꽃잎반 유아들의 일반적 배경 .....	70
<표 10> 연구일정 및 실행 절차 .....	81
<표 11> 연구 대상에 따른 수집 자료와 수집 방법 .....	83
<표 12> 놀이주도자로 놀이하기의 가정연계 내용 .....	125
<표 13> 놀이참여자로 놀이하기의 가정연계 내용 .....	136

## 그림 목 차

[그림 1] 사랑어린이집 평면도 .....	59
[그림 2] 연구절차 .....	71
[그림 3] 연구의 개요 .....	80
[그림 4] 1차 실행 방법 .....	87
[그림 5] 2차 실행 방법 .....	107
[그림 6] 3차 실행 방법 .....	12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놀이는 영유아는 물론 성인들에게서도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놀이는 즐거운 것이며 영유아와 성인 모두 함께 모여 놀면서 기쁨을 느끼고 이 과정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켜 왔다(Johnson, Christie & Wardle, 2005/2014)

2020년 새해와 함께 시작된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이 변화를 겪게 하였다. 코로나에 의해 바뀐 많은 기준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익숙하게 여겨왔던 것들이었다. 선택에 대한 여지를 두지 않고 변형된 것들의 기저에는 신념과도 같은 기준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가치들도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함께 만나서 놀이할 수 없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놀이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놀이가 가진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에 대한 놀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신념이나 기준과 같은 것이며 이는 바뀌지 않는 가치이다(윤민아, 2019). 영유아들은 오래전부터 놀이를 통해 성장해왔고 영유아에게 놀이는 분리되기 어려운 오랫동안 긴밀하게 결부되어온 삶의 주요한 요소이자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왔다(김미자, 2022; Isenlberg & Quisenberry, 1988; Kieff & Casbergue, 2000).

놀이는 1800년대부터 많은 학자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대표적인 학자들을 살펴보면 잉여에너지 발산으로 놀이를 본 Schiller, 인간의 순수한 정신적 활동으로 놀이를 정의한 Fröbel, 영유아의 삶 자체인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놀이를 정의한 Isaacs, 놀이가 영유아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 발달을 도모하는 수단이라고 간주한 Dewey가 있다(Frost, 1992).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는 영유아가 주변 환경에 대한 주도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게 하며,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매개가 된다.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전인적인 발달과 성장을 이루게 되고 영유아에게 놀이는 삶의 일부이면서 학습의 기본 형식이 되고 발달의 주요 변인이 된다(엄정애, 2009; 이숙재, 2017).

놀이가 영유아의 삶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놀이가 교육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이미 유아교육에서 놀이는 오래전부터 중요성에 대해 확고하게 인식되어 자리매김해 왔고 놀이중심 교육과 교육과정으로 실행되었다(지성애, 2009). 놀이중심 교육은 교육과정의 기본요소로 놀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놀이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와 즐거움이 연상되는 놀이와 목표와 평가가 분명한 교육의 본질적인 개념은 차이가 있다(오채선, 2019). 개념의 차이는 놀이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이어지며, 놀이와 교육, 놀이와 학습에 대한 이분법적인 인식과 사고는 교육현장에서 놀이중심 교육을 실천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으로 확인되고 있다(김효진, 2022). 그렇지만 영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실제로 놀이를 통해 배우고, 놀이를 통해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노력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놀이중심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원화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준에 따라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을 각각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위해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유아중심·놀이중심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누리과정의 개정 근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실행되었고 이어 2020년에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개정·고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20a). 누리과정은 우리나라의 3~5세에게 적용되는 국가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적용되는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표준보육과정은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각각 누리과정과 보육과정의 용어를 사용한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인 0~5세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과 함께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b).<sup>1)</sup>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학습경험을 미리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본 설계도라고 정의한다. 한편,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 또는 학습경험을 선정 및 조직하고 실천하는 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해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 그리고 유아가 경험하는 총체에 중점을 두며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이상과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것은 교육적 목표달성,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그리고 교육대상의 경험이다. 이런 맥락에 의해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교육적 목표달성을 위해 놀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며 놀이를 통해 학습경험을 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유아교육과정에서 놀이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나

---

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교육과정과 보육과정, 교육과 보육의 용어를 각각 교육과정과 교육으로 통합하여 사용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사전 계획에 따른 교육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평가를 위한 학습 방법 또는 학습 과정으로 활용되어 온 경향이 있다(신지연, 2021). 이와 같은 교육 현장의 실체는 놀이중심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거리가 있으며,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명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이하 개정 누리과정 또는 누리과정)과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유아와 영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재정립을 목표로 하고 교사중심 교육과정에서 영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또 이를 교사가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간략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교육부와 보건복지부(2019a)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강조하고 계획안의 형식과 방법의 자율화, 흥미영역 운영 방식 자율화, 5개 영역 통합방식의 다양화, 평가의 자율화로 나누어 명시하여 교사가 자율적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과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사에 의해 실행될 때 의미가 있으며 교사가 없는 교육과정의 실행은 불가능하다(임부연 외, 2022). 특히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놀이에 대한 교사 인식 개선과 교육과정 실행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사에 의해 교육과정의 성패가 좌우된다(신지연, 2021). 반면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고 이를 새로 적용해야 할 때 어려움을 느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김정준, 2021). 따라서 개정 누리과정의 실천을 위한 교사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지원하는 교사교육과 교사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은별, 2021; 곽향림, 2019; 정혜욱, 김지원, 2022; 진다정, 2020).

한편, 유아교육기관에서 놀이중심 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는 부모 및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영유아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고 영유아의 삶은 성인의 보호와 돌봄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런 특성으로 영유아는 부모와 분리될 수 없고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아교육에서 부모와의 협력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개정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서는 학부모가 놀이중심 교육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누리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이 되며 부모가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을 교사들과 함께하고 공유하며 가정과 연계하여 실행하는 것을 궁극적인 교육의 지향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현의 목표를 위해 학부모가 자기 자녀는 물론 함께 놀이하는 영유아들의 놀이를 이해하며 놀이의 가치를 알고 놀이참여자의 역할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개정 누리과정 기반의 유아 놀이중심 교육의 철학적 실현은 유아교육기관과 부모가 영유아의 놀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놀이에 대해 교육적 관점을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학부모 교육보다는 교실에서의 실제 놀이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부모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실천적이고 활동적인 방법 모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b). 그러나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된 2020년 3월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사회 전반의 급진적인 변화가 함께 시작된 시기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3월 신학기 시작을 앞둔 각급 학교의 유례없는 개학 연기와 휴교로 이어졌고, 꺾이지 않는 코로나의 기세로 인해 교육부는 결국 각급 학교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을 사상 처음으로 발표하였다(교육부, 2020b).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즉 유아교육기관도 휴업과 휴원을 거듭하게 되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온라인 개학을 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받기 시작하던 중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부모들과 영

유아들을 위한 원격지원을 시작하였다(주봉관, 신미영, 박영숙, 2021). 유치원은 2020년 4월 서울 교육청의 ‘집콕 유치원’으로 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가정연계를 시작하였고(김동호, 2020),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온라인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들에게 안내하고(보건복지부, 2020c) 활용하도록 하면서 원격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영유아들과 교사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체험 그리고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참여하는 대면 방식의 가정연계에 익숙한 유아교육현장도 코로나에 의한 대면과 집합 금지가 지속되었다. 대면 금지가 계속되는 상황은 유아교육기관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어렵게 하거나 중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코로나 상황에서도 유아교육기관은 비접촉과 비대면 방식의 교수 방법과 가정연계 방법을 모색했고, 몇몇 기관은 비대면 원격방식을 새로운 가정연계 방법으로 선택하였다(김순임, 2020; 김진아, 우민지, 임민정, 2021; 하민경, 김은정, 2021). 유아교육기관의 비대면 가정연계 활동은 부모들이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부모교육, 부모참여수업 등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김민정, 김희영, 김남연, 문가영, 2020; 이혜선, 배지희, 2021).

실시간 비대면 원격에 대해 용어의 순서에 따라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실시간’은 현재 흐르는 시간과 같은 시간, ‘비대면’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것, ‘원격’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국립국어원, 2023). 이에 따라 실시간 비대면 원격의 의미를 서로 같은 시간에 거리를 두고 소통하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 의해 비실시간은 서로 같은 시간에 있지 않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연계를 비대면 방식을 필수로 하여 진행해야 했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비대면 방식의 가정연계는 다시 실시간과 비실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시간

방식은 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루어지는데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 화면 앞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소통과 환경 공유만 가능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접속해서 참여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비실시간 방식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알림장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소통이나 상호작용은 어렵지만 부모들이 시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서윤희, 한유진, 2021; 이미정, 2020; 정순원, 2020).

방법의 차이를 떠나 부모의 조력이 필수적인 유아교육기관에서 비대면 원격교육을 하는 것은 영유아와 부모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김민정 외, 2020). 이런 특성에 따라 코로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비대면 방식 또한 가정연계로 볼 수 있고 이는 유아교육에서 부모와의 협력이 중단될 수 없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유아교육기관의 비대면 방식 가정연계는 부모 면담, 부모교육, 부모참여, 오리엔테이션, 졸업식과 수료식 등이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방식과 사전에 제작한 영상자료 등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비실시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시간과 비실시간 방식 모두 코로나 시기 부모들의 직접 참여 제한에 대한 대안이며 유아교육기관과 부모 또는 가정의 연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모색된 방법으로 시사성을 갖는다(김효진, 2021; 이지운, 강은진, 2020). 또한 비대면 가정연계는 코로나 이전의 직접적인 부모참여 방식이 가진 공간, 이동 거리, 시간, 참석자 등의 한계와 단점이 최소화되어 부모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장점이 있다(서윤희, 한유진, 2021). 반면, 유아교육현장의 비대면 가정연계는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 등의 제한된 매체를 사용해야 하는 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운 점,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영유아들의 놀이를 부

모와 공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고 이러한 어려움은 비대면 방식으로 놀이를 통한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여겨졌다(박영숙, 김낙홍, 신미영; 2021, 서혜정, 정하나, 2023; 이혜선, 배지희, 2021).

한편, 교육부에서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교사 양성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교육부, 2020c) 이어 코로나 이후, 학교 교육의 변화를 디지털 미래 교육 전환(교육부, 2020d)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전면 실시된 교육 현장의 비대면 원격교육을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해서 적용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교육 현장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요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 병행에 대한 요구는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유아교육현장에서도 비대면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장점들이 보고되는 상황에서 이를 현실화하고 현장의 필요와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유아교육현장에서 비대면의 효율성이 큰 분야는 가정연계였는데 이는 대면 방식이 가진 부모들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비대면 방식의 적절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요약컨대, 유아교육현장은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자 주도적 학습 방법으로서의 변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유아교육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영유아 중심, 영유아 놀이중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 실행의 책임 앞에 놓이게 되었다(김명순, 2018; 김미소, 서영숙, 2018; 유상희, 2021;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3). 영유아 교육에서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변화와 성공적 적용을 위해서는 놀이와 놀이를 통한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 2013; 심미영, 2018). 부모들이 놀이를 통한 교육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연계가 필수적인 동시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놀이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가정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이 각 기관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한 개정 보육과정(누리과정)의 본격적인 실행에 제한 요소가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교육현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변화 방법을 모색하게 하였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역시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상황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그 방법 중 하나로 비대면과 대면 방식의 병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놀이중심 교육과정 및 가정연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 및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경험(우혜민, 2020; 유상희, 2021; 정지은, 2020; 허민정, 2020), 교육과정 실행에 따른 교사들의 어려움(김지성, 김경철, 2021; 김태희, 2021; 윤경옥, 2021; 윤민아, 2019), 교육과정 및 누리과정 실행 및 실천(류승희, 2022; 신지연, 2021; 이정아, 2022; 정주인, 권기염; 2020), 교사학습 공동체 운영 및 교사교육(김미란, 2021; 김영신, 2022; 김윤숙, 2020; 이은화; 2021; 진다정, 2020), 교사지원(문수영, 조영주, 2020; 안창희 2019),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고은별, 2021), 놀이자료 개선 및 적용방안(이가은, 2021; 허소영, 2022)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실행되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은 물론 유아교육현장의 접촉, 대면 금지 및 제한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자들의 현장연구가 불가능하거나 진행되기 어려웠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권경미, 고재욱, 2021). 이 외 놀이중심 교육과정 및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한 또 다른 연구들로 유아들의 놀이양상과 놀이 몰입(김수인, 2020; 이성주, 성영실, 2021), 이야기 나누기 활동(김민정, 2019; 류수향, 2019),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문주련, 2022) 등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사례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가정연계 선행연구는 부모들의 놀이 이해(김연진, 배지현, 2019; 박윤아, 2020), 부모와 유아의 애착 및 유아의 행동에 대한 영향(김세경, 2021),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교사와 부모들의 협력(김효진, 2021), 개정 누리과정 및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놀이에 대한 부모 인식(김대욱, 신수진, 2021; 김량희, 2022; 김미자, 2022) 등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는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교육기관과 부모가 협력하거나 교사들과 부모들이 함께 누리과정을 실행한 연구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권경미, 고재욱, 2021).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놀이중심 교육과 관련한 후속연구에 대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충분한 연구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다양한 매체활용 연구와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사례연구 및 가정과 연계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문수영, 조영주, 2020; 유상희, 2021; 이정아, 2022). 선행연구 결과들과 제안을 통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아교육현장 적용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정과 연계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영유아 중심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가정과 연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랑어린이집의 놀이 활성화와 놀이를 통한 교육의 실천을 위해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가정연계에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과 대면 방식의 가정연계를 병행하여 실행한 후 영유아, 부모, 교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영유아교육현장에서 놀이를 활성화하고 놀이를 통한 교육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정연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사랑어린이집의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병행 가정연계의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2. 사랑어린이집의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병행 가정연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영유아와 부모 및 교사의 변화는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 1) 가정연계

가정연계는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함께 연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강문희 외, 2016). 또한 부모가 유아교육기관과 동반자가 되어 협력하며 영유아 발달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정미애, 2012), 유아교육기관이 부모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을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나혜선, 2016).

본 연구에서는 놀이 활성화를 위하여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의 놀이중심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장소, 시간, 방법,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부모와 어린이집이 소통하며 진행하는 모든 것을 가정연계라고 정의하였다.

## 2) 비대면 가정연계

비대면(非對面)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국립국어원, 2023)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용어로 접촉과 대면의 상대적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의 비대면은 원격(원격수업, 원격 활동 등), 온라인, 실시간과 비실시간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비대면 가정연계는 스마트 알람 장,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메일 등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가정에서 어린이집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상호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대면 가정연계

대면(對面)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는 것으로 정의되며(국립국어원, 2023) 대면 방식은 수업이나 교육 활동에 있어 같은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 또는 시간과 공간이 각각 동일한 상황 또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대로 운영되는 형태를 통틀어 의미하는 것이다(김민재, 2021).

본 연구에서의 대면 가정연계는 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영유아 및 교사 그리고 다른 부모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보육 활동에 참여하고 교류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대면 가정연계에는 전체 부모참여수업, 개별 및 소그룹 부모일일 참여활동, 부모-교사 면담, 부모-원장 면담, 부모교육, 부모간담회, 부모 오리엔테이션, 부모모니터링 등이 포함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

#### 1) 놀이의 개념과 특성

놀이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즐겨왔고 노는 것은 인간의 발달과 긍정적 삶의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류에게 놀이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으며 특히 영유아에게 있어 삶의 근간이 되는 절대적인 요소이다(김희영, 2019; 한유진, 2021). 놀이의 사전적 정의가 ‘여러 사람이 즐겁게 모여 즐겁게 노는 일’인 것에서 알 수 있듯(국립국어원, 2023) 놀이는 즐거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충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영유아에게 놀이는 일상의 생활이며 내적 동기에 의한 자발적이고 즐거운 활동이며 놀이는 신체, 인지, 사회, 정서,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놀이는 학습의 기본 형식이 되고,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감각 운동적 능력을 기르고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이숙재, 2017).

놀이에 대한 정의는 사람, 상황, 환경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의해 다양한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어떤 활동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놀이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행동이나 태도로 정리할 수 있다(박영신 외, 2015). 놀이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한 기록은 고대로부터 확인되는데, 그리스 철학자 Plato는 ‘공화국(Republic)’에서 유아는 놀이를 통한 다양한 경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놀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Johnson et al., 2005/2014). Fröbel은 ‘인간교

육(Menschenerziehung)’ (1826)에서 영유아는 스스로 필요한 요구를 알게 되고 놀이하게 되며, 놀이는 영유아 내면의 본질을 드러내는 순수한 정신적 활동이라고 하였다(Frost, 1992).

Dewey(1859/1952)는 놀이와 일이 영유아의 활동 안에서 상반되는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영유아들이 즐거운 감정으로 하는 놀이와 일이 학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반면, Montessori(1949)는 영유아의 활동에서 놀이와 일을 구분하였는데 놀이를 통해 발달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교구 활동을 통해 발달한다고 주장하여 일과 놀이를 구분하기도 했다(한유진, 2021에서 재인용). Bruner(1975)에 의하면 놀이는 어린 시절의 본질이며, 영유아기의 놀이는 성인 이후 인간의 능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영유아는 또한 놀이를 통해 문화와 관습에 대한 한계의 초월이 가능하고 인간은 놀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심오한 특성을 계발시킬 수 있고 이런 과정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며, 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얻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과 다양한 탐색적 경험을 할 수 있다(강숙현, 김정아, 김희정, 윤숙희, 이은희, 2013; 박윤아, 2020; 이숙재, 2017).

현대 학자들은 놀이에 대해 정신분석, 인지발달, 상위의사소통, 각본 이론 등의 관점에서 연구했는데 Freud(1961)는 놀이가 인간의 본능이며 자아와 초자아 발달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했다(신은수, 김명순, 신동주, 이종희, 최석란, 2010에서 재인용). 인지발달을 연구한 Piaget(1962)는 지적 행동이 동화와 조절, 평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놀이에 있어 동화는 필수적이고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극을 받고 동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한다고 하였다. Vygotsky(1978/1994)는 놀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시하여 유아와 놀이를 통해 자기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 타인과 협력하고 이전의 경험을 기억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는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지시하거나 조절하고 구조화하는데 결국 놀이로 고등 수준의 기능을 획득하고 근접발달영역

안에서 비계를 설정해서 자기조절, 언어사용, 기억력, 타인과의 협동으로 같은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확장하면서 인지를 발달시킨다고 하였다(Johnson et al., 2005/2014). 이처럼 놀이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결국 놀이는 유아들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유아들은 놀이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즐거움이 함께 수반되는 활동이다(강숙현 외, 2013).

놀이의 본질과 특성을 행동 범주로 개념화하는 시도들도 있는데 놀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탐색과 비교하는 방법과, 놀이를 놀이가 아닌 행동들과 비교하여 놀이의 행동 특성을 규명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이숙재, 2017). 첫 번째, 탐색(exploration)은 놀이와 가장 유사한 행동으로 언급되어왔으며, 놀이와 탐색의 두 개념은 외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놀이와 탐색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놀이의 특성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탐색은 물건의 속성에 대한 의문과 같은 것으로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What does this object do?)’ 를 풀기 위한 행동으로 물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는 목적을 갖게 된다. 이와 달리 놀이는 물건의 용도에 대한 의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What can I do with this object?)’ 로 욕구와 소망을 전제로 하는 행동이다(엄정애, 2009; Hutt, 1971; Johnson et al., 2005/2014). 이런 논지에 의해 놀이와 탐색의 개념적 구분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영유아의 행동에서 탐색과 놀이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Weisler & McCall, 1976). 동일한 맥락에서 Fenson과 Schell(1986)도 인간과 동물 모두 탐색과 놀이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두 용어를 탐색적 놀이로 결합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이숙재, 2017; Johnson et al., 2005/2014).

두 번째, 놀이를 놀이가 아닌 행동과 놀이 행동으로 비교하며 놀이 행동

을 인간이 개성을 계발하는 과정으로 보고 그 행동 특성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Levy(1978)는 놀이가 아닌 행동은 외적동기, 현실, 외적통제신념이며 놀이가 아닌 행동 특성이 많아질수록 개성은 결함된다고 하였다. 반면 놀이 행동은 내적동기, 현실의 유보, 내적통제신념이며 놀이 행동이 많아질수록 개성이 계발된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놀이 행동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는 행동 자체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며 외적 동기는 결과 지향적이다. 현실의 유보(suspension of reality)는 놀이에서 현실적 자아를 떠나 환상적 자아와 상상적 자아를 수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적 통제 신념(internal locus of control)은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놀이의 본질을 놀이가 아닌 행동으로 규명하는 방법으로 놀이를 일(work)과 대비하여 설명하는 방법이다. Frost와 Klein(1979), Dattner(1986)는 일(work)과 놀이의 특성을 대비하여 놀이의 본질을 규명하였는데 이들은 놀이와 일이 각각 다른 특성이 있으나 서로 이분화되지 않고 연속선 위에 있음을 강조하여 모든 활동이 놀이에 가깝거나 일에 가까운 유동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Frost와 Klein(1979)에 의하면 놀이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재미가 있고 목표의식이 없는 과정 중심적인 특성이 있다. 반면 일은 수동적이며 강요적 성격을 갖고 단조롭고 고된 외적인 목표에 따라 구속되는 특징이 강하다. Dattner(1986)도 놀이가 자발적 행동이고 놀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일은 외부의 강요에 의한 행동으로 결과 지향적인 현실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놀이가 영유아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놀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즐거움을 느끼게 되며, 놀이는 자발성, 재미, 과정 중심 지향 등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양옥승, 이정란, 나은숙, 2002; 이숙재, 2017; 임부연, 오

정희, 최남정, 2008).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놀이는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발성, 즐거움과 내면적 목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자발적인 놀이를 위한 유아교육기관과 교사의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적 놀이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놀이와 교육의 관계와 교육적 놀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놀이와 교육 그리고 교육적 놀이

놀이는 영유아의 생활 그 자체이며 영유아들은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해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자유로운 탐색 과정에서 사물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기 때문에 놀이는 영유아 발달에 필수적인 활동인 동시에 학습의 수단으로 활용된다(강숙현 외, 2013). 놀이의 관점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고 놀이의 가치에 관한 판단과 함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보여 왔지만, 현대로 오면서 놀이가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놀이를 영유아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놀이가 갖는 학습적 효과와 교육적 효과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며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 놀이는 영유아의 생활일 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본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숙재, 2017). 놀이와 학습은 영유아가 주변에 대해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Samuelsson & Johansson, 2006) 때문에 ‘놀이는 곧 학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Singer, Golinkoff & Hirsh-Pasek, 2006). 놀이의 학습효과를 통해 놀이가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함께 놀이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매개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놀이의

교육적 의의와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희영, 2019; 엄정애, 2009; 이숙재, 2017).

놀이는 영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영유아 발달에 효과적이다. 놀이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는 신체발달에 도움을 준다. 영유아들이 하는 대부분의 놀이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영유아들은 대근육과 소근육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신체놀이를 통해 조절 능력을 기르는 등 다양한 운동 발달을 이룰 수 있다(오영희, 박창욱, 박영양, 2005; 이숙재, 2017; Hartle & Johnson, 2009). 놀이를 통해 영아들이 눈과 손의 협응력,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이영자 외, 2001), 소근육과 대근육, 그리고 자조기술을 발달시키기도 하고(김이분, 2018), 전통놀이는 영유아의 신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유경, 2007; 이뿐새, 최진락 2018; 이호형, 김재운, 2016).

둘째, 놀이는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 놀이는 영유아의 상징적 사고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인지발달에 도움을 준다. 영유아는 놀이하면서 분리된 부분적인 개념을 통합하며 개념을 발달시키고(곽혜경, 박애경, 백혜리, 조혜경, 2010), 놀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터득하여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사물 활용과 사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Stone, 1995). 유아들은 쌓기 놀이를 통해 문제해결력을 기르기도 하고(이순복, 2010), 거친 신체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대인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으며(강영식, 마지순, 안라리, 2013), 인지 놀이를 통해 인지능력을 갖게 되어 갈등 해결 능력을 갖게 된다(정진화, 2021). 그리고 놀이는 영유아의 인지발달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도 있다(황현정, 2020; Lillard et al., 2013).

셋째, 놀이는 언어발달에 도움을 준다. 영아기의 웅얼이부터 시작되는 언어는 말놀이 형태로 놀이화되며 영아는 말놀이를 통해 어휘력이 발달하고

단계별 언어발달이 가능해진다(이숙재, 2017). 또한 영유아들의 놀이는 언어 발달에 효과가 있는데 영유아들이 말놀이와 놀이를 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들로 인하여 어휘, 문장, 언어적 사고력 등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명순, 김의향, 이유진, 2012; 성지현, 2000; 임춘금, 2006; 최윤지, 이윤경, 2011).

넷째, 놀이는 사회성 발달과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도움을 준다. 부모는 영아들과의 애착형성 과정에서 수많은 놀이를 하고 이 놀이를 통해 자녀와 애착을 형성한다(Frost, 1992), 영유아들은 또래들과 함께하는 놀이와 협동놀이를 통해 친사회성을 향상시키며(박은영, 신은수, 김현진, 2012), 다양한 극놀이와 거친 신체놀이가 사회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김희숙, 2010; 왕혜원, 2012; 정선영, 2019; Connolly & Doyle, 1984; Göncü, 1993). 마지막으로 정서발달과 관련해서 놀이는 영유아의 자유로운 감정표출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놀이의 개념과 특징적 요소인 즐거움은 긍정적 자아개념과 성취감과 자신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게 한다(엄정애, 2009). 영유아는 극놀이나 동화를 매개로 하는 놀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거나 대리 경험하면서 감정조절 능력을 기르는 등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곽혜경 외, 2010; 이숙재, 2017). 놀이는 영유아에게 정서적인 위안을 주기도 하며, 자아존중감, 사회정서 및 사회정서 행동 발달과 정서조절과 조망수용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김명이, 2016; 김성현, 2015, 김이분, 2018; 김현아, 2004; 성인순, 2014; Johnson et al., 1999/2001).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영유아에게 놀이가 신체적인 성장과 인지와 언어발달 그리고 사회적 기능 습득에 도움을 주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가 놀이로 인해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놀이는 영유아

교육의 매개체 역할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놀이와 교육의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영유아들이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놀이중심 교육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한편, 놀이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에 대한 입증에도 불구하고 놀이와 교육의 개념에 대한 부조화적인 차이와 역설적인 느낌 때문에 ‘딜레마적 관계’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해야 하는 평가가 따르는 과정인데, 놀이는 자율성과 내면적 욕구를 갖는 동시에 외부의 강제성과 강요성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종희, 1995). 둘째, 놀이와 교육의 공존에 대한 역설(paradox)에 관한 것으로 놀이가 갖는 비 심각성과 교육이 가진 가치와 목적 지향적 특성에 따른 심각성 때문에 교육적 놀이 자체가 역설적 상황이라는 것이다(유한구, 1983). 마지막으로 놀이와 교육이 불균형한 상태에 놓이거나 놀이와 교육이 분리되어 놀이가 교육에 종속되는 등 상호대립 또는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서 놀이와 교육이 딜레마적 관계로 인식된다는 것이다(엄정애 2009; 이숙재, 2017; 조용환, 2000). 실제로 영유아들의 모든 놀이가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영유아들의 놀이 환경이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놀이와 교육의 부조화가 놀이와 학습의 부조화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놀이가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고 놀이가 교육의 매개체로 기능하도록 하는 요건 마련이 필요하다(엄정애, 2009; 유한나 2014; 이숙재, 2017).

놀이와 교육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각각의 가치가 발휘되도록 하며 교육에서 놀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달에 적합한 실제, 구성주의, 자기조절의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야 한다(Johnson et al., 2005/2014). 미국 유아교육협회(NAEYC)는 성명서에 놀이가 발달에 적합한 실제의 중심에 있으며 유

아기의 주요 교수 방법으로 놀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기술한다. 학습은 유아 스스로 주변 환경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자세의 지식 구성 과정인데 이는 구성주의의 주요한 논리이다. 따라서 놀이의 특성에 부합하는 능동적, 사회적 학습 상황이 놀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조절력은 유아 스스로 행동 통제는 물론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능력인데, 놀이의 내적 동기화와 협력적 특성은 자기 조절 촉진의 기능을 한다.

Johnson과 그의 동료들(2005/2014)은 교육적 놀이(educational play)와 오락적 놀이(recreational play)에 대해 언급하면서 16, 17세기부터 놀이에 기반을 둔 교육(play-based education)이 유럽의 형식적 교육을 창시한 루소와 페스탈로치, 프뢰벨과 같은 유아 놀이 이론의 선구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적 놀이에 대한 발견과 고민 그리고 놀이를 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ohnson 등은 계속해서 교육적 놀이는 교사가 주도하거나 조절하는 교실 안에서의 활동이나 자유놀이 시간이라고 하였고 오락적 놀이는 교사나 성인들의 주도가 영향을 받지 않고 유아들이 자율성을 갖게 되는 자유놀이나 쉬는 시간 등으로 설명했다. 한편 King(1987)은 교육적 놀이와 오락적 놀이를 각각 도구적 놀이와 진정한 놀이로 구분하였으며 Elkind(2003)는 놀이를 학업 유용성을 강조하는 성인-기능 관점 놀이와 유아의 입장을 고려한 유아-경험 관점의 놀이로 구분하였다. Elkind의 성인 주의적 관점은 유아들의 놀이에 대해 부적절한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더 제한적인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 유아들의 놀이가 진정한 놀이가 되려면 즐거움과 기쁨 외에 다른 기준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로 놀이와 교육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놀이와 교육의 구분이 성인의 개입 또는 환경적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내

용은 교육적 놀이가 놀이와 교육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이다. 한편, 교육적 놀이의 장점으로 긍정적 정서와 자유 선택, 비 실제성, 과정 지향, 의미 부여로 정리되는데 이는 놀이의 특징인 내적동기에 의한 자발성, 비 실제성, 과정 지향, 자유 선택, 기쁨 등의 요소와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놀이의 특성이 교육에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엄정애, 2009). 놀이의 특성이 교육적 놀이를 위한 학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유로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움에 대한 동기유발인데 이에 대한 해법을 놀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놀이가 교육에 활용될 경우 놀이 자체로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별도의 동기유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Johnson et al., 2005/2014). 이와 관련하여 교육적 놀이로 적용이 가능한 놀이의 특성은 첫째, 즐거움이 학습으로 연관되어 학습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때, 학습에 대한 즐거움 또한 유발되며 이러한 학습 상황은 효과적인 결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놀이는 유아의 경험과 세계관을 토대로 한 놀이 틀(play frame)의 설정으로 시작되고 이 놀이 틀의 안은 비 실제성으로 인한 유아만의 세계가 갖춰진다. 놀이 틀에 의한 유아의 세계에 또래 유아들이 참여하고 이에 대한 교사의 존중은 실제 상황에 대한 배움의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놀이가 갖는 자유로움과 함께 효율적 학습의 중요한 요소인 융통성과 창의성이 전제된 학습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셋째, 놀이는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 행위이기 때문에 과제나 일이 갖는 결과 중심에 대한 불안감이나 부담감이 적다. 놀이가 갖는 과정 지향적인 특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강하게 하고 성취동기와 연결되어 교육적 의미를 가지며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엄정애, 2009; 이숙재, 2017; Johnson et al., 2005/2014).

놀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교육적 놀이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 놀이를 통한 학습의 기회 제공은 놀이 안에서 다양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방법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놀이 환경 안에서 주어진 다양한 학습의 기회 속에서 영유아는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활동하며 적합한 기술과 개념을 습득하게 된다(Johnson et al., 2005/2014).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영유아의 놀이는 발달과 학습의 매개체가 되고 영유아의 놀이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영유아들의 놀이를 교육의 중심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과정 안에서 놀이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과정과 놀이와의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3)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지식, 인간, 사회, 자연, 환경, 문화 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학교 교육에 적용되는 개념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면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에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조직한 문서이며, 나아가 이를 실행하는 과정과 성취한 결과를 포함하는 일련의 계획” 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다음백과사전, 2023). 유아교육과정은 다른 교육단계에서 제시된 교과목 같은 개념 적용이 안 되는 일반 교육과 다른 특성으로 인해 의미가 더 모호하다. 따라서 유아교육과정을 유아에게 가르치는 것 또는 유아들이 배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일반 교육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이기숙, 2016).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경험을 미리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정의하였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식과 함께 유아가 경험하는 총체라고 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유아교육의 역사에서도 놀이는 유아교육과정의 중심에 있었으며(엄정애, 2004; Hoorn, Nourot, Scales & Alward, 2015/2018), 놀이중심 교육은 유아교육에서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온 교수 방법으로 놀이는 교육과정 속에 항상 포함되어 왔다(전효훈, 엄정애, 2016).

영유아의 놀이가 교육과정 안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놀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엄정애, 2009). 이는 놀이에 대한 정의가 관점에 따라 다양한 만큼 놀이를 유아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에도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김희영, 2019). Hoorn과 동료들(2015/2018)에 의하면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놀이와 교육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이 유아기는 물론 성인기까지의 발달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놀이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어야 하며 일상생활 활동(daily life activity)과 교사 지시 활동이 보완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균형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놀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유아들의 활동을 놀이, 일상생활 활동, 교사 계획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아들은 발달 단계에 따라 각각의 활동에 대해 참여도의 차이를 보인다. 유아들의 놀이는 교과과정의 중심이 되며 유아들은 놀이영역 안에서 교사로부터 부여된 과제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내

적 흥분상태로 놀이할 수 있고,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영역이나 교사 계획 활동에 대한 의지와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아들의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 그리고 교사가 계획한 활동은 균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들의 놀이는 자발적 놀이(spontaneous play), 안내된 놀이(guided play), 교사 지시적 놀이(teacher-directed play)로 이루어지는데 이 놀이들은 분리된 형태로 일어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Van Hoorn et al., 2015/2018). 각 놀이의 특성을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놀이는 유아의 내적 동기부여로 비롯된 행동으로 자기 지시적인 특성을 가지며 놀이를 통해 유아 고유의 흥미와 욕구가 표현될 수 있다. 둘째, 안내된 놀이는 유아가 성인의 의도에 의해 놀이하는 경우이며 성인의 의도에 의해 놀이에 참여한 유아는 사고와 활동에 성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교사 지시적 놀이는 교사의 가르침에 의한 노래 부르기와 같은 놀이로 성인이 지시하거나 통제하고 구성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이다. 자발성 놀이와 안내된 놀이, 교사 지시적 놀이는 모두 유아들의 일상적인 놀이이다. 자발적 놀이는 유아의 자율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안내된 놀이에서도 유아의 능동성이 드러나며 교사 지시적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에게서도 즐거움, 능동적 참여 반응이 나타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세 가지 유형의 놀이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나타나며 자발적 놀이는 유아 주도성이 강하고 교사 지시적 놀이로 갈수록 교사 주도성이 드러난다. 유아의 놀이와 교육의 균형유지는 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개별적 환경에 의해 차이를 보이므로 이 모두를 유아의 삶의 맥락 안에서 조망하는 노력이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Johnson과 동료들(2005/2014)은 교육과정과 놀이를 관계의 양 또는 정도에 따라 분리, 병렬, 진정한 통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분리형은

놀이 활동과 교육과정이 분리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과 무관한 내용을 따로 주어진 시간에 즐기는 경우를 말한다. 병렬형은 교육과정의 주제와 관련된 놀이 소재로 환경을 구성하여 영유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놀이하도록 하지만 교사가 교육주제와 놀이 연결에 관여하지는 않는 경우이다. 진정한 통합형은 주제와 관련된 놀이 환경구성과 함께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와 교육과정을 연결하여 활성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교사가 놀이와 교육과정을 최대한 일치시켜 학습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이다.

놀이와 교육과정을 관계의 방향성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 교육과정의 유아의 놀이를 유발하거나 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주는 경우와 역으로 유아의 놀이로 인해 교육내용이 정해지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교육과정으로부터 형성된 놀이(curriculum-generated play)로 후자는 놀이로부터 형성된 교육과정(play-generated curriculum)으로 명명된다. 교육과정으로부터 형성된 놀이는 유아의 학습을 위해 놀이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유아는 놀이를 통해 개념과 기술을 연습하고 배우게 된다. 반면 유아들의 놀이로부터 형성된 교육과정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표출하는 행동과 흥미에서 교육과정 활동이 나오는 경우로 유아가 학습 동기에 초점을 둘 때, 성공적이며 놀이는 흥미 수준이 높은 교육주제 발견의 기회를 제공한다(Van Hoorn et al., 2015/2018).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기본전제를 놀이와 교육과정의 균형으로 보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놀이와 교육과정의 비중과 방향성에 대한 고려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9년 처음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까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

로 운영되어 왔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한편,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송경희, 김태연, 2023)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도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되어오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 또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임을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이러한 배경에 따라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누리과정은 세상을 뜻하는 누리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2013년 만 3~5세로 확대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정부는 2017년 유아교육 주요 국정과제에서 보육과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유아 초등학생 적정 학습 시간 및 휴식시간 법제화를 세부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는 누리과정 개정의 근간이 되었고 이에 따라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었고, 2020년 3월에 시행되었다(문무경, 박창현, 송기창, 김문정, 2017).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보육과정으로 0~5세의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보육과정의 법적인 토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마련되었고 2004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개발 및 보급의 근거가 되었다. 이후 2005년 여성가족부의 ‘표준보육과정’의 연구, 개발을 시작으로 2007년 2세미만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을 보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은 이후 사회와 보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정을 준비하였고 2011년 만 5세 누리과정고시 이후 0~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2012년 2월에 고시되었다.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2013년에 누리과정의 대상 연령이 만 3~5세로 확대됨에 따라 2013년 1월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하여 0~1세 보육과정, 2세 보

육과정으로 개정된 것이다(보건복지부, 2020a).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2017년 보건복지부의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목표였던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와 누리과정의 개편 계획에 따라 0~2세 영아의 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을 고려하여 2020년 4월 개정·고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20a).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과 0~2세 보육과정과 3~5세 보육과정 총론의 일부가 개정된 것이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는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의 개정 방향과 취지 수용 및 보육의 정체성 유지와 영아보육의 특성에 대한 반영과 영유아 중심, 놀이중심 추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의 기본 권리와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b). 지금까지 살펴본 2019 개정누리과정과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하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 및 배경을 통해 우리나라 유아교육현장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같음을 알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을 특징하는 어휘는 ‘국가수준의 공통’과 ‘유아·놀이중심’이다. 국가가 주체가 되어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교육과정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며,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가 고시한다. 반면, 교육과정을 국가가 고시하고 우리나라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성을 함께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의 국가수준과 공통성이 획일성이나 상부에서 ‘정하여 주는’ 하달식의 교육과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아닌 각 지역이나 학교 수준에서 편성하고 운영하며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인 것을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수식 문구로 특징 짓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아와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

육과정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류승희, 2022). 더불어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에서는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일례로 자유선택 활동을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들의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와 함께 실외 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놀이에 유아가 몰입할 수 있는 일과의 구성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동시에 유아의 놀이에 대한 교사의 재이해와 함께 놀이를 통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안내하고 있는데(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a) 이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방향성의 차원에서 본 두 가지 형태, ‘교육과정으로부터 형성된 놀이’와 ‘놀이로부터 생성된 교육과정’ 중 후자에 가까운 것이다(김희영, 2019; Van Hoorn et al., 2015/2018). 개정 누리과정이 가진 ‘놀이로부터 생성된 교육과정’의 특징은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 자료와 놀이이해 자료의 ‘유아에게 발현되는 놀이주제’ 또는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 등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우혜민(2020)과 김영신(2022)은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중심교육이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와 배움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발현적 교육과정이라고 하였다. 문주련(2022)도 유아의 요구와 흥미를 기반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교사가 이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진술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방향이 유아들의 놀이로부터 형성되는 교육과정임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서는 초기 유치원 교육부터 놀이를 교수 학습 방법의 원리로 삼는 놀이중심 교육을 강조해왔고(김미란, 2021; 김영옥, 2019) 1979년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중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이승미, 2020) 놀이를 통한 교육을 공식화했다. 이후 여러 차례 교육과정의 개정을 거쳐 누리과정에 이르기까지 놀이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오면서 놀이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놀이를 활용한 교육과정은 주로 ‘놀이교수·학습방법’으로 기술되며(오채선, 2019) 놀이가 교사의 계획에 의해서 주도되고 계획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전효훈, 엄정애, 2011). 이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부족과 부모들의 학습 지향적인 요구,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관련된 현실적인 어려움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기도 했지만(엄정애, 2001, 2004),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의 유아교육현장에서 실행된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방향성 차이 또는 놀이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김희영, 2019; 류승희, 2022; 엄정애, 2001).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교육적 놀이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형태는 ‘교육과정으로부터 형성된 놀이’이며 그동안 우리의 유아교육현장에서는 교육과정으로부터 형성된 놀이가 적용되어왔다. 이를 통해 우리의 유아교육현장은 꾸준히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였고 교육과정으로부터 형성된 놀이와 놀이로부터 형성된 교육과정 모두를 중요하게 여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엄정애, 2001).

유아교육에서는 놀이와 교육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Miller & Almon, 2009), 이를 위해서 유아가 흥미를 갖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방법에 놀이를 포함해야 한다(Samuelsson & Johansson, 2006). 놀이로부터 생성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유아의 흥미를 동반한 놀이와 함께 놀이 속에서 나타나는 학습경험을 조직하여 실행하는 시도가 필수적이다(Johnson, Christie, & Yawkey, 1999/2005). 놀이와 교육과정의 적절한 연계와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윤민아, 2019)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 역할이 축소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인 발현적 교육과정에서도 유아 주도적인 놀이와 교사 주도적인 활동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수적이다(우혜민,

2020).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유아와 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인해주고 있다(문주련, 202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서는 일찍부터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은 놀이중심과 영유아중심을 강조하고 이를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으로 명시하면서 놀이의 중요성을 더욱 확인해주는 것과 동시에 놀이와 교육의 균형적 조화를 위한 교사의 적절한 개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교육부(2019a)는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를 통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총론에 앞서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신설한 ‘성격’ 항목의 마지막에 누리과정이 유아, 교사, 원장(또는 원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와 원장 또는 원감이 유아의 발달과 흥미 및 놀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교육과정의 주체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학부모는 교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하여 유아가 가정과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누리과정의 실천적 의무가 교사와 원장에게 한정되지 않아야 할 것과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가정연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김효진, 2022; 문수영, 조영주, 2020; 윤경옥, 2021; 이성희, 이미영, 2021; 최지현, 2020). 같은 맥락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부모들과 유아교육기관이 함께 연계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제안하고 있다(권경미, 고재욱, 2021).

정리하자면, 영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운영되어왔고 우리나라는 이를 국가수준의 공통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기관에 따라

각각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명칭하고 있으나 영유아 놀이중심의 목표는 같다. 영유아의 놀이를 활성화하고 놀이를 통한 놀이중심 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와 원장의 놀이 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지속적인 협의 과정,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놀이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들이 놀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가정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2. 가정연계

### 1) 가정연계의 개념과 필요성

일반적으로 영유아가 태어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속하는 사회가 가정이며 대부분의 영유아는 부모와 함께 이루어진 가정에서 성장한다. 가정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가정이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Bronfenbrenner(1979)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영유아가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을 가장 가까운 미시체계부터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영유아에게 가장 가깝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체계는 미시체계인데, 가정은 유아교육기관, 또래 집단과 함께 이 미시체계에 속해있으며 결론적으로 영유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차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정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의 기능을 사회가 담당하게 되면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연계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춘선, 2023; 배진희, 2019; 최연희, 2022; Bigner & Gerhardt, 2014). 유아교육기관은 영유아가 생애 가장 처음으로 교육받는 기관이며 부모, 가정과 함께 중요한 환경

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부모와 가정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중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정연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정과 연계하여 함께 실시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참여, 부모교육 등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과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강문희 외, 2016). 또한 부모가 유아교육기관과 동반자, 협력적 관계로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유아교육기관과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영유아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뜻하는 것이고(정미애, 2012),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의 의견과 교육 기관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 활동을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나혜선, 2016).

마지막으로 가정연계의 개념을 참여하는 대상의 확대 측면에서 정의할 수도 있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활동을 가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영유아와 함께 실행하고 이에 대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상호소통하며 교류하는 것이다(최미순, 2016).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정연계는 결국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영유아 교육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며 함께 소통하는 것이다.

가정연계는 부모참여가 확대된 개념이며 부모교육이나 부모훈련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정연계와 부모참여와 관련된 용어들은 부모참여(parent participation), 부모개입(parent involvement), 가정 협력(family-school collaboration) 가정-학교 연계(family-school links), 가정-학교 파트너 쉽(family-school partnerships) 등의 용어들이 유사하게 또는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모두 가정과 교육 기관이 협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박희숙, 2009). 또 다르게는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의 용어를 참여 정도와 참여 적극성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부모훈련

(parent training), 부모지지(parent support), 부모참여(parent involvement), 부모역할하기(parenting)로 정리하기도 한다(김영옥, 2016). 이 중에서 부모교육과 부모훈련, 부모지지는 부모가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성격을 갖고 참여하는 형태이고, 부모참여와 부모역할하기는 상대적으로 부모가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포괄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가정연계에 대한 용어가 구분 기준에 따라 다양하지만 모두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와의 협력 또는 연계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가정연계는 부모의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포함하면서 가정이라는 장(場)에서 이루어지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급변화로 부모가 동시에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되면서 영유아 교육 기관 이용률과 함께 영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다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부모 협력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연희, 2022). 영유아의 안정적인 발달과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부모가 능동적인 태도로 유아교육기관과 협력하는 것은 영유아 발달에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유아 발달과 부모의 역할,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의 협력이 순환적인 과정에 의해 유기적인 관계로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모용희, 2015; 박희숙, 2009; 소영란, 2020). 이에 따라 가정연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영유아와 부모, 교사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영유아들은 가정과 교육 기관의 연계로 인해 부모에 대한 신뢰감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영유아

들의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다(김춘선, 2023; 김희정, 2009; 이진호, 2016; Dauber & Epstein, 1993).

둘째,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가정연계를 경험한 부모들은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장지원, 2020; 최연희, 2022; Dauber & Epstein, 1993). 부모들은 가정연계 부모참여를 통해 영유아들의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사와 교육기관을 신뢰할 수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과 함께 자녀와 가정에서 놀이하거나 생활교육을 할 때 필요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영유아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교육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부모의 관심과 신뢰로 인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배진희, 2019; 이옥희, 2018; 장지원, 2020; 최미순, 2016; Henderson, 201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정연계는 유아교육기관과 부모가 협력하며 영유아교육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 위해 상호 연계하여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과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가정연계는 부모참여와 부모교육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이 모두를 포괄하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유아교육기관은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가정연계는 이를 위한 부모들과의 협조체제 형성 및 유지에 적합한 방법이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 2) 가정연계의 효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사회적 필요로 더욱 강조되어 왔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관련 법령 제정과 열린 어린이집 시행(보건복지부, 2015)에 의해 더욱 확대되어왔으며, 유치원 역시 유아교육법에 운영위원회 등의 조항을 두어 부모들의 참여를 명시해왔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부모들의 유아교육기관 참여가 활발해졌으며 다양한 가정연계가 유아교육현장에서 실행되면서 가정연계의 가치가 인정되었다(김춘선, 2023). 가정연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가정연계를 통한 교육 효과 검증, 교육 프로그램 적용, 부모의 인식과 양육 태도 개선 등으로 다양하며 주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 활동을 가정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효과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가정연계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 의해 효과도 다양하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주제와 관련한 가정연계 중 그림책이나 동화책 읽기 활동을 가정과 연계하여 유아의 교통안전 지식이 향상되거나(이미경, 2010), 유아들의 읽기 흥미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강은영, 2015). 가정연계 활동으로 인성 향상, 기본생활 능력 향상, 자기조절 능력 향상,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김승연, 2017; 노미숙, 2014; 박미혜, 2015; 변지현, 2017; 손미랑, 2018), 가정연계를 통한 그림책 읽기 활동에 참여한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할 수 있다(유재순, 2016).

가정연계활동을 통해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수학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인식(신남주, 2010), 유아의 체력과 정서지능(진성철, 2013), 소근육 운동기능과

주의집중력(김춘선, 2023)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유아의 사회성과 놀이성(권봉금, 2018; 김창희, 2014; 정경희, 2017) 향상의 효과가 있었다.

가정연계 활동은 부모의 인식 및 양육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다문화 인식(양영자, 2010), 언어발달과 양육 태도(김수연, 2012) 양육효능감 및 양육 태도, 배우자의 양육인식(권기현, 201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육 스트레스 감소(김세경, 2021) 등의 효과가 있다. 가정연계 활동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적용할 수도 있는데 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정미애, 2012), 가정과 연계한 기초체력 증진 프로그램 구성(방은경, 2012), 가정연계 긍정훈육 프로그램(심태은, 2016), 배려교육 프로그램(나혜선, 2016), 미술활동 프로그램(이옥희, 2018), 유아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소영란, 2020), 놀이기록 인터페이스를 통한 가정연계 운영관리 APP 개발(김세현, 2020), 환경교육 프로그램(조미정, 2022)등으로 다양한 가정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동화나 U-learning, 코로나19로 인한 실시간 비대면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정연계 활동으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과의 소통, 교육적 연계, 가정연계 및 부모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다(박신영, 2011; 이해선, 배지희 2021; 최미순, 2016).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를 통해 유아들의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자연탐구 등의 전 영역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연계가 부모의 인식과 양육행동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교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연계를 통해 부모참여의 적극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장(場)을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3) 가정연계의 유형과 방법

유아교육에서 부모의 참여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해 왔고 부모참여가 가정연계로 확대되면서 유아교육과 가정과의 연계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정연계가 부모교육과 부모참여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며(박희숙, 2009; 심태은, 2016) 실제 유아교육현장에서도 용어나 개념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실행하고 있다(최미순, 2016). 따라서 가정연계의 유형을 부모교육과 부모참여에 대한 기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정연계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리되고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교육은 1960년대를 전후로 부모를 가르침의 대상, 즉 학습자로 보는 입장에서 부모가 교육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참여자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하였다(정옥분, 정순화, 2016). 부모교육은 부모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기초단계, 봉사단계, 결정자로서의 세 단계로 나누어지기도 한다(이기숙, 2016). 가장 소극적 참여 단계인 기초단계에는 부모참관, 가정통신, 면담, 부모간담회 등으로 부모가 교육 기관의 안내에 따라 참여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인 봉사단계는 부모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인 결정자로서의 단계는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여러 사안에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단계이다.

부모교육은 교육청중자, 가정학습자, 자원봉사자, 보조교사 또는 전문가, 의사결정자로서의 참여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Gordon, 1977) 교육청중자는 교육 기관의 교육 정보를 활용하는 정도의 참여를 의미하고, 가정학습자는 자녀의 학습을 가정에서 지원하고 조력하는 정도의 참여 단계를 말한다. 자원봉사자 단계는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수행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한 영역에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주며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보조교사 또는 전

문가로서의 참여는 직접 참여하여 역할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 의사결정자는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같은 교육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의사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부모참여 및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연계 유형을 Epstein(1986)은 6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 번째는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해하는 단계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단계이며 교육 기관을 이용하도록 가정에서 지원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부모와 가정 간의 의사소통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교육 기관에서 유아의 발달과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통해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직접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단계로 정리했다. 네 번째 유형은 부모가 자녀의 대화기술, 문제해결력, 언어활동, 수학활동의 교육을 직접 수행하며 참여하는 단계이며, 다섯 번째는 의사결정의 단계로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협의회 등의 운영에 관해 의사결정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단계이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정연계의 유형을 부모의 참여 정도에 따라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로 구분한다(김정자, 2011). 소극적 참여는 수업참관, 수업참여, 부모교육 외에 교사와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과 각종 행사 참여로 분류되며 부모들의 참여 기회 및 참여 횟수가 한정적인 특징을 갖는다. 적극적 참여는 부모자치모임, 부모회, 운영위원회, 자원봉사 등으로 부모들의 참여 횟수가 소극적 참여형태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연계는 그림책 대여, 장난감 대여, 교구 대여, 가정으로부터의 자원협조, 가정통신문 배부, 홈페이지 활용, 개별상담, 전화상담, 개별면담, 집단토론, 의사표시 및 의사결정하기, 보조교사, 자원봉사, 부모회 참여, 행사 참여, 수업 참관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으로 진행되기도 한다(정미애, 2012). 가

정연계를 적용하는 방법은 교육기관에서의 부모참여와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시되면서 더욱 다양화 되어왔다(심태은, 2016).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여건과 가정연계의 목적에 의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가정연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용희(2015)는 인성교육 활동을 위해 참여하기, 자료공유, 정보공유, 의사소통의 네 가지 방법의 가정연계를 실행했다. 나혜선(2016)은 배려교육 활동을 위해 이야기 나누기, 그림 그리기, 배려실천 내용 기록하기의 방법으로 가정과 연계하였다. 심태은(2016)은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활용,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집단토론, 부모회의 방법을 활용하였고, 최미순(2016)은 유튜브 정보통신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외에 행사참여, 강연회, 가정통신, 부모회, 도서대여활동 등을 가정과 연계하는 방법과(임성혜, 2017)과 그림 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미술 놀이 가정연계 방법이 보고되기도 하였다(이옥희, 201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연계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참여와 함께 혼용되어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정리되어왔다. 또한 가정연계는 유아교육기관의 여건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모색되어 적용되었으며 가정연계의 유형과 적용 방법 및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특성에 의해 유아교육 기관이 가진 환경이나 여건, 교육적 목적 그리고 부모들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 모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가정연계에서 부모의 역할

가정은 영유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속하는 사회이며 동시에 교육이 시작되는 최초의 장이다(임성혜, 2017; 이옥희, 2018). 가정교육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예로부터 인정되어왔고 유아교육기관의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조미정, 2022). 이와 같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은 현대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로 인해 영유아들의 유아교육기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약화 되었다. 또한 이런 영향으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적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었으며 사회적 요구도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영유아 교육의 근본적 주체는 부모이며 부모 역할은 부모의 지위를 가진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의 총체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도하는 일련의 활동을 해야 한다(소영란, 202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적절한 부모 역할은 유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며 부모는 자녀의 지적발달과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정옥분, 정순화, 2016).

부모 역할은 가정연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유아교육기관과 가정과의 연계에서도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과 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역할을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강문희 외, 2016). 특히 가정연계는 부모참여의 장소와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 활동에 부모는 물론 가족들까지 참여하기 때문에(최미순, 2016) 부모의 주체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가정연계에서도 부모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실행하여 보여주는 올바른 모델링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유아와 적극적인 대화를 하며 유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의사 소통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유아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놀이 동반자와 놀이지원자, 유아의 정서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반응자의 역할 등을 해야 한다(이옥희, 2018). 최혜영(2001)은 인성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가정연계에서의 부모 역할에 대해 자녀의 발달 수준에 따른 특성 알기, 자녀의 모범이 되기, 자녀의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비교하지 않기, 좋은 가족 규칙과 가족문화를 만들고 지켜가기,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하기로 정리하였다. 이는 가정연계에서의 부모 역할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정연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경우로 볼 수 있다.

가정연계 과정에서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서수미(2011)의 세 가지 부모 역할 개념인 발달자극역할, 양육역할, 관리역할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연계에서도 부모는 교육 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자녀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부모는 가정연계 과정을 통해 물리적 지원과 관련된 양육역할 외에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양육역할을 해야 한다. 세 번째, 부모는 가정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이해하고 자녀에 대한 일관적이고 융통성 있는 애정으로 자녀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관리역할을 해야 한다.

가정연계는 부모와 교육 기관이 특정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부모가 자녀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며(임효선, 2010) 상호 지속성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관계로 실행된다(강문희 외, 2016; 소영란, 2020). 또한 가정연계가 장기간 진행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가정연계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고 효과적이다(김효진, 2021; 장지원, 2020).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정연계에서의 부모 역할 또한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연계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참여에 비해 참여 대상이 포괄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모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더 필요하

다. 가정연계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연계 과정에서의 부모 역할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연계 과정에서 부모참여와 부모교육 활동의 병행 실행으로 가정연계의 목적에 맞는 부모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

### 3. 비대면 원격교육

#### 1) 비대면 원격교육의 개념 및 특징

비대면(비-대면, 非對面)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언택트(untact)는 contact의 반대 개념으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국립국어원, 2023). 언택트(Untact)는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적인 접두사 ‘언(Un)’을 붙여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신조어로 비접촉, 비대면 형태를 의미한다(남주원, 2020). Untact는 도서 ‘트렌드 코리아’의 2018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처음 사용되었다. Untact는 정보통신 기술과 오프라인 상업이 융합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세대의 새로운 마케팅 소비 트렌드로 소개되었으며, 상품 판매의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과 직접적인 대면 없이 서비스와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Untact는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디지털 환경 기반의 비대면 일상을 특징 하는 시대적 표현이 되었으며,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생활은 모임, 놀이, 교육, 상업은 물론 산업사회 전반으로까지 확대되었다(윤혜정, 2022). 비대면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감염확률이 높아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사람과 사람간의 만남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익숙해진

용어 ‘비대면 접촉’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등장하고 보편화되기 시작한 새로운 용어이다(신지연, 2021). 비대면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촉과 대면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원격(遠隔)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상 또는 상호 간의 거리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장소나 공간의 분리 또는 거리(distance)를 전제한다(김재영, 2022; 이승희, 2021). 따라서 비대면과 원격 두 용어가 결합한 ‘비대면 원격’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거나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비대면과 원격을 동일 의미로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비대면 교육과 원격교육, 비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을 동일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으나, 비대면은 대면과 대조되는 용어로 ‘직접성’ 여부에 의해 구분되며 원격은 ‘거리와 장소의 구분’을 우선으로 전제하고 수단과 방법의 다양성을 내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김민재, 2021; 유리, 2022; 이승희, 2021).

비대면 교육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휴교와 휴원 및 개학 연기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진 각급 학교의 온라인 개학과 함께 시작되고 확산되었다(유정인, 이민영, 김경철, 2021). 코로나 이전에도 교육 분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병행 형태인 블렌디드 교육과 플립드(flipped) 교육이 적용되었고, 미네르바 대학같이 캠퍼스가 없는 형태나 무크(MOOC)와 같은 온라인 수업도 있었지만, 각급 학교의 전면 비대면 원격수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적인 교육방법이 되었다(신지연, 2021).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은 교사와 학생이 각각 다른 시공간에 있으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Casey, 2008). 원격교육을 정보통신의 다양한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지리, 공간, 경제, 자연적 제약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이나 장소 구분 없이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안수영, 1995). 원격교육의 용어는 1982년 세계방송통신 교육협회에서 국제통신 교육협회(International Council for Correspondence Education)의 명칭이 국제원격교육협회(International Council for Distance Education)로 개칭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이현목, 2000).

원격수업은 원격교육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원격수업은 인터넷의 웹 환경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교사와 학습자의 대면 없이 공간을 달리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뜻한다. 즉,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온라인에 기반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수업을 의미한다(김효진, 2021). 교육부(2020a)는 원격수업을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라고 하였고 사전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국립국어원, 2023)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원격교육을 전통적인 교육방식과 같이 학습자가 출석하여 진행하는 대면 학습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시간과 공간적인 원격성을 전제로 인쇄물이나 방송 통신 및 컴퓨터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공학 매체들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교육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원격교육의 개념을 토대로 본 비대면 원격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원격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자율성과 편의성이 있다(권혜진, 2022). 이런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으로 참여자의 비용과 시간 절약 효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감이 높다(김하영, 2021; 김희영, 정우영, 2021). 또한, 교수자가 수업을 준비할 때 내용과 방법에 대한 융통성 발휘가 가능하며 학습자도 장소나 시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고 이에 따라 참여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박영숙, 김낙홍, 신미

영, 2021; 박중열, 2020).

둘째, 비대면 원격교육은 참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고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이 가능하다. 비대면 원격의 가정연계는 부모와 가족이 참여하기에 효과적이고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여 참여 방법의 효율성도 높다(서희진, 2014; 최미순, 2016). 원격수업 또한 가정의 참여도 향상 및 학부모와 교사의 만족도를 증진 시킨다(김효진, 2021).

셋째, 비대면 원격교육은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권혜진, 2022; 서나래, 2020). 다양한 콘텐츠는 학습참여자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교육자료 활용과 준비과정에서 교사의 비대면 교수매체 활용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 및 자율성이 상승하기도 한다(김재영, 2022; 이동국, 2015; 이해경, 2022).

넷째, 비대면 원격교육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수업 참여 독려 등의 준비가 더 요구되고 이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을 더 필요로 한다(고정화, 박문환, 2018; 박상훈 외, 2020; 윤선희, 2022). 학습자들은 비대면 원격교육 환경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도 하고(천인순, 2022) 비대면 원격교육에서의 상호작용은 대면 교육 상황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요구되며(한형중, 2020), 이는 비대면 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문은경, 2022).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비대면은 신조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접촉 즉 만나지 않는 것과 소통과 교류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원격과 비대면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으며 두 용어가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코로나로 비대면 원격교육의 장점과 편의성이 부각되었고 효율성과 효과성 및 활용범위가 넓지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와 이를 위한 교사의 노력 등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활용에 대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 2) 비대면 원격교육의 필요성과 유형

코로나로 ‘언택트’와 ‘비대면’이 신조어로 등장하고 원격이라는 조건이 일상화되면서 영상 서비스나 온라인 게임, 원격 회의 및 교육 등의 비대면 방식이 급속도로 사회 전반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박수규, 2022).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왔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education)과 테크놀로지(technology)를 결합한 에듀테크(EduTech)의 발달로 원격교육의 방법이 확장 적용되었고(이미정, 2020) 정부의 교육 정보화 산업 추진과 함께 ICT 기술(ICT) 기반 교육 지원으로, 이러닝(E-Learning), 엠러닝(M-Learning), 유러닝(U-Learning)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스마트 기기들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스마트 러닝(Smart-Learning)이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교육방식도 등장하게 되었으며, 첨단기술 도입 교육방법인 에듀테크(EduTech)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 이러닝은 시공간을 넘는 편리한 학습 환경 제시가 가능하고 에듀테크는 학습자와 학습의 맥락을 고려한 광범위의 포괄적 접근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예슬, 2016; 남선우, 2020; 전병호, 김용, 2017).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기 활용 및 인터넷 통신환경에 기반을 둔 블렌디드 러닝 즉, 대면과 비대면 병행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정보통신 시대의 학습 환경이 교실 안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하고 학습자의 생활공간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권성호, 이정은, 2009; 안대진, 2006). 또한 학습자가 지리적, 시간적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 환경 모형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그 방법

으로 디지털 매체를 제안하였다(김혜진, 2011). 이와 함께 유아교육현장에서 QR코드를 활용하여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와 부모 만족도 및 부모 및 가정과의 연계, 부모참여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김민정, 2016; 김현주, 2014; 유구중, 한명옥, 김명숙, 최승연, 2014). 이 외에도 이러닝 앱의 이용을 병행한 교수 방법으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효과성 검증한 정영심(2017)의 연구와 QR코드와 E-메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반으로 한 U-러닝 가정연계로 영유아 부모 모두에게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최미순(2016)의 연구 그리고 태블릿 PC, QR 코드, 스마트 폰 단말기 등을 활용한 U-러닝 생태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서희전(2014)의 연구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코로나 이전부터 교육계에서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비대면 원격교육의 유형을 Coldeway(1994)는 교육의 진행방식에 따라 전통적인 교육, 개별학습 또는 분반수업, 실시간 원격교육, 비실시간 원격교육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시간과 장소의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현재까지 오프라인 교육과 원격교육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Simonson et al., 2019; 박상훈 외, 2020).

전통적인 교육은 오랫동안 교육에서 적용해온 방법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 시간대 이루어지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대면 교육을 의미한다. 개별 또는 분반 수업은 특정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하는 교육방법이다. 전통적인 교육과 개별 또는 분반 수업 모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의 교육이다. 이와 달리 원격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가 각각 다른 장소에 위치해서 교육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격교육은 비대면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시간의 동시성에 의해 실시간과 비실시간으로 구분된다.

원격교육은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ICT 활용 교육은 1996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며 E-러닝, M-러닝, U-러닝의 단계를 거친 다음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6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발표 후, 본격적인 스마트러닝 시대가 시작되었다(장상현, 2013). 반면, ICT를 활용하는 교육은 E-러닝, M-러닝, U-러닝 그리고 스마트러닝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고 그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E-러닝, M-러닝, U-러닝, 스마트러닝의 순서로 발전하고 있다(이미정, 2020).

ICT 활용 원격교육의 개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E-러닝(electronic learning)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작된 학습 방법으로 전원을 연결한 학습 매체를 사용하고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매개체로 한다. M-러닝(mobile-learning)은 2000년대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따라 활성화된 학습법이며(황사연, 2018), U-러닝(ubiquitous-learning)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무선 네트워크 망의 전국적 보급으로 가능해진 학습법이다. 여기서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시간과 장소의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상호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정보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Kannan, Chang & Whinston, 2001).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본격적인 스마트러닝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S-learning은 smart learning과 social learning이 합쳐진 용어이다(사유정, 2014).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개학과 함께 시작된 원격수업을 교육부(2020a)는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수업이라고 정의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원격교육의 유형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를 활용하는 수업, 과제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콘텐츠를 활용하

는 수업은 강의형 그리고 강의형과 활동형이 혼합된 형태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원격교육이다. 강의형 수업은 교사가 지정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를 학생이 시청한 다음 교사가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강의와 활동 혼합형은 학생이 콘텐츠를 시청한 다음 댓글을 입력하거나 원격으로 토론하는 병합형태의 수업이다. 세 번째, 과제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은 교사가 학생에게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하는 방법의 수업을 의미한다. 네 번째,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은 지역별 교육청 또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양한 원격수업을 의미한다.

원격수업은 시간의 동시성에 의해 실시간과 비실시간의 기준으로도 구분된다(Belanger & Jordan, 1999; Simonson et al., 2019). 실시간 원격교육은 교수자의 반응이 즉시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또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반응이 서로 교류되는지 등의 상호작용 여부에 따라 일방향과 쌍방향으로 구분된다(Simonson et al., 2019). 이 외에 실시간과 비실시간 교육이 혼합된 유형과 함께 교육내용 일부만 비대면 원격으로 진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의 비대면 원격교육의 유형이 있다(문은경, 202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 및 확산에 따라 코로나 이전부터 비대면 원격방식을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비대면 원격방식은 시간과 장소에 따른 제한을 직접 받는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과 형태의 원격교육으로 활용되었다. 비대면 원격교육의 유형에는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수행과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이 있다. 비대면 원격교육을 교사와 학생의 접속 시간과 상호작용 여부에 따라 실시간과 비실시간, 일방향과 쌍방향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원격 교육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3) 비대면 원격교육과 가정연계

비대면 원격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개학과 그에 따른 재택수업으로 시작되었다(교육부, 2020b). 교육부는 재택수업 초기 온라인 개학에서 유치원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유아의 발달과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들에게 원격교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해지면서 유치원에서도 비대면 원격교육이 시작되었다(이미정, 2020).

유아교육기관의 비대면 원격 가정연계는 서울시교육청의 집콕 유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서울시교육청, 2020). 교육부는 3월에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및 휴업 장기화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 지원 방안’에서 ‘집콕 놀이’ 지원과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가정 연계교육 내용을 각 유치원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는 유치원 원격교육의 시초가 되었으며 2020년 4월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휴업 기간에 교육과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집콕 유치원 놀이 꾸러미’를 통한 가정연계 활동으로 가정과 유치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부모들을 지원하였다(서울시교육청, 2020). 보건복지부에서도 2020년 3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면서 가정교육을 하는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과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와 아이사랑포털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여 비대면 원격 가정연계를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2020c).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원격교육은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부모의 지원과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와 가정과의 연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에 의해 가정 돌봄의 장기화로 부모지원과 가정연계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고 몇몇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원격교육을

선구적으로 시작하기도 하였다(유정인, 이민영, 김경철, 2021; 이미정, 2020).

한편, 유아교육기관의 비대면 가정연계는 코로나로 인해 시작되었지만(이미정, 2020) 유아교육기관에서 상호 간에 거리를 두고 인터넷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하는 비대면 가정연계는 코로나 이전부터 유아교육에 적용되어왔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비대면 가정연계는 부모교육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는 부모들의 다양한 여건으로 인해 부모교육 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결과로 유추된다.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부모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김애란, 2010), E-learning 활용(권기남, 2012),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 형태로 진행되는 블렌디드 러닝(신혜영, 2020)과 온라인 방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나련, 정유진, 2021; 현선영, 2021)등으로 대상과 목적에 맞춰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비대면 원격 가정연계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숲과 유치원, 가정이 연계하여 유아의 창의성 및 인성 활동이 가능하였고, 이로 인해 유아의 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 창의성, 환경 친화적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서희전, 2017). 또 다른 형태로 교사와 부모, 영유아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원격 활동으로 양방향 소통 방식을 적용한 가정연계도 있다(유수정, 2021; 이해선, 배지희, 2021).

이상의 내용을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비대면 원격교육이 코로나로 인해 부각 되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비대면 방식의 가정연계는 주로 부모교육과 부모 참여에 활용되어왔으며 유아교육기관의 가정연계 목적과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랑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한 가정연계의 실행과정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나 부모 및 교사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가정연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1. 실행연구

본 연구는 연구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영유아들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한 것으로 실행과 평가, 개선 방법 모색, 수정된 계획의 실행과 재평가 과정을 반복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로 이루어졌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유아교육현장도 지속적인 개선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하다. 더불어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실행연구 과정에는 원장과 교사들은 물론 부모들과 유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들이 반영되어야 한다(Anderson, 1994).

실행연구에서는 순환과정이 반복되면서 원장과 교사들은 연구자가 되고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이용숙 외, 2015). 교육 현장에서는 실행과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Glenda & Patrick, 2008/2013) 사랑어린이집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정연계 적용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는 연구 과정의 각 단계를 실행하고 실행과정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평가하는 반성적 사고 과정을 가진 뒤에 다음 실행계획을 세우는 순환적 과정의 실천적 방법(Elliott, 1991)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하는 가정연계에 대한 사전 경험이 적고 다른 기관에서 적용된 사례를 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랑어린이집에 적합한 방법이다.

연구자인 원장은 오랫동안 지속해 온 사랑어린이집의 가정연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랑어린이집 부모들이 놀이와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부모들이 영유아의 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비대면과 대면 방식의 가정연계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교사들과 의논하게 되면서 실행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연구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사례가 드문 비대면 가정연계를 대면 가정연계와 병행하여 실행하고, 이로 인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과 관련한 가정연계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자

연구자는 사랑어린이집에서 개원 준비 단계에서부터 근무해온 사랑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연구자의 보육교사 경력은 14년이고 총 2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가 교사와 원장으로 지내오는 동안 유아 교육자의 전문성에

대한 노력을 부모참여와 놀이중심 교육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처음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약 8년간 근무한 P시의 G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장애영유아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장애영유아 보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모참여 활동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했었다. 특히 영유아 한 명의 부모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어린이집의 대부분 일과에 참여하도록 하는 부모일일 참여활동은 연구자가 부모참여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효과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연구자가 G어린이집에서 경험한 부모일일 참여활동은 장애영유아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웠던 형태로 한 명의 부모와 아침 등원부터 오후 하원 시간까지 일과를 함께 보내는, 교사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렇지만 연구자는 해를 거듭하면서 부모참여의 체계화를 위한 노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발전과 부모들의 변화, 영유아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경험하고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자 스스로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것과 부모참여에 대한 확실한 기준 및 운영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며 부모참여의 필요성과 함께 유아교육의 중요한 변인이 부모라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영유아 중심 놀이중심 교육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기회는 연구자가 P시를 떠나 다른 지역에 있던 E와 D의 일반 어린이집에서 갖게 되었다. 연구자는 G어린이집 퇴직 이후 E와 D어린이집에서 근무했는데 직장어린이집이었던 E어린이집의 폐원으로 함께 근무했던 원장과 다시 국공립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근무한 E와 D어린이집은 레지오에밀리아 프로그램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곳이었다. 8년 이상 장애영유아 교육에 전념하였던 연구자는 교사의 세밀한 교육 계획에 맞춰 영유아가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특수교육 교수법에 익숙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의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여 적절한 놀이를 지원하고 이를 교육적 놀이로 연결하는 교육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자에게 놀이를 통해 영유아의 생각을 해석하고 지원하는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과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은 쉽지 않은 새로운 훈련의 과정이었다. 반면, 연구자는 이런 경험과 실행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이 고민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유아 교육자의 교육관을 확립하는 계기도 함께 갖게 되었다.

연구자는 사랑어린이집의 개원 원장이 되면서 G어린이집에서의 부모일일 참여활동을 직장어린이집의 특성과 사랑어린이집 부모들에게 맞춰 실행하였다. 연구자는 사랑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높은 재원율과 적게는 2년에서 5년까지의 재원 기간을 고려하여 교사들과 함께 부모참여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어린이집을 부모들에게 최대한 개방하고자 했으며 이를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중요한 요인인 부모와 교사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참여를 통해 교육과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통해 부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순환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다.

요약건대 본 연구자는 영유아 중심의 교육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랑어린이집의 가정연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연구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 실행을 교사들과 함께 연구하며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사랑어린이집 교사들이 부모들은 물론 스스로 인정하는 유아교육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두 원장처럼 교사들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지원을 하고자 한다.

### 3. 연구기관

#### 1) 사랑어린이집

사랑어린이집<sup>2)</sup>은 서울시 소재 A사의 직장어린이집이며 재원 영유아 23명, 담임교사 6명, 보조교사 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재원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의 부모 중 한 명은 A사의 직원이다. A사는 여성 직원보다 남성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미혼 직원들의 비율이 높지 않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도 많지 않은 곳이다. 한편, 201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이후, 직장어린이집의 수와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었고, 맞벌이 부부들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와 설치 요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의 영향으로 A사 내에서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A사는 도심 속에 사옥을 가지고 있고, 주거지에서 먼 거리에 있어 부모의 출퇴근 시간은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이 된다. 이러한 조건은 낮은 보육수요의 원인이 되고, 어린이집 설치 후에도 실제 이용률과 이용 만족도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A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앞두고 장소와 운영 규모 등에 대해 여러 방향의 고민을 했고, 이와 같은 배경은 어린이집 개원 이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원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게 되었다.

사랑어린이집 부모들은 평균 근무 8시간과 휴게 시간을 포함한 9시간 동안 회사에 있게 되고 이 시간은 곧 영유아들의 보육시간이기도 하여 영유아들은 9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머물기도 한다. 부모들은 직장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면서 가까운 곳에 자녀가 있는 것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느꼈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어린이집에 쉽고 빠르게 방문할 수

---

2) 본 연구의 참여 기관 및 학급명과 연구에 참여한 부모, 영유아 이름은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모두가명으로 하였다.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컸다. 반면, 부모들과 출퇴근을 함께하고 부모들이 근무하는 하루 내내 어린이집에서 지내야 하는 자녀의 일과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였고, 이러한 궁금증은 교육적 효과에 대한 걱정과 단조로움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 2) 씨앗반, 새싹반, 꽃잎반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랑어린이집은 만 1세부터 만 4세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다. 사랑어린이집은 만 1세, 만 2세, 만 3·4세가 각 2반씩 있으며 유아반은 3세와 4세 혼합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육실은 총 3개가 있고 연령이 같은 두 반이 1개의 보육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사랑어린이집의 2022학년도 재원 영유아 현황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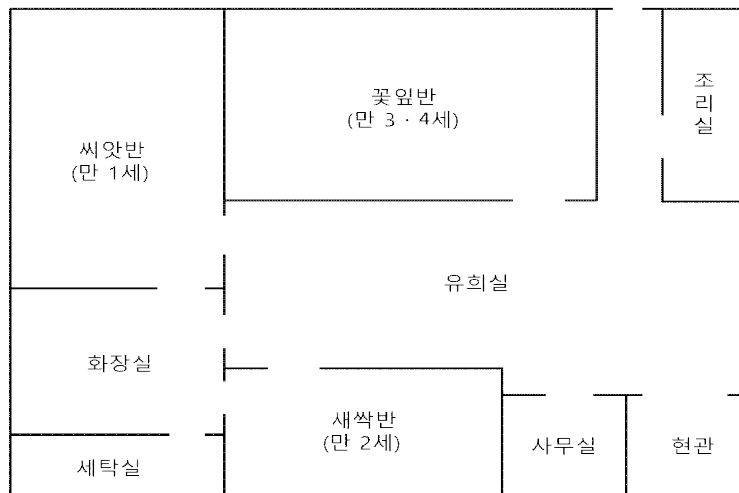
<표 1> 사랑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현황

구분	씨앗반	새싹반	꽃잎반
연령	만 1세	만 2세	만 3.4세
영유아인원	8	8	7
교사인원	2	2	2

\* 22년 3월 1일 기준

사랑어린이집에는 유희실을 제외하고 별도의 실내 놀이터나 실외 놀이터가 없다. 어린이집의 전체 면적은 60평이고 보육정원은 35명이며, 재원 영유아 인원이 많았을 때도 30명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영유아 1인당 면적은 여유가 있으나 실내외 놀이터가 따로 없는 것에 대해 연구자는

물론 교사들의 아쉬움이 컸으며, 부모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종일 지내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사랑어린이집의 전체 공간은 그림 1과 같다. 연구자는 이런 환경적인 단점을 최대한 개선하여 영유아들이 자신의 교실에서만 생활하지 않도록 하고자 2016년부터 연령 교류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림 1] 사랑어린이집 평면도

연령 교류 활동으로 영아반과 유아반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서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영유아들이 서로 어울려 놀이하고 교사들도 반의 구분 없이 영유아 그리고 부모들과 소통하도록 하였다. 사랑어린이집의 씻앗반, 새싹반, 꽃잎반 영유아들은 오전 8시 전부터 2~3명씩 등원하여 10시 정도까지 자유롭게 등원하며, 저녁 식사 시간 전후로 1, 2차 하원이 이루어진다. 이어 저녁 식사가 마무리되는 18시 30분 이후에 80% 이상의 영유아가 퇴근하는 부모들과 하원하고, 마지막으로 1~2명의 영유아가 19시에서 19시 30분에 하원한다. 특별활동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부터 2022년 8월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랑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일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사랑어린이집의 일과

시 간	활 동
07:30 ~ 09:30	등원 및 오전간식
09:30 ~ 10:00	실내자유놀이
10:00 ~ 11:30	실외자유놀이
11:30 ~ 11:40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11:40 ~ 13:30	점심식사, 양치질, 주변정리 / 낮잠준비, 낮잠(영아반) 조용한 놀이 또는 휴식
13:30 ~ 15:00	낮잠 (휴식) / 정리
15:00 ~ 15:30	오후간식 / 정리하기
15:30 ~ 17:30	오후자유놀이 / 귀가 준비(1차 귀가-일부)
17:30 ~ 18:30	저녁식사 / 귀가 준비하기(2차 귀가-일부)
18:30 ~ 19:30	자유놀이/ 귀가

\* 22년 3월 1일 기준

#### 4.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사랑어린이집의 교사와 부모 그리고 영유아들이다. 교사 참여자는 담임교사 6명과 보조교사 1명이고 참여한 부모는 모두 22가정 44명이다. 참여 영유아는 만 1세 8명, 2세 7명, 3세 6명, 4세 2명으로 총 23명이며 이 중에서 만 1세 1명과 만 3세 1명은 형제 관계이다.

## 1) 사랑어린이집 교사들

본 연구의 참여자이면서 동시에 공동연구자인 사랑어린이집 교사들은 담임교사 6명과 보조교사 1명이다. 교사들은 사랑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가정연계의 운영 취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해하였고 공감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정연계 활동을 능동적으로 실행해 왔다. 사랑어린이집 교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정연계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원장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과 의지에 대해 공감하고 활성화 필요성을 함께 느끼며 교육과정 확립과 이를 위한 가정연계의 실행과 연구에 동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3과 같으며 교사들의 경력 및 연령은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3> 연구 참여 교사들의 일반적 배경

구분	직위	연령	전공	총 경력	사랑어린이집 근무 경력	최종 학력
A교사	교사	30세	아동학	6년	6년	대학원 재학
B교사	교사	30세	유아교육	8년	1년	대학 졸
C교사	교사	27세	유아교육	5년	2년	대학 졸
D교사	교사	25세	아동학	4년	1년	대학 졸
E교사	교사	26세	아동학	3년	3년	대학 졸
F교사	교사	26세	유아교육	1년	1년	대학 졸
G교사	보조교사	29세	유아교육	6년	3년	대학원 재학

\* 22년 3월 1일 기준

각 교사들의 개별적인 배경을 비롯하여 연구자가 원장, 동료로 함께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시각에서 정리한 교사들 각각의 교직원과 성향은 다음과 같다.

### (1) A교사

A교사는 사랑어린이집 근무 경력이 가장 많은 교사로 영아반과 유아반을 모두 교육해본 경험이 있다.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했으며,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사랑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처음 근무를 시작해서 6년간 근무해왔으며, 근무를 시작한 2015년부터 가정연계를 진행해왔다. A교사는 원장인 연구자의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동의해 왔으며, 사랑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연계의 공동 기획자이자 관리자 역할을 해 왔다. A교사는 코로나 이전의 가정연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획하였고 이를 안정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가정연계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연구에 연구자와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가정연계의 변화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연구자와 함께 이해하였으며 가정연계의 개선방안과 실행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A교사는 가정연계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며 비대면 가정연계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A교사는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정연계의 교사 사전 준비에 대한 교사학습 공동체 운영을 제안하였고 B교사와 함께 교사 학습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 (2) B교사

B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에 7년간 근무했으며, 사랑어린이집에서는 1년간 근무해왔다. B교사는 유치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했으며, 개정 누리과정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사랑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B교사가 사랑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첫해에 만 2세 영아반을 맡았고 영아반 경험이 없었으나 영아반 담임교사의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으며 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부모들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았다. 사랑어린이집에서의 근무 경력은 짧지만, 원장의 교육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하였다. B교사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에 공감하였고 이를 위한 가정연계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학습공동체 과정의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사랑어린이집에서 교사 총 경력이 가장 많은 B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안정적인 교류와 협업이 원활하며, A교사와 함께 사랑어린이집이 목표로 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의 주도적인 협력자이다.

## (3) C교사

C교사는 사랑어린이집에 근무를 시작하기 전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으며 사랑어린이집에서 2년간 근무해왔다. C교사가 근무를 시작한 해에 코로나19가 시작되어 사랑어린이집의 대면 가정연계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C교사가 사랑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을 때는 코로나19 초기로 정부와 A사의 방역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의 이용이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였고 교사들 또한 출근하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C교사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원격연수를 받았고, 재택근무 상황에서 사랑어린이집 교사들과 함께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활용한 비대면 가정연계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C교사는 처음 비대면 가정연계를 실시간으로 진행해 본 것이 생소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 비대면을 시작한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이 비실시간 방법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실시간 가정연계 수업을 하게 된 것과 이에 대한 부모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느낀 자부심을 연구자와의 면담시간에 말하기도 하였다.

#### (4) D교사

D교사는 사랑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전 C시의 직장어린이집에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였다. D교사가 근무한 직장어린이집은 재원 영유아 인원이 사랑어린이집의 8배가 넘는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D교사가 경험한 가정연계는 사랑어린이집의 가정연계와 규모와 진행방식에 차이가 컸다. 연구자는 D교사가 이전 어린이집에서 맡았던 유아반을 사랑어린이집에서도 맡도록 하고 사랑어린이집의 가정연계 과정과 이력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였다. D교사가 사랑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한 2021년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째 되던 해로 영유아 보육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부모들의 어린이집 방문이 제한되어 가정연계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때였다. D교사는 사랑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실시간 가정연계를 경험했으나 동료 교사들과 협의하고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가지며 적극적인 태도로 실행해 왔다.

#### (5) E교사

E교사는 대학에서 아동보육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처음 근무한 곳이 사랑

어린이집이다. 사랑어린이집에서 초임이던 해에 만 1세반을 담임하게 되었고 E교사는 초임이었지만 원장과 동료교사들의게 조언을 구하며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는 영아가 대부분인 1세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부모들과 연구자,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신임을 받았다. E교사는 이후 3년간 사랑어린이집에서 1세와 2세 영아반을 담임하면서 영아들의 발달에 맞는 교육 환경 구성과 영유아들의 놀이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해왔으며, 비대면 가정연계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실행해 왔다.

#### (6) F교사

F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첫 근무지로 사랑어린이집을 택하였다. 처음 교사로 담임을 맡게 된 연령이 만 1세였으며, A교사와 함께 반을 맡았다. F교사는 연구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랑어린이집의 근무환경과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으며 더불어 유아 교사로서의 확고한 사명감도 함께 표현하였다. F교사는 초임 교사로 영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1세 영아를 맡게 되었을 때 걱정과 함께 가정연계에 대해서도 초기에 부담을 가졌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가정연계를 통해 부모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된 점과 그로 인해 얻게 된 보람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F교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 고무적이었으며, 특히 교사들이 협의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과 이를 가정연계로 실행하는 것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 (7) G교사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G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3년 근무 후, 2018년 사랑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G교사는 어린

이집 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추가 교사가 필요하던 상황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보조교사였지만 8시간 근무를 하며 2세반에서 담임교사와 함께 교육활동 진행에 참여했다. G교사는 8시간 근무 보조교사로 1년을 근무한 이후 계속해서 사랑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근무했는데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주 2일 보조교사로 근무하며 사랑어린이집 각반의 보육 활동을 지원해왔다. G교사가 근무했던 유치원 중에는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을 진행한 곳도 있었고 G교사가 가진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관이 연구자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어린이집의 교사들과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가능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사들과 연구자의 신뢰가 크다.

## 2) 사랑어린이집 부모들

사랑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부모 중 1명은 A사의 직원이다. 전체 영유아 23명 중 2명이 형제 관계이며 총 22가정 중에서 19가정(86%)이 맞벌이 가정이고 3가정(14%)은 외벌이 가정이다. 부모들의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이 30대가 12명(55%), 40대가 10명(44%)이며, 어머니는 30대가 17명(77%), 40대가 4명(14%)으로 30대가 가장 많다. 이 외에 사랑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외동으로 둔 가정은 13가정(59%)이고, 첫째는 7가정(27%), 둘째는 3가정(13%), 형제를 동시에 보내는 가정은 1가정(5%)이다. 또한 22학년에 신규 입소한 가정이 8가정(36%)이고, 1년 이상 이용이 9가정(42%), 2년 이상 2가정(9%), 3년 이상 2가정(9%), 5년 이상 2가정(9%)이며, 이 중에서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이용한 경우는 이미 졸업한 첫째 자녀의 이용 기간이 포함된 경우이다. 사랑어린이집 씨앗반, 새싹반, 꽃잎반 부모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각각 표 4, 표 5, 표 6과 같다.

<표 4> 씨앗반 부모들의 일반적 배경

번호	영유아 이름	부 연령	모 연령	사랑어린이집 이용 연한
1	나지연	40대	30대	1년
2	문나은	40대	40대	신규
3	현재민	30대	30대	신규
4	우준수	30대	30대	신규
5	오정민	30대	30대	신규
6	민재빈	30대	30대	신규
7	윤찬민	30대	30대	신규
8	강시은	30대	30대	신규

\* 22년 3월 1일 기준

<표 5> 새싹반 부모들의 일반적 배경

번호	영유아명	부 연령	모 연령	사랑어린이집 이용 연한
1	윤신지	40대	30대	1년
2	김남호	30대	30대	1년
3	나해인	30대	30대	1년
4	허이진	30대	30대	1년
5	현서연	30대	30대	5년
6	유영찬	40대	30대	5년
7	강지민	40대	30대	1년
8	안수인	40대	30대	신규

\* 22년 3월 1일 기준

<표 6> 꽃잎반 부모들의 일반적 배경

번호	영유아명	부 연령	모 연령	사랑어린이집 이용 연한
1	박윤수	30대	30대	1년
2	민현서	30대	30대	1년
3	유승현	40대	40대	2년
4	민아현	30대	30대	3년
5	우지수	30대	30대	1년
6	정서영	40대	40대	3년
7	오연수	40대	40대	3년

\* 22년 3월 1기준

### 3) 사랑어린이집 영유아들

사랑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은 22학년에 신규 입소한 영유아 8명(35%)을 포함하여 총 23명이다. 연령별 현황은 만 1세 8명, 만 2세 8명, 만 3세 5명, 만 4세 2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3명의 전체 영유아 중에서 영아는 16명(70%)이고, 유아는 7명(30%)으로 영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전체 영유아 중 11명이 남아(52%)이고 12명(48%)이 여아로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사랑어린이집 씨앗반, 새싹반, 꽃잎반 영유아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7, 표 8, 표 9와 같다.

<표 7> 씨앗반 영아들의 일반적 배경

번호	영유아명	연령	월령(개월)	형제 순서	재원 기간
1	나지연	1세	25	외동	2년차
2	문나은	1세	23	외동	신규
3	현재민	1세	22	외동	신규
4	우준수	1세	19	2명중 둘째	신규
5	오정민	1세	23	외동	신규
6	민재빈	1세	16	외동	신규
7	윤찬민	1세	15	외동	신규
8	강시은	1세	15	외동	신규

\* 22년 3월 1기준

<표 8> 새싹반 영아들의 일반적 배경

번호	영유아명	연령	월령(개월)	형제 순서	재원 기간
1	윤신지	2세	36	2명중 첫째	2년차
2	김남호	2세	36	외동	2년차
3	나해인	2세	34	외동	2년차
4	허이진	2세	33	2명중 둘째	2년차
5	현서연	2세	32	2명중 첫째	신규
6	유영찬	2세	31	2명중 둘째	2년차
7	강지민	2세	29	외동	2년차
8	안수인	2세	27	외동	신규

\* 22년 3월 1기준

<표 9> 꽃잎반 유아들의 일반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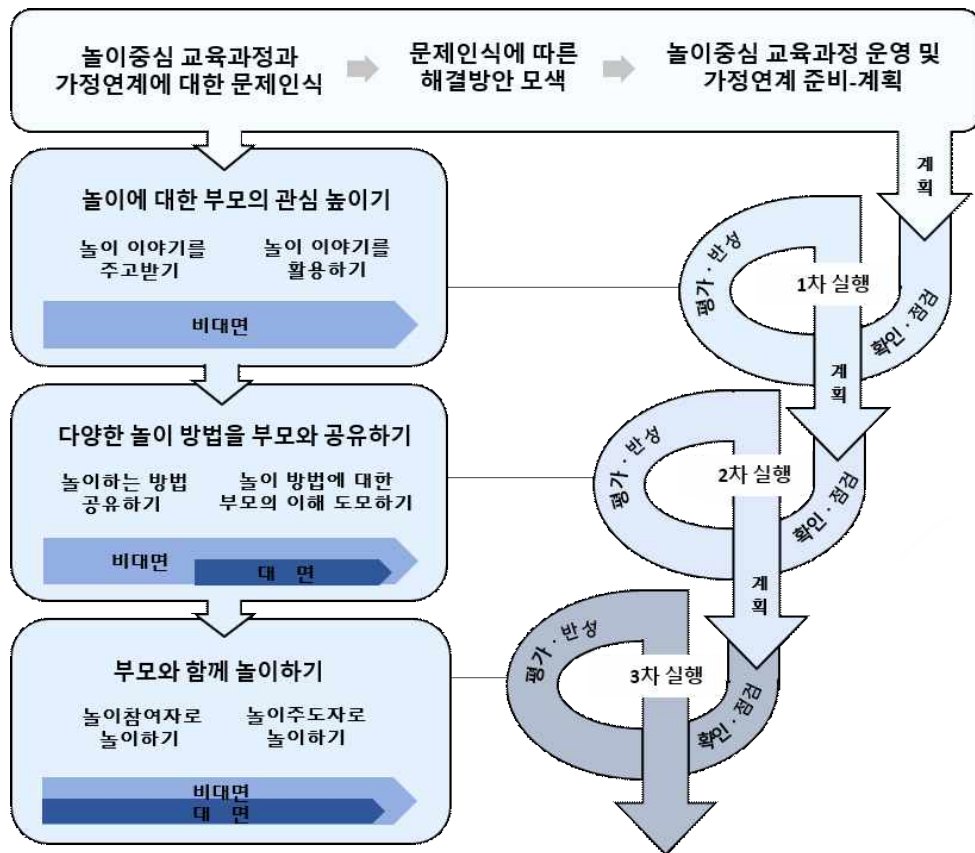
번호	영유아명	연령	월령(개월)	형제 순서	재원 기간
1	박윤수	3세	48	2명중 첫째	2년차
2	김현서	3세	47	외동	2년차
3	유승현	3세	46	외동	2년차
4	민아현	3세	43	외동	3년차
5	우지수	3세	40	2명중 첫째	2년차
6	정서영	4세	52	외동	4년차
7	오연수	4세	50	2명중 첫째	4년차

\* 22년 3월 1기준

## 5.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행은 Kemmis와 McTaggart(1988)의 나선형 모형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연구에 적용한 나선형 모형은 Lewin(1952)이 고안한 계획-실행-검토의 주기적인 반복 과정(Mills, 2003/2005)을 Kemmis와 McTaggart(1988)이 ‘계획-실행-관찰-반성’의 나선형 모형으로 개선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emmis와 McTaggart(1988)이 제안한 나선형 순환과정의 실행연구 모형을 참고하였고 ‘계획→실행→확인·점검→평가·반성’의 과정으로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절차

### 1) 사랑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방안

2021학년 2학기에 연구자는 정기 부모면담 결과를 공유하는 교사회의에서 대부분의 부모가 어린이집 교육 활동에 대해 아쉬워하며 자녀들의 교육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들은 부모들이 코로나로 인해 교육 활동이 단조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적 자극의 부족과 교육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염려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아반 부모 중 일부는 어린이집 교육 외의 다른 사교육 활동을 시작

했거나 고려하는 것 같다고도 하였다. 교사들이 보고한 부모들의 상황은 연구자 또한 부모들과의 면담과 여러 차례의 대화 과정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랑어린이집의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 부모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어린이집의 영유아 중심·놀이중심 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아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들은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놀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부모들은 자녀들과 놀이하는 방법과 놀이 성향, 자녀가 하는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고 놀이를 통한 교육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였다. 즉,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가정연계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놀이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개정된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었다.

연구자는 부모들의 사랑어린이집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이 부족해진 원인이 가정연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랑어린이집은 개원 이후부터 영유아들의 놀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해왔고 이에 대한 부모들의 동의와 협조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과 연계해왔다. 가정연계는 반 또는 어린이집 영유아 전체 부모가 대그룹으로 참여하는 부모참여수업 외에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영유아들의 일과에 참여하는 부모일일 참여활동을 기본으로 한 다음 이를 다양한 내용으로 변형하여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는 대면 가정연계는 코로나로 장기간 진행이 중단되었다. 사랑어린이집은 코로나 시기에 장기간 가정교육이 진행되었고 어린이집은 이 시기에 비대면 가정연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대면 가정연계로 영유아 중심 그리고 놀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제한이 많았고 이로 인해 놀이의 활성화는 물론 놀이를 통한 교육의 실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가정연계도 한계

에 봉착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사랑어린이집의 영유아 놀이중심 교육의 적극적인 실천과 이에 대한 부모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들의 놀이를 우선하고 영유아들의 놀이를 부모들의 적극적인 가정연계를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부모들이 놀이를 이해하고 영유아들의 놀이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가정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동안의 가정연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실행 방법을 모색하였다.

연구자는 2021년 11월부터 사랑어린이집의 놀이를 통한 교육 활동과 가정연계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회의, 교사들의 부모면담 결과 분석, 교사 개별면담, 가정연계 부모평가서 분석 및 학기말 부모 만족도 조사, 부모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랑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운영과 가정연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연계가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부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사랑어린이집에서 진행해 온 가정연계에서 부모의 역할이 참여자와 참관자로 한정되면서 부모들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참여자가 되었다. 사랑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영유아와 함께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일과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가정연계를 진행해왔었다. 그러나 가정연계가 진행되면서 부모들은 자녀와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함께 보내는 것에 의미를 더 두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로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사랑어린이집의 가정연계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환경에 대해 안심하고 일과의 흐름을 경험하는 기회는 되었지만 부모들이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실행되었던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장기화 되면서 부모들에게 개정된 교육과

정에서 강조하는 영유아 놀이의 중요성에 안내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놀이의 활성화는 물론 놀이중심 교육의 실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 되었다.

어머니들이 면담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외부 활동 언제 하나는 것이었어요. 다른 곳은 시작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더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심심해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학습도 못 나가고 외부 활동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정작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오면) 바쁘게 놀이하다 가거든요. (중략) 부모님들이 외부 활동에 대한 불만으로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집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저는 대면 가정연계와 비대면 가정연계를 잘 활용해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교육에 대해 자세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D교사 면담, 2022. 2. 1.)

다른 엄마들이 이제 5살이 되면 교육을 하는 곳으로 아이를 보내는 게 좋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좀 더 학습을 많이 하는 곳으로요. 여기(사랑어린이집)는 선생님들도 좋고 아이들 음식도 잘 나오고 위생적이고 다른 것은 좋은데 그래도 교육을 위해서는 옮기는 것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실은 걱정이예요.

(원장-승현 어머니 면담, 2022. 4. 1.)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교육 활동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회사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더 강화된 운영방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이러한 결과로 영유아들의 교육적 자극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어린이집에 입소한 부모들은 사랑어린이집에서 대면 가정연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과 놀이에 대해 알기 어려웠으며 이는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으로 이어졌다. 한편, 부모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 부족은 학습지 선택, 타 교육 기관 입소 등의 학습적 환경 조성에 대한 개별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가정연계가 일회성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부모들이 놀이와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속해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사랑어린이집의 가정연계는 부모들이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참여 시간이나 참여 인원 그리고 참여하는 방식을 달리하며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부모들은 각각의 활동에 1~2회 정도로만 참여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가정연계는 일회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각각의 가정연계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교육과정과 연계되기 어려웠고 각 활동 간의 연관성도 부족하였다. 가정연계의 기회가 한정되면서 부모들은 놀이의 중요성과 놀이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셋째, 가정연계가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방식으로만 이루어졌고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되었다. 가정연계가 대면과 비대면의 한 가지 방식으로만 진행되면서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대면 가정연계는 부모들의 참여 횟수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 비대면 가정연계도 부모들의 참여 방법과 참여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대면 또는 비대면 가정연계의 한 가지 방식만의 진행은 부모들이 놀이에 대한 관심과 이를 통한 놀이 활성화에 이르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남호의 경우 비대면 부모참여수업이 있을 때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안 좋아해서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남호의 성향이고 평소에 놀이할 때는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데 가정에서는 남호가 혼자니까 잘 드러나지 않고 엄마는 그걸 모르시니까 더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중략) 남호가 코로나 시작할 때 어린이집에 입소해서 남호어머니는 이전과 같이 어린이집에 오셔서 하는 부모참여를 못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가 수업하는 것을 줌(ZOOM)으로만 보셔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처럼 부모님들이 직접 어린이집에 들어오셔서 아이들 활동 보시는 것이 아이에 대해 이해하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수업을 이해하는 데 더 나왔던 것 같아요.

(A교사 면담, 2022. 1. 26.)

사랑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2019 개정 누리과정 실천을 위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가정연계를 진행하여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비대면 가정연계는 물리적 거리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면에서 효율적이었으나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 후, 연구자와 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과 가정연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영유아들의 놀이가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중지를 모았다.

사랑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가정연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첫째, 부모들이 영유아의 놀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랑어린이집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놀이의 중요성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놀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놀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가정연계가 필요하였다. 둘째, 놀이 활성화를 위한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가정연계를 일상화하는 것이다. 가정연계가 특별한 날의 일회성 행사처럼 진행된 것에서 부모들이 원할 때 자유로운 참여와 상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사랑어린이집의 가정연계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참여의 효율성과 부모들의 놀이 참여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2021학년도 학기 말의 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들은 코로나 이전에 했던 대면 가정연계의 재개를 원하면서 비대면 가정연계의 효율성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함께 두 방식의 병행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대면 가정연계의 재개를 우선하고자 하였으나 2022학년도 신학기 초에 발생한 코로나

의 재확산은 대면 가정연계의 재개 시점을 가늠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비대면의 우선 적용과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는 가정연계가 필요하였다.

## 2) 문제상황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모색

연구자와 교사들은 첫째, 가정연계가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부모가 이해할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 둘째, 부모들이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속해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점, 셋째, 가정연계 방법이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방식으로만 이루어졌고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효율성과 효과성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했다.

### (1) 1차 실행: 놀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 높이기

1차 실행에서는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였다.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놀이 이야기를 다시 영유아들의 놀이에 활용하였다. 놀이 이야기는 영유아들의 놀이에 대한 사진, 영상 등의 기록으로 놀이상황과 영유아의 반응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것이다. 1차 실행은 스마트 알립장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실행방안 놀이 이야기 주고받기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의 놀이 사진과 영상을 설명과 함께 스마트 알립장으로 보내고 이를 다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과 함께 살펴보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두 번째 실행방안 놀이 이야기 활용하기는 첫 번째 실행방안의 ‘놀이 이야기’를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로 연계하여 영유아들의 놀이를 활성화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놀이 이야기를 영유아들의 놀이와 관련된 놀이 키트로 구성하고 가정으로 배부하였다. 연계된 영유아들의 놀이 이야기와 놀이 키트에 대한 안내 및 놀이 방법을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다시 가정으로 전송하였다. 가정에서는 놀이 키트를 활용하여 영유아들과 함께 놀이한 후 어린이집으로 놀이 이야기를 전송하는 순환·반복적인 과정을 가졌다. 1차 실행은 2022년 2월 17일부터 2022년 6월 2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2022년 6월 28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실행과정 중의 평가내용과 종합적인 결과에 대한 교사 의견 등을 정리하였다.

## (2) 2차 실행: 다양한 놀이 방법을 부모와 공유하기

2차 실행은 부모들과 함께 놀이의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1차 실행에서 형성된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확장하여 부모들과 함께 영유아들의 놀이 활성화 과정을 살펴보고 영유아 중심의 놀이가 진행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부모들과 영유아들이 놀이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둘째,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방안을 실행하였다.

첫째, ‘놀이 방법 공유’를 위해 영유아들의 놀이가 영유아들의 흥미와 가정에서의 놀이 경험을 통해 다양하게 진행되고 변형되며 확대되는 모습을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부모들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영유아들의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적인 자극과 교사들의 놀이 지원 방법을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부모들과 공유하였다. 둘째, ‘놀이 방법에 대한 이해 도모하기’에서는 대면 참여를 부분적으로 시작하였다. 놀이 방법에 대한 대면 부모교육을 실행하였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놀이 방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2차 실행은 2022년 7월 4일부터 2022년 10월 25

일까지 진행하였으며,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1월 4일까지 2차 실행 중에 이루어진 각 실행에 대한 평가내용과 함께 전체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3) 3차 실행: 부모와 함께 놀이하기

3차 실행은 부모들과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함께 놀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코로나가 진정되며 대면 가정연계의 확대가 가능해진 시기에 이루어진 3차 실행의 첫 번째 방안은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가정연계에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여 놀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부모가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 방법을 자녀와 함께 준비하여 어린이집에서 함께 놀이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부모와 영유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로, 두 번째 방안은 개별 또는 소그룹이 참여하는 놀이로 진행하였다. 전체와 개별 및 소그룹 대면 참여 놀이의 사전과 사후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스마트 알림장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하였다. 3차 실행은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전체 연구의 과정을 연구 개요와 연구일정 및 절차로 나누어 그림 3 그리고 표 10과 같이 정리하였다.

실행연구의  
목적

사랑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가정연계의 방안 모색과 실행

문제점

가정연계가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부모가 이해할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함  
→ 부모들이 어린이집 일과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참여함

가정연계가 부모들이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  
→ 일회성 진행으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갖기 어려움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방식만으로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방식만으로 진행되어 왔음  
→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고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함

개선방안

부모들이 놀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 개선  
→ 부모들이 놀이에 관심을 갖고  
놀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정연계

놀이 활성화를 위한 부모들의  
적극적·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가정연계의 일상화  
→ 상시 참여와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가정연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는  
가정연계 적용  
→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와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가정연계

방법

비대면-대면 병행 가정연계

[그림 3] 연구의 개요

<표 10> 연구일정 및 실행절차

구분	기간	연구내용
실행 준비 단계	2021.11.04 ~12.24	<b>영유아 놀이중심 교육 현황 파악 및 평가 및 문제점 인식</b> · 코로나로 영유아 놀이 및 놀이를 통한 교육의 제한 · 기존 가정연계와 코로나 상황의 비대면 가정연계의 한계 파악 및 문제점 인식, 대면 가정연계의 재개와 활성화 필요성 인식 · 부모면담: 부모들의 놀이 및 놀이를 통한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에 대한 부모 요구 확인
	2022.01.14 ~02.17	<b>놀이 및 놀이를 통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사준비</b> · 교사연수(1차) 및 평가회의, 놀이 및 놀이중심 교육관련 문헌조사
1차 실행	2022.02.17 ~6.24	<b>놀이 활성화를 위한 가정연계 방안 모색</b> · 교사연수(2차, 심화), 교사회의, 교사 개별 면담 및 연구동의 획득
	2022.06.28 ~07.01	<b>놀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 높이기</b> · 놀이 이야기를 주고받기 (비대면) - 어린이집의 놀이 이야기를 가정으로 보내기 - 가정의 주말 놀이 이야기를 어린이집에서 받아보기 · 놀이 이야기를 활용하기 (비대면) - 놀이 이야기로 어린이집과 가정의 놀이 연계하기 - 놀이 이야기를 활용한 놀이 키트 배부하기
1차 실행평가	2022.06.28 ~07.01	- 1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2차 실행 방안 모색
2차 실행	2022.07.04 ~10.25	<b>다양한 놀이 방법을 부모와 공유하기</b> · 놀이하는 방법 공유하기 (비대면) - 확장되는 영유아의 놀이를 부모와 공유하기 -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배움 사례 공유하기 ·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의 이해 도모하기 (비대면+대면) - 부모교육으로 놀이 방법에 대한 이해 도모하기 - 어린이집에서의 놀이 참여를 통한 부모의 놀이 경험 도모하기
	2차 실행평가	2022.10.26 ~11.04
3차 실행	2022.11.07 ~02.03	<b>부모와 함께 놀이하기</b> · 놀이참여자로 놀이하기 (비대면+대면) - 놀이 준비와 놀이 마무리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기 -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놀이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놀이하기 · 놀이주도자로 놀이하기 (비대면+대면) -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 방법을 찾고 놀이를 계획하기 - 부모가 준비한 놀이에 함께 참여하기
	3차 실행평가	2023.02.03~

## 6. 자료수집과 분석

### 1) 자료수집

연구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는 영유아, 부모, 교사 관련 자료들과 기타 자료들이다. 영유아와 관련된 자료들은 교사들의 일일보육계획안에 기록된 놀이기록, 영유아 개별 놀이관찰 기록, 스마트 알림장의 내용과 스마트 알림장으로 전송된 동영상 및 사진, 놀이상황 녹화자료, 연구자의 비정기적 참여 관찰 동영상과 대화 녹음 전사본, 대화 기록 등이다. 부모 관련 수집 자료는 연구자와 교사가 진행한 부모면담 기록과 면담 녹음 자료, 문서기록 자료, 부모들의 스마트 알림장 내용, 가정연계 동영상 자료, 부모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자료, 부모간담회 자료,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 대화 기록 등이다. 마지막으로 교사 관련 자료는 교사 회의록, 연구자와 교사면담 자료 및 녹음 전사본, 교사 저널, 대화 기록 등이다. 이 외에 연구자 약기 노트, 연구자 저널, 화상회의 프로그램 녹화 기록, 이메일, 가정통신문, 기타 외부 자문자료 등이 수집되었다.

정리하자면 연구를 위한 자료는 연구 기간 동안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비대면과 대면 가정연계와 관련한 영유아, 교사, 부모들과 관련한 대부분의 자료이다. 비대면 방식의 가정연계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녹화와 녹음 등의 자료보관과 분석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연구를 위해 1차 실행과 2차 실행 그리고 3차 실행 기간에 실시된 가정연계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고, 교사들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록 작성과 함께 회의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으며 가정연계 활동 실행 과정에서 교사 그리고 부모와 면담을 실행하였다. 면담 횟수는 사전 면담을

포함하여 부모는 3회, 교사는 전체 교사 3회 외에 개별 면담을 수시로 하였다. 면담한 내용은 기록과 함께 교사와 부모들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대부분 녹음하였다. 이 외에 가정연계와 관련된 부모참여수업 계획안과 보고서, 교사와 부모의 부모일일 참여활동 평가서 등을 수집하였으며 실행기간 동안 부모들이 작성한 스마트 알림장과 부모참여 활동을 마친 직후의 평가서 등을 수집하였다.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 대상에 따른 수집 자료와 수집 방법

영유아	부모	교사	기타
놀이 관찰 기록 (40장)	연구자-부모 면담 녹음 전사본 (538장)	일일보육계획안	연구자 약기 노트
개별 놀이 기록 (391장)	부모-교사 면담 보고서 (47장)	주간보육계획안 (147건)	연구자 저널 (30장)
가정연계 놀이 동영상	부모교육 모바일 평가 기록	교사 회의록 (466장)	화상회의 프로그램 녹화 기록
가정연계 놀이 사진	만족도 조사 결과	교사 저널 (10장)	외부 기관 자문 자료
놀이 동영상 및 대화 녹음 자료 (115분)	스마트 알림장 기록 (673건)	연구자-교사 면담 전사본 (186장)	현장학습 계획안 및 결과보고
대화 기록 자료	부모참여활동 동영상 (11건)	놀이기록 사진	부모참여수업 계획안 및 결과 보고서
	부모참여 평가서	놀이기록 동영상	부모교육 및 행사계획안 및 결과 보고서
	부모간담회 및 오리엔테이션 자료	대화 기록 자료	이메일
	등·하원 시간 연구자와 의 대화 기록 자료		가정통신문 (47장)

## 2)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정리하기, 메모하기, 개방코딩하기, 범주화하기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Bogdan & Biklen, 2007/2011). 문서화 과정이 필요한 대화 자료, 녹음 자료, 녹화 자료 등은 전사와 약기 기록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였고, 스마트 알림장의 기록과 교사들의 일일보육계획안과 관찰기록은 대화록 형태로 약기화 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즉시 전사 등의 방법으로 문서화하고 자료화하였다. 전사는 음성-문서 변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1차 전사, 반복·심층 확인의 2차 전사 과정으로 진행하였고, 대부분 연구자가 직접 자료화하였다. 자료화 과정에서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수정하며 분석적 의미를 더하였고 분석 중에 생성한 아이디어도 자료화하였다(김영천, 2013). 전 단계의 실행을 종료한 후 연구문제 1번에 대한 실행과정은 수집된 자료를 모두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재정리 및 분석적 태도로 반복 검토한 후,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로 구성하여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 결과만을 수집하지 않고 부정적 결과도 함께 수집하여 다른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로 정리하였다. 연구문제 2번과 관련된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의 변화를 보기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를 개방코딩 방법 귀납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김영천(2013)의 세그멘팅(segmenting)과 초기코딩 단계, 반복해서 읽기, 연구자의 통찰을 얻기 위한 자료 읽기의 반복 과정으로 자료의 범주화와 재범주화, 범주의 수정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와 자료 분석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에 함께 참여하여 실행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실행연구 과목을 수강한 교사 1명과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과정을 거쳤다. 구성원 검토와 함께 유아교육 전문가 1인에 의한 동료 검토(peer debriefing)로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과정을 가졌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병행 가정연계의 실행과정

사랑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가정연계 실행방안으로 1차에서는 놀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 높이기, 2차는 다양한 놀이 방법 부모들과 공유하기, 3차는 부모와 함께 놀이하기를 실행하였다.

가정연계의 1차 실행에서는 놀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들의 놀이 이야기를 스마트 알림장을 통하여 부모와 주고받았다. 2차 실행에서는 다양한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모교육과 대면 참여를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3차 실행에서는 부모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효율적인 가정연계를 위하여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였으며 1차 실행은 비대면 위주로 진행되었고 2차에서는 대면 참여를 시작하여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했다. 3차 실행은 대면 참여를 확대하고 비대면을 연계하였다. 비대면 매체는 스마트 알림장을 주로 활용하였고 이외에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이메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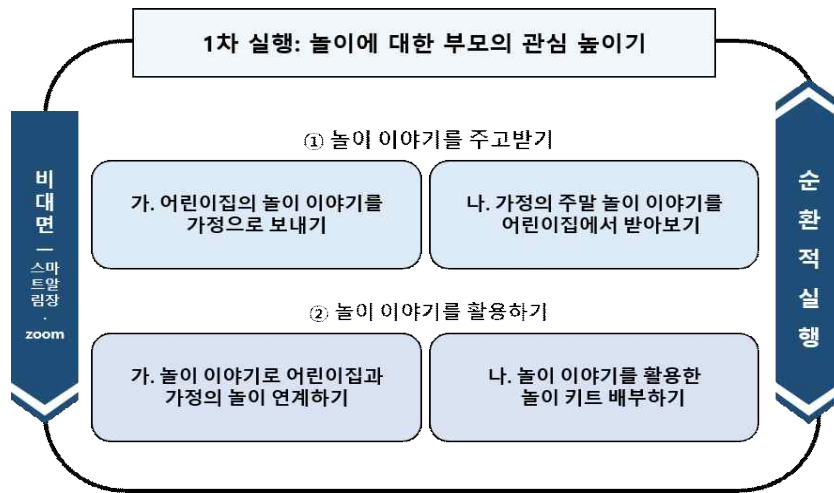
1차에서 3차까지의 실행단계는 교육 활동의 유기적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각각의 실행단계는 물론 한 단계의 실행을 진행하면서도 각 방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고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앞 단계의 가정연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선점이 모색되었으며 개선점을 반영한 가정연계가 동시에 적용되도록 하는 순환과 반복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거쳤다.

## 1) 1차 실행: 놀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 높이기

### (1) 1차 실행방안 실시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높이는 1차 실행방안을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놀이 이야기를 주고받기와 놀이 이야기를 활용하기로 선정하였다. 놀이 이야기 주기 받기와 놀이 이야기 활용하기는 영유아들의 놀이 사진과 영상 그리고 놀이에 대한 설명을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부모와 주고받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1차 실행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위주로 진행하였다. 1차 실행에서 선택한 비대면 방식은 스마트 알림장으로 부모들의 참여가 용이하고 부모들이 사용방법에 익숙한 점과 비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스마트 알림장 외의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1차 실행은 2022년 2월 17일부터 2022년 6월 24일까지 교사와 부모 그리고 영유아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부모들에게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부모교육, 부모면담을 통해 놀이의 중요성 및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개념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랑어린이집에서 준비하고 계획한 가정연계의 취지와 목적 이와 함께 비대면 가정연계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부모들의 참여를 촉진하였다. 1차에서 진행한 가정연계의 실행 방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1차 실행 방법

### ① 놀이 이야기를 주고받기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을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하여 놀이 이야기를 주고받기로 선정하였다. 놀이 이야기는 놀이 사례와 같은 의미로 영유아들의 놀이에 대한 사진, 영상 등의 기록이며 놀이 상황과 영유아의 반응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것이다. 놀이 이야기 주고받기는 가정과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놀이를 공유하기 위해 모색한 비대면 가정연계 방법이었다. 연구자는 코로나로 어린이집 내부에 부모들의 출입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들과 자녀의 놀이를 쉽고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대면 방식인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놀이 이야기 주고받기는 어린이집의 놀이 이야기를 가정으로 보내기와 가정의 주말 놀이 이야기를 어린이집에서 받아보기로 구분하여 실행했다

#### 가. 어린이집의 놀이 이야기를 가정으로 보내기

‘어린이집에서의 놀이 이야기를 가정으로 보내기’는 어린이집에서 이루

어지는 영유아들의 놀이를 교사들이 지원하는 방법과 영유아들의 개별적인 놀이들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들의 놀이 사진이나 동영상은 놀이상황 그리고 영유아의 반응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정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오늘은 동물 인형과 시트지를 이용해 시트지에 붙어있는 동물들을 구해주는 놀이를 했어요. 투명 시트지에 재료를 붙이는 것보다는 떼는 걸 좋아하는 정민이는 벽에 있는 동물들을 모두 떼어 열심히 구해주었습니다. 요즘 정민이는 ‘아기 돼지 삼형제’ 노래에 빠져있어요! (중략) 평소에는 노래를 불러주다가 오늘은 음원으로 들어주었더니 아주 신나 하며 음악에 맞춰 점프도 하고 몸도 흔들며 춤을 추더라고요. 어제 찍었던 정민이 놀이 동영상도 함께 보내드려요.

(씨앗반 스마트 알림장, 2022. 4. 8.)

위 사례는 교사가 정민이의 놀이기록을 토대로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놀이 이야기’를 부모에게 스마트 알림장으로 전송한 내용이다. 연구자가 진행한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교육에서의 모바일 질문과 평가, 그리고 개별면담에서 부모들이 공통으로 문의한 내용이 자녀들의 놀이 행동이나 놀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하고 싶지만,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정민이의 부모님도 정민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교사는 정민이의 발달 단계에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 떼는 것이 쉽기 때문에 정민이가 스티커를 붙이는 놀이보다는 떼어 내는 놀이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부모에게 사진과 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는 정민이의 사례와 같이 ‘어린이집에서의 놀이 이야기’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의 영유아 놀이 관찰 기록을 활용하여 부모들과 영유아들의 놀이상황과 놀이에서의 반응을 스마트

알림장으로 공유하며 부모들이 자녀의 놀이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다음은 어린이집에서 가정으로 보낸 놀이 이야기에 대한 다른 사례이다.

교사: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바깥 놀이를 나가지 않고 교실에서 신나는 두부 탐색 놀이를 하였습니다. 나은이가 두부를 보고 “이거 뭐야?”라고 물어보아서 두부라고 알려주니 “두부야~?”라고 말하며 두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두부를 맛보자 나은이와 함께 두부를 먹어 보았습니다. 케이크 칼을 사용해서 두부를 썰어보기도 하고 힘을 주어 만져서 으깨어 보기도 했어요!

나은 어머니: 두부 놀이, 춤추며 노래하기 등 즐거워 보이네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선생님들 덕분에 나은이가 말할 수 있는 단어도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씨앗반 교사-나은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5. 18.)

나은이 어머니는 연구자와의 상담에서 나은이가 밖으로 나가서 노는 것만 좋아하여 실외 놀이를 자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외출이 쉽지 않는 말이 많기도 하였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나은이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실내 놀이는 좋아하지 않아서 나은이와 놀이할 때 힘들기도 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례와 같은 나은이의 놀이 이야기들이 가정으로 지속해서 전송되면서 나은이 어머니는 나은이의 또 다른 놀이 성향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는 1차 실행 중에 실시한 부모교육에서 수집한 부모들의 문의 내용과 부모면담 결과를 교사들과 공유하였다. 교사들은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궁금함을 고려하여 놀이 이야기를 구성하였고 놀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여러 장의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가정으로 전송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보낸 놀이 이야기를 가정에서도 연계하도록 안내하였다.

#### 나. 가정의 주말 놀이 이야기를 어린이집에서 받아보기

가정의 주말 놀이 이야기는 부모교육이 끝난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교사들이 비대면 가정연계의 시작을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안내한 이후 첫 주말이 지난 3월 28일 월요일부터 어린이집으로 전송되기 시작하였다. 가정의 ‘주말 놀이 이야기’는 교사들과 비대면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방안이었다. 교사들은 가정과의 지속적인 연계방법으로 매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주말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교사들의 제안에 따라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주말에 했던 놀이를 월요일에 스마트 알림장으로 보내 달라고 안내하였다. 또한 주말 놀이이야기의 형식을 영유아들과 했던 놀이에 대한 영상, 사진 외에 놀이와 관련한 간단한 이야기, 영아들의 경우 놀이에 대한 반응 등으로 안내하여 부모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가정에서 보내온 주말 놀이 이야기에 대한 사례이다.

남호 어머니: 남호랑 토요일에는 딸기농장에 다녀왔어요. 딸기를 따고 먹고 야외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역시 아이들은 모래 놀이가 최고인지, 남호를 포함해서 또래 친구들 모두가 모래놀이터에 주저앉아서 다른 데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동물도 보고 뜰채로 미꾸라지도 잡아보고 레일 썰매도 타고 즐거웠답니다. 일요일엔 생애 첫 버스를 타보았어요. 가까운 거리지만 직접 카드 빼익 찍고 타고, 개나리꽃 매화꽃 보면서 봄기운도 느껴보고 돌아올 땐 지하철 (생애 두 번째) 타고 왔어요. 다음엔 기차를 타보고 싶다고 했어요.

교사: 친구들과 함께 남호의 주말 사진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더니, (남호가) 딸기를 따면서 먹을 수도 있었고 지하로만 다니는 보라색 지하철을 탔다며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신이 나서 이야기해주었어요!

(새싹반 교사-남호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4. 4.)

남호 어머니는 주말 동안 남호와 체험한 나들이 이야기를 스마트 알림장으로 보내주었고, 영상과 함께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별도로 편집해서

함께 보냈다. 남호의 주말 놀이 이야기 영상과 사진은 새싹반 영아들에게 공유되었고 어린이집에서의 물고기 낚는 놀이 외에 다양한 놀이의 시작이 되었다. 남호 어머니의 경우 놀이 이야기 주고받기와 관련한 스마트 알림장 이용이 3월 1건에서 4월 4건으로 증가했으며, 새싹반 전체 8가정은 3월 1건에서 4월 25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비대면 가정연계 놀이 이야기 주고받기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주말 놀이 이야기의 다른 사례이다.

지연 어머니: 금요일 하루 쉰 지연이는 긴 주말을 보냈어요. 좋아하는 레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색깔 공들도 가지고 놀았어요. 여전히 제일 좋아하는 숨바꼭질 술래잡기도 하고요. 주말 내내 날씨가 좋아서 꽃구경도 다녀왔습니다. ‘몇 개인지 세어 볼 거야!’ 하며 남아있는 간식이 몇 개인지 등 다섯까지는 세더라고요

교사: 지연이 주말 동안 정말 즐겁게 지냈네요. 지연이 표정이 너무 즐거워 보여요. 지연이가 이제 숫자도 센다니 너무 대단해요! 어린이집에서 지연이 사진을 다 같이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소중한 사진 감사드립니다.

(씨앗반 교사-지연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4. 11.)

지연이 어머니는 평소에도 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과 가정연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고 스마트 알림장도 꾸준히 작성해 왔었다. 주말 놀이 이야기 보내기가 시작되기 전의 스마트 알림장에는 지연이의 건강상태나 기분, 등·하원 시간 정보 등이 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가정연계가 시작된 이후에는 지연이와 엄마, 아빠가 함께 한 다양한 놀이의 사진과 영상, 이야기들을 어린이집에서 받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전송된 놀이 이야기들이 어린이집에서 공유되는 과정과 가정에서의 놀이를 토대로 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놀이들은 다시 ‘놀이 이야기 주고받기’로 가정에 전송되었다. 이러한 순환·반복의 과정을 통해 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고 확장되도록 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놀이 이야기를 주고받기에 과정에 대한 확인과 점검도 함께 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교사들과의 협의 내용이다.

연구자: 윤수 어머니랑 아버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교육 프로그램에 굉장히 만족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윤수 가정에서는 피드백(스마트 알림장 놀이 이야기)이 오고 있나요?

B교사: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연구자: 그런데 가정에서 오는 피드백이 우리가 계획하고 안내한 놀이에 대한 관심이나 놀이에 대한 이야기 등의 방향이나 방법과 맞나요?

B교사: 생각했던 그런 방향 맞아요. 윤수 부모님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사진을 보내주고 계세요. 어린이집에서 봄과 관련된 놀이를 할 때도 씨앗을 가정에서 심고 그 사진으로 가정에서의 놀이 이야기를 보내주시고 그다음 주에는 씨앗이 자란 사진하고 또 그걸 가지고 윤수랑 어떻게 이야기 나눴는지를 스마트 알림장으로 보내주시면서 설명도 길게 써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교사회의, 2022. 4. 19.)

교사들과의 회의를 통해 가정연계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전반적으로 협조적이며 어린이집에서 안내한 가정연계 방법에 따라 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보낸 놀이 이야기를 통해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 한 놀이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이를 다시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나타내었다. 또한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한 놀이를 가정에서도 함께 해보고 이를 다시 어린이집으로 보내면서 가정연계의 취지에 맞게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주말 놀이 이야기를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에 의한 높아진 결석률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② 놀이 이야기를 활용하기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1차 실행의 두 번째 방안은 놀

이 이야기를 활용하기이다. 놀이 이야기를 활용하기는 놀이 이야기 주고받기를 연장하거나 확장하여 실행한 것으로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첫째, 놀이 이야기로 어린이집과 가정의 놀이 연계하기, 둘째, 놀이 이야기를 활용한 놀이 키트 배부하기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 가. 놀이 이야기로 어린이집과 가정의 놀이 연계하기

‘놀이 이야기로 어린이집과 가정의 놀이 연계하기’는 어린이집과 가정의 놀이 이야기 주고받기에 대한 확장 방안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놀이 이야기 주고받기를 통해 영유아들의 놀이가 활성화 되는 과정을 부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부모들이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어린이집에 보낸 주말의 일과가 ‘놀이 이야기’가 되고 이 놀이 이야기가 어린이집과 가정의 놀이로 연계되거나 놀이와 놀이 확장의 소재로 활용되는 과정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가정에서 했던 주말 놀이 이야기를 영아반의 놀이와 연계한 사례이다.

지연 어머니: 주말 동안 날씨가 좋아서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이젠 혼자 앉아서 그네도 타더라고요. 집에서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도 하고 촉감 놀이도 했어요. 그리고 곰 세 마리 노래를 기타 치며 부르는 걸 좋아 하더라고요. 제법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많아졌네요. (곰 세 마리 노래 부르는 지연이 영상)

교사: 지연이 보내주신 사진 살펴보며 지연이 그네 안 무섭냐고 물어보니까 “지연이는 그네 안 무서워!”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선생님들 앞에서 곰 세 마리 노래도 한 번 더 불러줬답니다.

지연 어머니: 좋고 싫음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싫다던 곰 세 마리 노래도 잘 부르고...(자기의 모습을 보고) 공주 됐다고 좋아하는 걸 보면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것 같네요.

(씨앗반 교사-지연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4. 4.)

위 사례를 통해 영아들의 주말 이야기가 어린이집에서 대화의 소재가 되고 짧은 대화 내용으로도 영아들의 발달에 대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아가 혼자 그네를 탈 수 있게 된 내용으로 교사와 영아가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을 보며 부모들은 가정에서의 주말 이야기가 어린이집에서 교사들과 영아들의 대화와 상호작용의 소재가 되고 이를 통해 영아들의 발달 변화가 확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아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놀이 이야기가 어린이집에서 더 넓게 확장되거나 장기적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놀이의 확장이 유아들의 생각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다음은 유아들의 놀이가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다시 가정으로 연계된 사례이다.

아현이 주말 사진 보내드려요. 아현이는 토요일에 갑자기 캠핑 가고 싶다고 해서 근처에 있는 글램핑장에 가서 기분만 좀 내주려고 바비큐를 해 먹고 공놀이도 하고 주워 식물에 주전자로 물도 주고 돌아다니고 비눗방울 놀이도 하고 큰 돌을 알이라고 물도 주고 돌려줬답니다.

(꽃잎반 아현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4. 4.)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산책을 하려고 했는데 아현이와 꽃잎반 친구들이 캠핑 놀이에 푹 빠져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교실에서 캠핑 놀이를 했답니다.



(꽃잎반 교사 스마트 알림장, 2022. 4. 11.)

아현이의 캠핑을 대체한 글램핑장의 주말 놀이 이야기에 꽃잎반 아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곧이어 꽃잎반 전체 놀이로 확장되었다. 교사들은 연구자도 기억하지 못한 텐트를 교재실에서 찾아와 교실 안에 설치해 주었고 유아들은 다양한 소품을 사용하여 캠핑장 꾸미기에 참여하였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원하는 시간에 캠핑 놀이를 지속하도록 하여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사례는 꽃잎반의 캠핑 놀이가 확장되고 있는 사례이다.

교사: 오늘 지수는 멋진 캠핑장으로 변신한 꽃잎반에서 친구들과 함께 캠핑놀이를 했답니다! 캠핑할 때 쓰는 모자를 쓰고, 컵에 음식을 담아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주며 신나는 캠핑놀이를 했어요. 텐트 안을 비밀의 세계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누워 쉬는 공간으로 만들었답니다.

오늘 승현이는 멋진 캠핑장으로 변신한 꽃잎반에서 재미난 캠핑 놀이를 했답니다!

윤수는 오늘 새로운 꽃잎 캠핑장에서 놀이를 해보았어요. 장작불에 불을 지피기도 하고, “익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배가 아프지”라고 말하며 고기를 불에 잘 익혀 먹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서영이와 꽃잎반 친구들이 오늘은 캠핑장에 온 것처럼 불을 지피보기도 했는데요. 서영이가 텐트 안에 쭉 들어가며 “나는 가지를 썰어야지~”하며 누워서 가지를 썬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서영이가 종이로 만든 장작을 옮길 때는 “정말~캠핑하러 온 것 같아~”라고 이야기 하며 즐거운 꽃잎 캠핑장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연수 어머니: 이번 주는 계속 캠핑놀이 삼매경이네요. 연수는 아직 캠핑을 해본 적이 없는데 동생이 좀 크면 다 같이 재밌게 캠핑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승현 어머니: 우와 캠핑장이 정말 실제 캠핑장처럼 너무 멋지네요. 친구들과 하고 재밌게 같이 그림도 그리고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지수 어머니: 지수가 캠핑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계속 놀이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말에 진짜 캠핑은 아니어도 느낌만 내고 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꽃잎반 교사-부모들 스마트 알림장, 2022. 4. 12.)

유아들의 지속되는 캠핑놀이를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를 위해 교실 안의 교구장을 일부 치우기 위해 연구자에게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회사의 협조를 구해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꽃잎반의 교구장을 옮겨주었다. 교구장 이동으로 넓어진 교실에서 유아들은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놀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아현이의 캠핑놀이 이야기는 지수네 집의 주말 놀이 계획으로 이어지고 5월 어린이날까지 지속되어 가정에 보내지는 캠핑요리 놀이 키트까지 연계되었다.

주말 놀이 이야기가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로 지속되고 다양한 놀이의 연결에 활용되는 사례는 영아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2세반 새싹반의 사례이다.

영찬 어머니: 영찬이는 주말에 외할머니와 서해안에 가서 형이랑 같이 갯벌체험을 하였습니다. 꽃게와 고동도 많이 잡고 신기해하였어요.

교사 :영찬이의 주말 보낸 이야기 함께 보았어요! 꽃게 잡은 모습 보고 교실에서도 낚시놀이를 했어요. “할머니랑 같이 잡으러 갔다 왔어”라고 말하며 따뜻한 물에 떠다니는 물고기를 잡아보았답니다.

(새싹반 교사-영찬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4. 25.)

오늘은 비닐장갑으로 멋진 물고기를 만들어보았답니다. 비닐 위에 여러 색의 매직으로 그려보고 스티커도 붙여주었어요. 후후 바람을 불어 부풀어 오른 물고기를 보며 영찬이는 “우와 물고기가 날아갈 것 같아!”라고 했어요. 교구장 옆쪽에 항상 사진과 함께 작품들을 전시해주었는데 그것을 기억한 영찬이가 테이프로 사진 옆에 붙이더라고요. 친구들 물고기도 함께 붙여서 구경하기로 했답니다.

(새싹반 교사 스마트 알림장, 2022. 4. 27.)

영찬이의 주말 갯벌 나들이 이야기는 교실에서의 낚시놀이로 이어지고 다시 물고기 만들기 미술 활동으로 이어졌고, 새싹반 전체의 놀이로 확장되었다. 교사들은 이렇게 주말 놀이 이야기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에서 놀이가 이어지는 과정을 새싹반의 주간보육계획안 ‘새싹반의 놀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가정으로 보내어 부모들과 놀이 과정을 공유하였다.

#### 나. 놀이 이야기를 활용한 놀이 키트 배부하기

‘놀이 이야기를 활용한 놀이 키트 배부하기’는 놀이 이야기에서 이어진 영유아들의 놀이를 가정에서 실제 놀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주고받은 놀이 이야기가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로 다시 연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어린이집의 놀이를 가정에서도 부모와 영유아들이 함께해 볼 수 있도록 놀이 키트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사랑 어린이집의 각 반에서 진행된 놀이를 활용한 놀이 키트들은 가정으로 배부되었고 놀이 이야기 주고받기에서 형성된 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관심과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주고받았던 놀이 이야기가 실제 놀이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다.

오늘 보내드리는 놀이 키트(어린이날 선물) 소개 영상입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알림장 외에도 선물에 붙어있는 QR 코드를 이용해 동영상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씨앗반

오늘 가정으로 어린이날 선물 보내드려요. 선물에 붙어있는 QR 코드로 들어가시면 선물로 놀이하는 법에 대한 영상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영찬이와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세요. -새싹반

오늘 어린이날 선물로 소떡 소떡 만들기 키트, 바람개비, 미니캠핑 랜턴을 보내 드립니다. 소떡 소떡 만들기 키트에는 소떡 꼬치 만들기 QR 코드가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꼭 확인해주세요. -꽃잎반

(스마트 알림장 공지, 2022. 5. 3.)

3월 말에 시작해서 4월에 본격화되어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보낸 주말 놀이 이야기는 위 사례와 같이 어린이집에서의 놀이 키트 구성으로 연계되었다. 사랑어린이집의 교사들은 5월 어린이날 선물을 놀이 이야기를 활용한 놀이 키트로 준비해주고 싶다고 하였고 연구자는 놀이 키트 구성과 배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각 반의 놀이 키트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세 씨앗반은 수족관에 다녀온 주말 놀이 이야기를 전체 영아들의 물고기에 대한 관심과 놀이로 연결하여 어린이날 선물로 ‘어항 꾸미기 놀이 키트’를 구성하였다. 2세 새싹반은 주말 피크닉 이야기를 활용하여 ‘피크닉 도시락 놀이 키트’를 3·4세 꽃잎반은 글램핑장 놀이 이야기를 활용한 ‘캠핑장 요리와 캠핑장용 놀잇감 만들기 키트’를 선물로 정하였다. 놀이 키트들은 어린이날 전에 가정으로 배부하였으며 교사들은 놀이 키트와 함께 놀이 키트 활용 및 놀이 방법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였다. 촬영된 영상을 QR코드 형태로 가정에 제공하는 비대면 지원도 병행하며 놀이의 연계와 확장 그리고 부모들의 실제 활용을 지원하였다. 한편, 교사들은 어린이날과 같은 특별한 날 외의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놀이 이야기를 활용한 놀이 키트를 배부하였는데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이번 주 씨앗반 놀이 이야기와 함께 자연물 팔찌를 만들 수 있는 OHP 필름을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씨앗반 스마트 알림장 놀이 소식지, 2022. 5. 27.)

아이들과 함께 오감놀이를 할 수 있는 라이스페이퍼를 보내드립니다. 물에 불린 라이스페이퍼로 몸에 붙이며 팩 놀이, 동그랗게 굴러서 던지며 공놀이, 딱딱한 라이스페이퍼를 조각내어 하늘에 뿌리며 비 놀이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라이스페이퍼 놀이를 즐겨보세요.



(씨앗반 스마트 알림장 놀이 소식지, 2022. 6. 3.)

씨앗반은 영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즐겁게 한 놀이를 가정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놀이 키트를 자주 배부하였다. 또한 놀이 키트를 활용한 놀이 방법을 주간보육계획안 ‘놀이 소식지’를 통해 안내하며 가정에서의 놀이를 지원하였다. 부모들은 스마트 알림장으로 공유된 ‘놀이 소식지’를 통해 놀이 키트를 활용한 놀이 방법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놀이 키트 구성과 배부하기를 통한 놀이 방법 안내에 부모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 놀이키트에 부모들은 1, 2주 또는 시간이 더 지나 놀이 키트를 활용한 놀이 결과를 놀이 이야기로 보내며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들은 연구자에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스마트 알림장에 놀이 방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시간이 지나서도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 (2) 1차 실행방안 평가

1차 실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2022년 6월 28일 연구자는 전체 담임교사들과 평가회의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실행 중에 실시한 원장-부모

면담, 담임교사-부모면담의 내용과 함께 연구자 노트의 기록, 부모들과의 대화, 교사들의 일일보육계획안 그리고 1차 실행과정 중에 함께 실시된 S시의 맞춤형 컨설팅 종합평가 결과가 함께 공유되었다.

### ① 비대면 가정연계 목적과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성

2022년 2월 17일부터 시작하여 2022년 6월 24일까지 진행된 1차 실행에 대한 평가 및 2차 실행에 대한 방법 모색은 2022년 6월 28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이루어졌다. 1차 실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6월 28일 연구자는 전체 담임교사들과 평가회의를 했다. 연구자는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가정연계를 시작하기 전 부모들에게 부모교육, 개별면담, 부모간담회 등의 과정을 통해 안내하였고 이로 인해 부모들이 가정연계에 대부분 참여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참여한 부모들이 놀이 이야기를 전송하기 위한 사진 찍기와 영상 촬영에 부담을 갖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영유아들과의 놀이에 대한 이야기 외에 특별한 행사나 장소에 방문한 내용을 보내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평범한 주말을 보내서 또는 미처 사진과 영상을 찍지 못해서 놀이 이야기를 보내지 못했다고 하는 가정의 사례도 이야기하였다.

지수 어머니: 지수는 지난 주말 이전에 살던 동네(할아버지 댁 근처)에 가서 예전 단짝 친구를 만나 놀고, 동생하고 키즈 카페도 가고, 사촌 동생 만나 놀이터에서 신나게 킥보드 타고 미끄럼틀 타며 놀았어요. 근데 사진을 제대로 찍지 않아 보내드릴 것이 마땅치 않아요.

교사: 어머님 사진(영상)은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어떤 놀이를 했는지)만 알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내 주신 사진만 봐도 지수가 주말 동안 즐겁게 지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꽃잎반 교사-지수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4. 4.)

지수의 사례에서처럼 부모들은 비대면 가정연계 놀이 이야기 보내기 방법과 목적을 사진이나 영상자료로 국한하거나 특별한 장소에서의 사진 기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들은 부모들에게 가정연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놀이 이야기를 보내는 방법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가정연계에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교사들과 같은 관점에서 놀이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교사와 부모가 보고 느끼는 관점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례이다.

B교사: 연수가 어느 날은 책상들 밑으로 들어가는 놀이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위험할 것 같아’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의자도 스스로 책상 위로 올려서 놀이하는 것도 그냥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고 (중략) 재활용품 상자로 쌓는 놀이 할 때도 “빈 상자들을 쌓으면 왜 무너질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게 잘 쌓을 수 있을까?”라고 계속 얘기하거나 발문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연수가 스스로 빈 상자 안에 마라카스처럼 뭘 넣어서 쌓아보기도 하고 종이테이프 상자들을 감싸 붙이면서 쌓는 모습을 보고 발전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교사로서도 좋았어요.

연구자: 그 상황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이 있었나요?

B교사: 네. 연수가 예술적인 성취를 했다고 하셨어요.

연구자: 이후 지속된 가정연계 과정은 없었나요?

B교사: 네.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평가회의, 2022. 6. 28.)

교사는 연수가 교사의 지원으로 놀이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그에 대해 교사로서의 만족감을 느끼지만 부모는 연수의 놀이를 표면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연수의 사례를 통해 부모가 놀이에 관심 갖게 되고 자녀의 놀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1단계의 실행목표에는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가 교사와 같은 관점에서 유아의 놀이를 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는 가정연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부모의 놀이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역설적으로 부모가 가정연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정연계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②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는 가정연계의 필요성

1차 실행과정과 평가회의에서 교사들은 비대면의 한계 그리고 비대면 가정연계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대면 가정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대면 가정연계의 부분적인 재개를 제안하였다. 다음 두 사례는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B교사: 부모님들이 간담회 내용을 잘 듣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일단 (ZOOM 회의실에) 접속해야 하니까 들어는 오셨는데 (중략) 제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간담회를 처음 해봐서 간담회의 뜻이 뭔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래요.

연구자: (웃음) 맞아요.

B교사: 그런데 저희 할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끝나지 않았나 싶어서...이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다음에 하게 된다면 (중략) 같이 의견을 조금 공유하고 그러는 모임으로 만들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 그렇게 하려면 간담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교사: 대면으로...

D교사: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면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교사회의, 2022. 4. 19.)

A교사: 저는 조금 (비대면과) 역설적으로 단계를 바꿔서 계속 참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20분 10분 짧은 단위로 (어린이집에) 와서 내 아이가 놀이

하는 게 아니더라도 반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그 (가정과 연계되는) 놀이상황만 보면 부모님들이 그 뒤에 가정연계를 조금 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했어요.

(평가회의, 2022. 6. 28.)

반 별로 진행한 부모간담회를 마친 B교사는 처음 경험하고 진행한 간담회가 부모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교사의 일방적인 안내로 끝난 것 같다는 소감과 함께 대면 방식의 간담회를 제안 하였다. A교사도 부모들이 가정에서 보낸 놀이 이야기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직접 참여해서 경험해 보는 대면 가정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1차 실행에서 실행한 비대면 가정연계는 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부모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은 있으나, 부모들과의 소통적인 측면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아쉬움은 예상한 바와 같이 나타났다. 비대면 가정연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면 가정연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연구자와 교사들 모두 동의 하였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가정연계를 점진적으로 재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 ③ 비대면 가정연계 과정에서 영유아 놀이가 중심이 되도록 할 필요성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연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은 영유아들의 반응이다. 놀이를 활성화기 위한 가정연계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유아들의 개별적인 놀이가 되어야 한다. 사랑어린이집 가정연계의 1차 실행에서도 부모들은 영유아들의 놀이와 영유아들이 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놀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연계 과정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E교사: 요리 키트 (어린이날)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주말 놀이 이야기로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보낸 걸 꼭 굳이 사용 안 하셨어도 대부분 다 피크닉에 가서 음식을 먹는 사진이 가정에서 많이 왔고...어린이집에서도 다시 그 사진을 인쇄해서 붙여주고 친구들끼리 볼 수 있도록 하니까 아이들이 얘기를 계속 해 주더라고요. ‘엄마랑 이거 김밥 먹었어. 딸기 먹어봤어’, 라고 얘기해서 같이 놀이로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반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피크닉에 대한 주말 놀이 이야기를 엄청 열심히 보내주셔서 그걸로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반 아이들이 씨앗반이었을 때 놀잇감에 대해 지루해 하는 느낌, 그리고 어린이집 생활을 좀 재미없어한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었어요. 이제는 아이들의 놀이 활동을 자신들이 했던 경험에 따라 구성해준다 보니까 조금 더 놀이가 살아나고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새싹반 아이들 요새 보면 어때요? 선생님들께서 지나가다 보시면?

F교사: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게 놀이하는 게 보여요.

연구자: 그렇죠. 굉장히 생동감 있게 놀이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부모님들이 혹시 그런 차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E교사: 네 집에서든 확실히 여기서 한 얘기들 놀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세요. 어린이집에서 한 거 그거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자꾸 밖에 나가자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교사회의, 2022. 5. 12.)

E교사는 부모들이 가정연계 과정에서 영유아들의 놀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느껴졌고, 영유아들이 놀이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영유아들의 놀이와 함께 놀이 속에서 보이는 자녀의 표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가정에서의 놀이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부모들이 놀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놀이로 인한 영유아들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다고 하였지만 놀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더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교사들은 부모들이 영유아들의 놀이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F교사: 정민이의 경우 부모님이 아직도 아이의 놀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편이세요. 정민이가 잘 놀기를 바라시는데….

연구자: 정민이 부모님은 저와 면담할 때 정민이와 함께 놀이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D교사: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것이 놀이를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정민이에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날 선물로 보낸 밥알 모양 과자를 줬는데 탐색 놀이를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민이가 밥알 과자를 쥐지 않고 밀어내기만 해서 그 놀이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같은 밥알 과자로 1시간 동안이나 진짜 몰입해서 잘 놀았거든요.

연구자: 정민이가 어린이집에서 놀이하는 애기 부모님께도 해드리거나 보여드렸나요? 정민이가 밥알 과자를 움켜쥐고 하는 놀이 보다는 밀어내면서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D교사: 네 그럴 것 같아요.

연구자: 정민이가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놀이를 잘하고 있고 다른 아이들처럼 잘 놀이하는데 정민이만의 놀이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회의, 2022. 6. 28.)

정민이의 사례는 영유아들이 같은 놀이상황에서도 개별적인 놀이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싹반 교사들은 부모들이 육아서적이거나 온라인 등에서 확인한 육아 정보에 의한 놀이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자녀들의 놀이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부모들이 놀이에 대한 고정된 인식으로 자녀들의 놀이를 평가하여 실제로 자녀의 놀이 성향이나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결국 자신의 자녀가 ‘잘 못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가 자녀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놀이를 알게 하는 것은 놀이중심 교육을 위한 가정연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므로 연구자는 부모들이 영유아들의 놀이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들이 다양한 놀이 방법을 알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놀이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를 알 수 있도록 영유아들의 놀이를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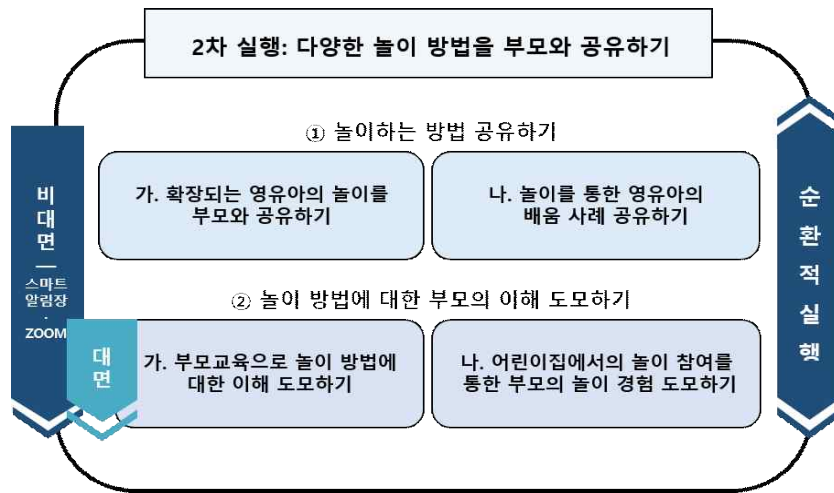
## 2) 2차 실행: 다양한 놀이 방법을 부모와 공유하기

### (1) 2차 실행방안 실시

1차 실행의 평가 결과, 2차 실행에서는 부모들의 가정연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촉진의 필요성, 대면 가정연계 병행의 필요성, 영유아들의 놀이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실행방안은 놀이하는 방법 공유하기와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으로 모색하였다. 놀이 방법을 공유하는 것은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하였으며 영유아들의 놀이가 다양화되는 모습과 놀이를 통해 배움이 형성되는 과정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2차 실행에서는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기에 맞춰 대면 참여를 시작하여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의 놀이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놀이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실행의 방안은 1차 실행에서 부모들이 갖게 된 놀이에 대한 관심에서 나아가 부모들이 놀이의 중요성과 실제 놀이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2차 실행에서도 비대면 방식은 계속해서 유지했으며 스마트 알림장 외에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2차 실행은 2022년 7월 3일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2차 실행 방법

### ① 놀이하는 방법 공유하기

‘영유아들이 놀이하는 방법 공유하기’의 실행방안은 첫째, 확장되는 영유아의 놀이를 부모와 공유하기, 둘째, 놀이를 통한 영유아들의 배움 사례를 부모들과 공유하기로 선정하였다. 부모들과의 놀이 방법 공유하기는 1차 실행의 놀이 이야기 주고받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하였다. 2차 실행의 초점은 1차 실행에서 형성된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놀이 방법에 대한 이해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확장되는 놀이 모습을 부모들과 공유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들의 놀이가 영유아들의 흥미와 가정에서 했던 놀이 경험을 토대로 다양화되고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놀이를 통하여 영유아의 배움 사례 공유하기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의 놀이중심 교육이 영유아들의 실제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스마트 알림장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부모들의 놀이를 통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실행하였다.

### 가. 확장되는 영유아의 놀이를 부모와 공유하기

확장되는 영유아의 놀이를 부모와 공유하기는 단순하게 시작된 영유아들의 놀이가 유사한 여러 가지 유형의 놀이로 전개되거나 전혀 다른 유형의 놀이로 변화되어 진행되는 상황을 부모들에게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사랑어린이집의 각 교실에서는 4월에 시작한 가정과의 놀이 이야기 주고받기에서 시작된 놀이들이 영유아들의 흥미와 교사들의 지원으로 활성화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놀이를 활성화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위해 교실 환경을 바꾸고 일과의 흐름을 영유아들의 놀이에 맞추었다. 그리고 매일 교실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놀이와 놀이가 변화하는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부모들에게 보여주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교사: 오늘 꽃잎반 가을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다가 높은 곳에는 갈고리가 필요하다가 긴 백업을 내주었습니다. 아현이와 함께 백업을 길게 만들어서 가을 열매를 따기도 하고, 백업이 줄넘기 같았는지 줄넘기처럼 잡고 넘어 보기도 했습니다. 연수가 백업을 가지고 놀이하러 오는 모습이, 뱀 같아 보였는지 꽃잎반 친구들 모두 몸으로 뱀을 표현하고, 빙글빙글 뱀을 만들어 식물 옆에 두기도 했습니다.

연수 어머니: 놀이가 계속해서 변형되고 확장해 나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귀여워요. 가을 나무를 따다 뱀을 만들게되다니...



(꽃잎반 교사-연수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9. 20.)

연수 어머니는 항상 놀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을 보내드리면 그냥 ‘오늘도 즐겁게 놀이 했네요’라고 끝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반에 만들어 붙인 가을 나무랑 거기에 붙은 자석과 가을 열매 따기에 호기심을 보이고 해보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연수가 가을 열매를 따 보려고 갈고리 같은 걸 만들고 싶다고 해서 백업을 주었고 백업으로 갈고리를 만들다 줄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백업이 뺨 같다고 결국 연수의 놀이가 다른 아이들의 뺨 놀이로 이어졌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어머니께 보내 드리니까 연수 어머니가 알림장 댓글로 ‘아이들의 놀이가 확장되고 변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다’고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아! 놀이를 계속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구나’하고 좀 놀랐어요.

(B교사 교사회의, 2022. 9. 21.)

꽃잎반 벽에는 유아들이 여러 날의 놀이 활동을 통해 만든 가을 나무와 열매가 붙어있었다. 꽃잎반 유아들은 가을 나무의 열매 따기 놀이를 시작하였고 이때 이루어진 연수의 가을 나무와 뺨 놀이 이야기를 교사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가정과 공유하였다. 연수와 꽃잎반 유아들의 놀이 이야기를 본 연수 어머니는 확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연수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관심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놀이의 전개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함께 알 수 있다. 연수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이전과 다른 구체적인 반응과 표현을 보고 교사는 가정연계로 인한 부모의 변화와 함께 가정연계의 효과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확장되는 영유아들의 놀이는 영아반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교사들은 활성화되는 영아들의 놀이를 부모들과 꾸준하게 공유하였다. 다음은 영아반의 사례이다.

교사: 어제 현장학습 갔던 곳에서 준수가 공을 굴려보는 것에 관심을 많이 보여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공을 굴릴 수 있는 교구와 기차 레일 교구를 꺼내주었어요. (중략) 친구들과 함께 교구 앞에 앉아서 집중해서 공도 굴리

고 기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자동차와 숨 공도 가지고 와 위에서 굴러보다 잘 굴러가지 않으니 손으로 살짝 밀어 보기도 했어요. 유희실에서는 골대로 놀이하기도 했어요! 준수에게 공을 넣을 수 있다고 알려주니 공을 들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서 넣더라고요.

준수 어머니: 선생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좋아하는 걸 놀이로 연장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주말에 유사한 방식으로 공과 자동차를 활용한 놀이를 해줘야겠어요.

(씨앗반 교사-준수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7. 22.)

위 사례에서 교사는 준수가 현장학습 장소에서 보이는 놀이를 관찰하고 어린이집에 와서 준수가 관심을 보였던 놀이를 기반으로 한 놀이 지원을 하게 된다. 교사는 놀이 지원의 동기와 과정을 부모와 공유하면서 놀이가 확장되는 과정을 부모가 인식하도록 하였다. 준수 어머니는 교사의 공유를 통해 놀이의 확장과 이를 위한 교사의 지원에 대해 이해하고 교사의 놀이를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감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영유아들의 놀이가 다양하게 확장되는 모습을 부모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영유아들의 흥미를 존중한 놀이의 전개 과정과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들은 영유아들이 하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를 가졌다.

#### 나.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배움 사례 공유하기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배움 사례 공유하기’를 실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배워나가는 과정을 놀이 장면을 통해 부모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부모들이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과 배우는 과정을 아는 것은 놀이중심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랑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부모들에게 다양한 내용의 놀이 이야기로 교육적인 놀이를 안내하였다. 다음은 놀이와 함께 교육이 이루어진 사례로 영유아들의 놀이가 거친 신체활동으로

전개되면서 놀이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지켜나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C교사: 오늘도 승현이는 지난주에 이어 교구장과 놀이 집 위에 올라가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점프하고 교구장에 올라가는 놀이가 지속되어 오늘은 함께 모여 앉아 올라가도 되는 곳과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을 정하여 색 테이프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중략) 함께 언제, 어떻게 올라가 놀이할지 놀이규칙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승현 어머니: 네~선생님 승현이가 요새 집에서도 자꾸 자전거 위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좋은 교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잎반 교사-승현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7. 18.)

꽃잎반 교사는 사례를 통해 유아들이 스스로 규칙의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의논한 다음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방법을 정하는 과정을 부모들과 공유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공유를 통해 부모들이 놀이 속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놀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배워나가는 과정이 가정과의 놀이 이야기 주고받기를 통해 확장되고 연계되기도 하였는데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보내주신 놀이 키트로 상어 가족과 뽀로로 친구들이 사는 별나라를 꾸며보았습니다. (중략) 손전등으로 별나라를 비춰보며 즐겁게 활동했어요.

(씨앗반 재빈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7. 11.)

씨앗반 재빈이는 주말에 엄마와 손전등 놀이를 했고 재빈이의 ‘손전등 빛 놀이’를 시작으로 씨앗반 영아들의 빛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씨앗반 교사들은 재빈이의 주말 놀이 이야기를 소재로 영아들의 빛에 대한 탐색놀이를 지원하며 놀이가 확장되는 이야기들은 스마트 알림장으로 부모들에게 공유되었다.

씨앗반 교사들은 영유아들이 빛에 대해 알아가는 일주일 동안의 과정을 주간보육계획안 ‘놀이 소식지’를 통해 정리하여 다시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다.

이번 주는 아이들이 빛을 이용해 놀이를 즐겨보았어요. 빛을 이용하는 놀이를 소개해 드리니 아이들과 즐거운 놀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씨앗반 스마트 알림장-놀이 소식지(공지), 2022. 7. 15.)

<우와 미리볼에서 빛이 나와요>-요즘 체조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더 즐겁게 놀이하도록 미리볼을 지원해주었어요. 아이들이 미리볼에서 나오는 빛을 따라 다니기도 하고 빛을 잡으러 교실을 빠르게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어.

**빛으로 놀이해요** 22.07.14 - 22.07.15

**이번주 놀이 소개**

**종이컵 조명 놀이**

종이컵, 이쑤시개(복죽한 도구), 손전등(스마트폰 플래시)

1. 종이컵 위에 그림을 그린 뒤, 이쑤시개로 2. 백면이나 흰색을 칠해 종이컵 안에 플래시를 대고 비춘다. 비추는 그림을 살펴본다.

**셀로판지 빛 놀이**

풀, 셀로판지, CHRP필름, 손전등(스마트폰 플래시)

1. CHRP필름 위에 풀을 이용해 조각 셀로판지를 붙인다. 2. CHRP 필름 위에서 손전등을 비춘다. 3. CHRP 필름에서 손전등에서 멀리, 가까이 움직이며 벽에 나타나는 그림의 변화를 살펴본다.

(씨앗반 스마트 알림장-놀이 소식지(내용), 2022. 7. 15.)

교사들은 주간보육계획안에 놀이를 통한 배움 사례에 대한 안내를 한 다음 영아들의 빛에 대한 놀이가 가정에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어린이집의 빛 놀이를 가정에서 연계할 수 있는 ‘빛 놀이 키트’를 구성하여 가정으로 배부하였다.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보낸 놀이 키트를 활용한 ‘주말 놀이 이야기’를 어린이집으로 다음과 같이 보냈고 이러한 과정으로 놀이의 순환과 확장이 가정연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엄마와 함께 종이컵에 이쑤시개로 별 모양을 콕콕 찍어서 손전등을 넣고 깜깜한 방 안에서 벽에 이리저리 비춰보는 놀이를 재빈이가 무척 재미있어했어요. 셀로판지를 틀에 비춰보기도 하고 눈에 대고 놀기도 했습니다. -재빈 어머니

주말에는 나은이와 어린이집에서 보낸 종이컵과 셀로판지로 놀이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웃음). -나은 어머니

(씨앗반 부모들 스마트 알림장, 2022. 7. 29.)

다음은 영아들의 놀이를 통한 배움 사례를 부모들과 공유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씨앗반 교사들은 영아들이 현장학습 장소에서 좋아했던 놀이를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로 연계하여 영아들이 바람에 대한 탐색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지원하고 이를 부모들과 공유하였다.

지난주에 현장학습 다녀온 곳의 체험 공간 중 ‘바람 과학 연구소’에서 바람을 타고 휴지가 날리는 모습을 보며 씨앗반 친구들이 신이 났었습니다. 현장학습에서 돌아온 뒤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작은 선풍기를 주었어요. 아이들은 선풍기로 바람을 쐬기도 하고 날개에 ‘아’ 하고 외치며 변화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적극적인 탐색을 했어요. 또 작게 찢은 습자지를 주어 선풍기 위에 습자지를 올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아이들이 (현장학습 장소에서 했던) 놀이의 경험을 떠올리며 휴지를 찾아오기도 했어요.



(씨앗반 스마트 알림장-놀이 소식지(내용), 2022. 7. 29.)

사랑어린이집은 현장학습을 영유아들의 놀이 이야기와 연계하여 매월 1~2회로 진행하였다. 위 사례는 씨앗반에서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온 뒤에 어린이집에서 진행된 놀이 과정을 주간보육계획안을 통해 안내한 것이다. 교사는 영아들에게 작은 선풍기와 작게 자른 습자지를 주어 영아들이 바람에 의한 목소리 변화를 느껴보고 바람에 날리는 종이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습을 본 영아들은 습자지 조각을 창문 앞으로 가져가서 창밖의 바람에도 습자지가 날려 가는지 실험을 해보기도 하며 바람의 특성을 경험하고 탐색하였다. 부모들은 영유아들의 놀이 과정에 대한 주간보육계획안을 보며 영아들이 바람의 특성을 놀이를 통해 체험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영유아들의 다양한 놀이를 통한 배움 사례들은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매일의 알림으로 또는 주간보육계획안으로 정리되어 부모들에게 공유되었다. 연구자와 교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들이 영유아들의 놀이가 활성화되어 배움으로 연결되고 놀이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의 이해 도모하기

2차 실행의 두 번째 방안인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의 이해 도모하기’는 첫째, 부모교육으로 놀이 방법에 대한 이해 도모하기와 둘째, 어린이집에서의 놀이 참여를 통한 부모의 놀이 경험 도모하기로 진행되었다. 이 단계의 실행에서는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 도모를 위해 대면 참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대면으로 실행하였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활동에 대면 참여하도록 하여 부모들의 직접적인 놀이 경험을 지원하였다. 부모교육과 부모들의 대면 참여는 비대

면 방식과 병행하거나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며 스마트 알림장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가. 부모교육으로 놀이 방법에 대한 이해 도모하기

연구자는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시행하였다. 부모교육은 전체 부모들의 대면 참여로 진행되었다. 부모교육의 목적은 부모들이 영유아들이 원하는 놀이와 놀이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놀이 활성화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가정연계에 지속해서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연구자는 직접 참여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와 교육내용 전달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당일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부모를 위해 2차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도 추가로 진행하였다.

1차 대면 부모교육은 부모들이 업무를 끝내고 편안하게 참여하고 A사에 근무하지 않는 부모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시행했으며, 부모들의 업무 여건 및 교육 선호시간을 반영하여 날짜와 시간을 2022년 9월 28일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로 정한 다음 회사 건물 9층에 있는 교육실에서 진행하였다. 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참석한 부모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는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은 교사들과 ‘가을 놀이파티’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가을 놀이파티는 영유아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획된 행사로 어린이집을 3개의 놀이 공간으로 구분하여 재구성하고 각각 신체 놀이, 영화관 놀이, 간식 뷔페 놀이영역으로 준비하였으며, 특별활동 체육 교사와 여름 동안 실습했던 실습 교사 3명이 교사들과 함께 영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였다. 부모교육의 주제는 ‘진짜놀이는 무엇일까?’로 정하였고, 내용은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F교사: 부모님께서 좀 기대가 많이 크세요. 저희반 아이들은 아직 네 조각 퍼즐 같은 것을 맞추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조각 퍼즐 주시고 잘 못 맞추고 던지니까 그거로 혼냈다고도 하세요.

연구자: 아이에게 필요한 진짜놀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죠?

E교사: 저희 반 재빈이나 지연이 경우는 놀이 이야기가 놀이 방법에 맞게 잘 오는 편이에요. 저희가 (놀이를) 지원할 수 있게 아이들이 이런 것에 흥미를 보였다는 내용으로 (놀이 이야기가) 많이 오는 편인데 다른 아이들은 아직 외출이나 외부 나들이 내용을 주로 보내고 계시기는 해요.

A교사: 부모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의 발달 단계와 놀이를 좀 연결을 못 시키시는 것 같아요. 새싹반 아이들이 지금 자기중심적인 시기여서 놀이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잦은 편인데 부모님들은 요즘 저희 반 여자 친구들이 자주 다투는 것으로 걱정하세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누구랑 싸웠는데 괜찮았냐고 하시면서...(중략) 이번 교육에서 놀이랑 발달을 연계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회의, 2022. 9. 21)

교사들은 부모들이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녀의 발달단계와 놀이 성향에 맞는 놀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E교사는 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말 놀이 이야기가 외출한 내용 그리고 바깥나들이에 대한 내용으로 오고 있다고 하였다. E교사는 부모들에게 놀이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부모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부모교육의 내용을 진짜놀이와 가짜놀이의 영상사례 소개, 놀이의 3요소를 비롯한 진짜놀이의 구성요소 설명, 사랑어린이집의 놀이를 통한 교육 사례 소개, 사랑어린이집의 진짜놀이 영상 소개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사랑어린이집에서 진행하고 있는 놀이와 놀이를 통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가정연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부모들의 참여와 지속 필요성에 대한 안내를 끝으로 마무리하였다. 다음은 부모들에게 보여준 놀이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례이다.

새싹반의 주말 놀이 이야기가 어린이집에서의 미용실 놀이로 확장된 사례입니다. 새싹반에서 주말에 엄마와 함께 미용실에 다녀온 놀이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른 아이들도 미용실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서연이의 머리를 묶어주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해인이가 “그럼, 아현이 머리는 내가 해줄까?”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가지고 왔고 그렇게 미용실 놀이가 시작되었어요. 해인이와 아현이의 놀이에 다른 아이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서로의 머리를 만져주며 “아파요?”라고 계속 물으며 손님의 기분을 살피기도 하고 또 다른 손님도 맞이하며 미용실 놀이는 한층 활발해집니다.

(부모교육, 2022. 9. 28.)

연구자는 새싹반에서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부모들과 공유한 ‘새싹반의 미용실 놀이 이야기’를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에게 소개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주말 놀이 이야기를 교육과 연계하는 과정과 방법을 부모들에게 보여주었다. 부모들은 ‘부모교육’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가 놀이의 중심이 되고 자녀의 놀이가 확장되는 사례를 자세하게 보게 되었다. 또한 영유아들의 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지원 과정을 보면서 놀이가 진행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기회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부모들에게 놀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진짜놀이와 가짜놀이의 영상사례는 2019년 1월 15일에 방송되었던 EBS 신년특집 기획 프로그램 ‘놀이의 힘’ 중 ‘진짜놀이, 가짜놀이’의 영상을 편집한 것이었다. 사랑어린이집의 놀이 사례는 교사들이 촬영한 영유아들의 놀이 영상을 편집한 것을 사용하여 부모들의 놀이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1차 대면 부모교육 이후에 부모들의 희망에 따라 2차 비대면 교육을 2022년 10월 27일 17시 30분에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교육내용은 1차 대면 교육과 동일하였다. 1차 대면 교육에는 총 22가정에서 44명의 부모가 참석하였으며 2차 비대면 부모교육에는 2가정에서 2명의 부모가 참여하였다.

## 나. 어린이집에서의 놀이 참여를 통한 부모의 놀이 경험 도모하기

연구자는 어린이집에서의 놀이 참여를 통한 부모의 놀이 경험을 도모하기를 실행하기 위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영유아들의 놀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부모들의 대면 참여는 코로나의 추이를 고려하여 1~3명의 부모가 선별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각각 다른 활동에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부모들은 부모모니터링, 금연캠페인, 개원기념일 행사, 추석 세시풍속 한가위 큰잔치 등의 놀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참여하였으며 부모들이 참여한 각각의 놀이 활동은 경우에 따라 비대면과 연계 또는 병행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비대면과 대면을 연결하여 진행한 금연캠페인 활동에 부모가 참여한 사례이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동요와 동화를 한 번씩 더 들어보며 담배의 해로움과 25일에 진행할 금연캠페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략) 연수 아버님 오늘 바쁜 시간 내어 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캠페인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중략) 오늘 연수 아버님께서 참여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연수는 오늘 아버님과 함께 금연부채와 반짝이는 보석스티커로 금연 어깨띠를 만들었습니다.

(꽃잎반 교사 스마트 알림장, 2022. 8. 18)

위 사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 예방교실의 사전 비대면 교육과 어린이집에서의 대면 참여가 연계되어 진행된 사례이다. 교사들은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금연에 관한 사전교육을 비대면으로 받도록 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대면 참여의 대상이 된 부모들에게는 영유아와 함께 비대면 사전교육에 참여하도록 개별적인 안내를 더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부모들에게 교육과정 속에서 놀이가 활용되고 놀이 방법의 교육적 적용에 대해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다음 사례는 부모들의 대면 참여 활동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다른 가정과 공유한 사례이다.

교사: 이번 목요일 어린이집에 오셔서 부모참여활동 하시는 거 가능하세요?  
아이들과 놀이 활동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선생님이 오셔서 하시는  
방문 영양 교육에 참여하시고 자체 부모모니터링도 하실 거예요.

현서 아버지: 제가 목요일 10시부터 회의가 있어 11시부터라도 참석해도 된다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시간은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꽃잎반 친구들과 함께  
일체소와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 다음 점심, 자체모니터링 순서로 진행됩니다.

(꽃잎반 교사-현서 아버지 스마트 알림장, 2022. 9. 26.)

공지사항: 부모님들의 참여로 진행한 부모모니터링 영상 보내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에 참여해주신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서 아버지: 사무실에서 혼자 웃으며 봤습니다. 모니터링~수고하셨습니다.

(꽃잎반 교사-현서 아버지 스마트 알림장, 2022. 10. 28.)

연구자는 2022년 7월 3일 지자체의 자체 부모모니터링을 위해 두 명의 부모 신청을 받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2차 실행의 대면 참여를 시작하였다. 2022년 9월 28일에는 2차 자체 부모모니터링을 지역사회 유관기관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순회 방문교육과 연계하고 부모들을 참여하도록 하여 대면 가정연계를 함께 진행하였다. 부모모니터링의 결과는 음악을 삼입한 영상으로 제작되었고 스마트 알림장으로 공지하여 부모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함께 보며 영유아들과의 놀이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교육 활동과 놀이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가정과 연계하여 공유하였다.

## (2) 2차 실행방안 평가

2차 실행 평가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1월 4일까지 교사들과의 평가회의와 연구자와 교사의 개별면담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교사들은 2차 실행에서 다양한 놀이 방법을 부모와 공유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 ① 비대면 가정연계를 지속할 필요성

2차 실행과정 중에 실시한 연구자와 부모의 면담, 등·하원 시간 교사와 부모가 나누는 짧은 대화, 이외 스마트 알림장을 통한 부모의 반응 등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 가정연계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은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교사: 어머님들 이야기 해주는 거 보면 알림장을 보면서 아이들의 놀이 흐름이 조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 수가 있었다고 얘기 해주시는 분이 많았어요.

D교사: 씨앗반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이제 가정연계 활동에 만족한다는 부모님도 계시고 재빈이 어머니나 지연이 어머니께서는 어린이집에 (주말 놀이 이야기) 공유도 잘 해주시고 저희가 놀이 키트 같은 거 보내드리면 아주 잘 해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지연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노는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연구자: 지연이 어머님은 지연이 하고 어떤 방법으로 놀이할까가 고민이었는데 선생님들하고의 가정연계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D교사: 다른 가정들이 어떻게 놀이하는지 공유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구자: 맞아요. 그런 거는 다들 궁금해 하세요.

(평가회의, 2022. 10. 26.)

B교사는 부모들이 2차 실행에서 놀이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고, D교사도 1차 실행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모들이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교사들은 부모들이 다른 가정의 놀이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한다고 하며 대면 가정연계가 시작되어도 다른 가정의 놀이 이야기를 공유하기 용이한 비대면 가정연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차 실행을 진행하면서 연구자와 교사들은 정해진 면담과 참여활동 외에도 등·하원 시간을 활용하여 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정에서 보내온 놀이 이야기와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놀이 이야기에 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다. 연구자는 부모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놀이의 순환적 흐름과 놀이와 교육의 연계 그리고 가정연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善)순환적 과정에서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를 가정에서도 확장하여 진행하기도 하였고 영유아들의 놀이 방법을 보면서 다른 가정의 놀이에 대해 궁금해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와 교사들은 비대면 가정연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② 개별적인 대면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

연구자는 처음 2차 실행을 계획할 때 대면 가정연계를 점진적으로 재개하면서 학기 말까지 기간을 여유 있게 하고 최소한의 횟수와 최소인원이 참여하게 하여 진행할 계획이었다. 2차 실행 시기에도 코로나에 의한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이었고 부모나 교사들이 지속되는 비대면 가정연계에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대면 직접 참여 기간을 2학기 말까지로 여유 있게 계획하고, 전체 부모의 개별참여가 종료되는 시점 또한 학년이 마무리되는 2월

말까지로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교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참여가 더 필요하다는 제안을 다음과 같이 했다.

A교사: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선생님이랑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한 분씩 교실을 보고 아이들을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제 생각도 그래요. 7월부터 시작한 부모님들 직접 참여가 주로 행사적인 성격이 강한 날이었지요.

A교사: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날이 좀 특별한 날이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중략) 평상시에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날 부모님들이 좀 오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B교사 : 윤수 어머니는 윤수 동생이 있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계속 참여하셨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에 오셔서 참여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대면보다 어린이집에 오시는 대면 참여를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C교사: 저희가 부모참여를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스마트 알림장에 한 분만 먼저 댓글 달아 달라고 했는데 아현이는 엄마가 신청하지 못한 것을 너무 속상해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자: 맞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C교사: 아현이도 ‘엄마가 왜 같이 어린이집에 와서 밥을 못 먹었어?’라고 했더니깐 그것(신청 방식)도 다른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느꼈어요.

(평가회의, 2022. 10. 26.)

연구자는 교사들이 새로운 시도의 비대면 병행 가정연계 놀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교사 협의가 이루어지고 부모들의 대면 참여가 행사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2차 실행 기간을 여유 있게 갖고 대면 방식의 부모참여에도 부모들이 최소인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연구자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2차 실행에서 발전된 실행단계를 원했고 이를 통해 부모와

함께 영유아 중심의 놀이 그리고 교육적인 놀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2차 실행의 유지에서 계획을 바꿔 2차 개선방안을 적용한 3차 실행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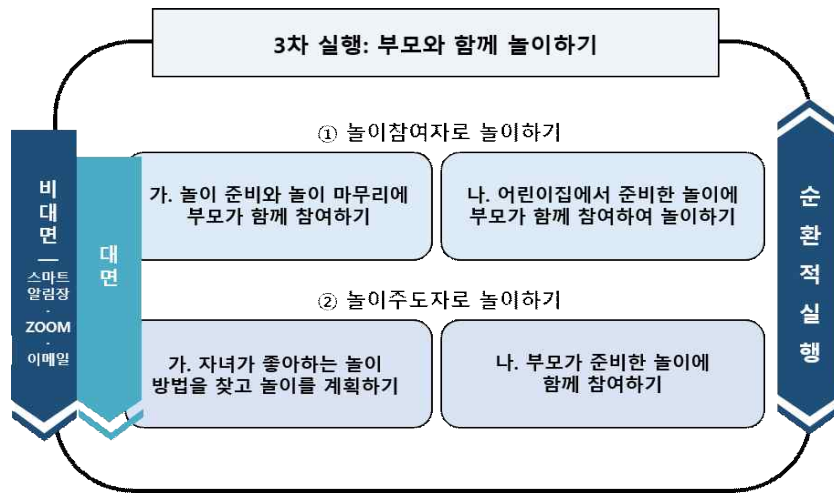
### **3) 3차 실행: 부모와 함께 놀이하기**

#### **(1) 3차 실행방안 실시**

3차 실행은 2차 실행 결과를 반영하여 부모들과 영유아들이 함께 놀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놀이참여자로 놀이하기와 놀이주도자로 놀이하기를 실행방안으로 선정하였다. 3차 실행의 목표는 1차 실행의 놀이에 대한 관심 형성, 2차 실행의 놀이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들이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부모와 영유아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3차 실행에서는 대면 참여를 확대하였고 비대면으로 대면 참여에 대한 놀이 준비와 놀이 마무리, 놀이 방법 찾기, 놀이 계획하기를 진행하였다.

첫째, 놀이참여자로 놀이하기는 어린이집에서 계획하여 준비한 부모참여 수업, 부모일일 참여활동, 일상적인 놀이에 부모들이 참여하여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는 것이다. 둘째, 놀이주도자로 놀이하기는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할 놀이를 위해 놀이 방법을 찾고 놀이를 계획하여 준비한 놀이에 영유아와 함께 참여하여 놀이하는 것이다. 놀이참여자로 놀이하기와 놀이주도자로 놀이하기의 대면 참여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비대면 방식은 스마트 알림장,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메일을 활용하였다.

3차 실행은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진행하였다. 3차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3차 실행 방법

### ① 놀이참여자로 놀이하기

‘놀이참여자로 놀이하기’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놀이에 자녀와 함께 참여하여 놀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첫째, 놀이 준비와 놀이 마무리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기, 둘째,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놀이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기이다. ‘놀이참여자로 놀이하기’의 실행은 반전체가 동시에 함께 참여하는 부모참여수업,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부모일일 참여활동, 가정연계 놀이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부모들이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첫 번째 실행방안 ‘놀이 준비와 놀이 마무리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기’는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하는 사전활동과 사후활동, 그리고 부모가 하는 사전준비로 진행되었다. 놀이 준비의 사전활동과 놀이 마무리의 사후활동은 반전체 부모참여수업 김장하기와 산타잔치에서 진행되었다. 놀이를 위한 부모의 사전 준비는 산타잔치와 영유아의 생일에 개별적으로 진행된 부모일일 참여활동 ‘생일축하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졌다. 놀이 준비와 놀이 마무리

는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생일축하 프로그램은 이메일 활용의 비대면 방식이 추가되었다.

두 번째 실행방안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놀이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기’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가정연계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하여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는 것이다. 부모가 영유아와 함께 하는 놀이 참여는 반 전체 부모가 함께하는 김장하기와 산타잔치,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생일축하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연계 놀이 이야기를 통해 실행하였다. 김장하기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대면 참여로 이루어졌고 반별로 시간이나 날짜를 달리하여 진행하였다. 산타잔치와 생일축하 프로그램, 가정연계 놀이 이야기에 의한 놀이 참여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놀이참여자로 놀이하기를 실행하기 위한 가정연계의 자세한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놀이참여자로 놀이하기의 가정연계 내용

구분	활동 내용	활동방법	방식	형태 (결과)
놀이 준비 / 놀이 마무리	김장하기	사전활동-김장 경험 이야기 전송하기 사후활동-김장 소감 나누고 전송하기	비대면 (스마트 알림장)	반별 전체 (21가정)
	산타잔치	사전준비-부모 성탄 영상카드 전송하기 사후활동-산타잔치와 교사 영상카드 보기		
놀이 참여 (본활동)	생일축하 프로그램	사전준비-생일PPT 완성하여 보내기 사후활동-생일 영상 자녀와 함께 보기	비대면 (이메일, 스마트 알림장)	개별 (7가정)
	김장하기	엄마 아빠와 함께 김장하기 반별 김장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엄마 아빠와 김장 음식으로 식사하기	대면	반별 전체 (21가정)
	산타잔치	산타와 만나기 엄마 아빠와 함께 만나기(ZOOM) 엄마 아빠의 영상 카드 보기	비대면 (ZOOM)	

생일축하 프로그램	인사 나누기, 생일 축하하기, 성장 이야기와 놀이 이야기하기, 엄마(아빠) 그림책 읽어주기(선택)	개별 (7가정)
놀이 이야기	반별 놀이에 ‘놀이 이야기’를 통해 참여하기	비대면 (스마트 알림장) 씨앗반 전체

### 가. 놀이 준비와 놀이 마무리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기

‘놀이 준비와 놀이 마무리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기’는 사전활동, 사전준비, 사후활동의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사전활동과 사전준비는 놀이 준비를 위한 방안이며 사후활동은 놀이 마무리의 실행방안이다. 또한 사전활동과 사후활동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며 사전준비는 영유아의 참여 없이 부모만 참여하는 것으로 차이를 두었다. 각각의 실행방안은 김장하기, 산타잔치, 생일축하 프로그램에 적용되었으며 김장하기는 사전활동과 사후활동으로 실행되었다. 산타잔치는 사전준비와 사후활동으로 생일축하 프로그램은 사전준비와 사후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부모들이 김장하기를 행사의 하나로만 여기지 않고 교육과 연관된 의미 있는 놀이 활동으로 인식하도록 김장하기를 ‘부모참여수업 김장하기 놀이마당’으로 명칭 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들은 또한 부모들이 김장하기를 의미 있는 놀이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놀이를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전활동과 사후활동 과정을 갖도록 하였다. 다음은 김장하기의 사례이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김치 또는 김치가 들어간 음식’에 관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어보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꽃잎반 스마트 알림장 공지, 2022. 11. 4.)

씨앗반은 ‘피클 담그기’ 활동을 합니다. (중략) 다음 주 월요일까지 스마트 알림장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채>를 소개해주세요~아이들이 야채를 먹고 있는 사진이나 야채를 탐색하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교실에서 살펴보고, 곧 부모님과 함께할 피클 담그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씨앗반 스마트 알림장 공지, 2022. 11. 4.)

김장하기 놀이 준비를 위한 사전활동으로 꽃잎반은 가정에서 김장과 김치로 만든 음식에 대한 활동으로 안내하여 주말 놀이 이야기로 받았다. 씨앗반은 영아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들만 참여하여 김장을 하고 영아들은 부모들과 함께 김치 대신 피클 만들기로 활동내용을 정하였다. 교사들은 피클 만들기를 계획하게 된 이유와 함께 사전활동을 안내하여 부모들이 놀이 준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가정에서의 놀이 준비하기 사전활동 결과는 어린이집에 전달되었고 어린이집에서는 사전활동에 대한 놀이 이야기를 다시 가정으로 보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오늘은 아현이와 함께 금요일에 엄마, 아빠와 함께 김치를 만들러 온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장 초대 영상을 찍어보았답니다. 아이들이 김치 만들 때 필요한 재료에 관심을 가져서 김장재료를 파는 채소가게 놀이도 하고, 김장재료들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했답니다. 아현이가 김장재료들을 보면서 어떤 김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과일로 만든 김치도 있고, 오징어가 들어간 김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오징어 김치와 과일 김치를 만들어 상을 차려주기도 했답니다. 채소가게를 연 서영이 언니에게 가서 선생님의 마늘, 고추, 배추 심부름을 매우 잘하기도 했어요.

(꽃잎반 교사 스마트 알림장, 2022. 11. 16.)

영유아들이 부모들과 함께 김장하기 놀이마당을 위해 가정에서 했던 사전활동들은 주말 놀이 이야기로 어린이집에 전해졌고 어린이집에서의 역할 놀이와 미술 활동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등으로 이어졌다. 꽃잎반에서는 사전활동이 동기가 되어 유아들이 엄마와 아빠 모두가 참여하기로 한 김장하기 놀이마당에 대한 기대를 담아 초대 영상 만들기까지 연결하였다.

김장하기 놀이마당의 본 활동이 끝난 다음 놀이를 마무리하는 단계의 사후활동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사후활동의 사례이다.

오늘 김장 사후활동 가정연계를 위해 부모님께서 (오늘의 김장김치를 주제로 주말에) 찍은 우리 집, 우리 아이의 김장과 식사 사진을 알림장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알림장 내용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고 김장에 대한 뒷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새싹반 교사 스마트 알림장, 2022. 11. 17.)

11월 3주 놀이 이야기(주간보육계획안)를 보내드립니다. 주말 동안 아이들과 어린이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피클 담그기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아이들의 반응을 스마트 알림장으로 보내주세요. 또 부모님께서 담근 김장 김치를 아이들이 살펴보거나 맛보는 사진과 함께 아이들의 반응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며 아이들과 어린이집에서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씨앗반 교사 스마트 알림장, 2022. 11. 18.)

김장하기 전체 부모참여수업이 끝나고 교사들은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사진을 전송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김장하기 놀이마당을 회상하고 가정으로 가져간 김치를 함께 먹어 보도록 안내하며 사후활동으로 놀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사후활동과 관련한 또 다른 사례들이다.

보내주신 김장하기 영상 보면서 아현이는 김장을 직접 해보니 손도 냄새도 조금 매워서 힘들었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재미있었다고 하네요. 빨리 납작해져서(익어서) 먹고 싶다고 합니다. 주말에 삼촌이 놀러 올 거라 그때 꺼내서 먹어 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꽃잎반 교사 스마트 알림장, 2022. 11. 23.)

그날 일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친구들은 어땠는지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본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며 재미있어 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부모참여수업 모바일 평가 결과, 2022. 11. 23.)

각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의 안내에 따라 사후활동을 진행하였고 가정에서 김장에 대해 나눈 이야기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김장김치로 식사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주말 놀이 이야기로 보냈다. 어린이집에서는 김장하기 놀이마당의 사전활동, 본 활동, 사후활동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김장하기 부모참여수업 모바일 평가서와 함께 다시 가정으로 보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영아들과 함께 영상을 보며 어린이집에서 함께 했던 놀이를 회상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다음은 부모들만 참여하여 놀이를 사전에 준비한 산타잔치에 대한 사례이다.

교사: 다음 주 12/22에 산타 잔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타를 만나기 전 아이들과 부모님이 보내주는 영상편지를 함께 감상할 예정입니다. 아이에게 해주시고 싶은 칭찬, 덕담을 촬영하셔서 오늘까지 꼭 보내주세요.

현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크리스마스 영상 보내드립니다.

교사: 어머니! 어머님, 아버님이 산타가 되셔서 현서가 더욱 좋아하겠어요!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씨앗반 교사-현서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12. 14.)

사랑어린이집의 산타잔치는 A사의 직원 중 한 명이 산타 옷을 입고 산타가 되어 영유아들에게 덕담을 해주고 선물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그동안 부모들은 산타잔치가 있을 때 카드를 써서 교사에게 전달하였고, 부모들의 카드를 산타가 영유아에게 읽어주는 방법으로 진행해왔었다. 연구자와 교사들은 산타잔치를 부모들이 참여하는 놀이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준비로 부모들의 영상을 받았으며 ‘깜짝 선물’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영유아가 참여하지 않고 부모들만 준비하도록 하였다. 위 사례의 현서 가정과 같이

사랑어린이집의 부모들은 다양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전송하였고 산타 잔치의 사전준비 영상촬영에 전체 부모가 모두 참여하였다. 다음은 ‘생일 축하 프로그램’의 사전준비 사례이다.

송부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수인이 생일 PPT 자료 보내드리니 검토해 봐주세요. 급하게 만들어서 음량이나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수정해서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수인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와 삼촌이 이 영상을 꼭 넣어달라고 해서 추가했습니다. 번거롭게 헤드려 죄송하지만 이것으로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때문에 좀 길어져서 사진은 빠르게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새싹반 수인 아버지 이메일, 2022. 11. 8~9.)

안녕하세요. 남호 엄마입니다. 생일자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마지막 페이지 영상이 제대로 재생 (버퍼링/소리 등) 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로컬 PC 환경에서는 잘 보였는데, 회사 클라우드 PC로 옮겨지고 보니 재생에 오류가 있어 보여서요. 해보시고 이상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싹반 남호 어머니 이메일, 2022. 2. 4.)

사랑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생일행사를 생일 월이 같은 영유아들이 함께 하도록 진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축하해 주었다. 이를 가정연계 부모일일 참여활동으로 진행하여 부모가 어린이집에 와서 자녀의 생일을 축하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부모들은 사전에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기본 자료에 자녀의 성장 사진이나 영상 등을 삽입하고 완성하여 다시 어린이집에 보냈다. 부모들은 자녀의 생일축하 프로그램에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참여하였으며 다른 영유아들에게 자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었다. 연구자는 생일축하 프로그램에도 부모들의 놀이준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모들은 사전준비 생일 PPT 완성하기에 자녀의 놀이 이야기나 관련 영상을 추가하며 놀이에 대한 사전준비에 참

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활동, 사전준비, 사후활동은 각각 놀이 준비하기, 함께 놀이하기, 놀이 마무리하기의 과정이다. 연구자는 부모들이 이러한 과정의 가정연계에 참여하여 영유아들과 함께 하는 놀이의 가치를 알고 놀이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 나.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놀이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기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놀이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기’는 어린이집에서 준비하고 계획한 김장하기 전체 부모참여수업의 본 활동, 부모일일 참여활동인 생일축하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연계의 일상적인 놀이에 참여하기로 진행하였다. 김장하기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대면 참여로 이루어졌고 생일 축하프로그램과 가정연계 일상적인 놀이 참여는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스마트 알림장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3차 실행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반 전체 대면 참여 김장하기 부모참여수업은 2022년 11월 17일과 18일, 2일간 반별로 진행되었다. 17일 첫날 점심에는 새싹반, 18일 점심은 꽃잎반, 저녁은 씨앗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21가정의 부모들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김장하기가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김장을 해보고 식사한 다음 헤어지는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부모들이 김장하기를 교육을 위한 놀이와 놀이를 통한 교육 활동으로 인식하도록 사전과 사후활동의 과정으로 정리하여 부모들에게 안내하였다. 김장하기 부모참여수업은 본 활동으로 진행되었고 사전활동-본 활동-사후활동에 대한 모바일 부모평가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김장하기에 대한 부모들의 모바일 평가내용이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엄마가 왔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집에서 작년처럼 함께하는 것(비대면 줌 접속 김장하기)도 좋지만 그런 면(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대면 체험이 훨씬 좋았던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실에서 직접 아이와 하니까 자신이 생활하는 곳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아이에게 더 가깝고 즐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 생활, 친구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 좋았고 부모님들 간 인사하는 시간을 갖게 돼 좋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엄마와 함께 김장한다는 것 자체를 즐거워했고 김장을 준비하는 과정이 축제와 같이 신났습니다!

(비대면 사전활동으로) 김치에 대한 흥미를 끌어 올린 후 진행해서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예전보다 김치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 이후에 시은이도 본인과 가족이 함께 만든 김치라서 그런지 더 적극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도 그 이야기를 자주 해줘 아이에게 더 자신감을 북돋아 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부모참여수업 모바일 평가, 2022. 12. 22.)

위 평가 결과들을 통해 부모들이 김장하기 부모참여수업을 즐거운 시간, 축제로 표현하면서 영유아들과 함께 한 즐거운 놀이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은 가정연계 과정을 통해 김장하기를 단순한 놀이 경험으로 보지 않고 부모참여수업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육적인 목적과 효과를 느끼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행사에 반 전체 부모들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여 유아들과 함께 산타잔치를 즐긴 사례이다.

반 전체 공지: ZOOM으로 진행되는 산타잔치는 '11:20~11:40'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략)

교사: 오늘 산타잔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타할아버지를 만나서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노래도 아주 열심히 잘 불렀답니다. 그리고 (부모

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과 함께 윤수의 영상을 만들어보았어요. 함께 감상해 보시며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윤수 어머니: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주신 영상도 줌으로 초대해주신 파티도 모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꽃잎반 교사-윤수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12. 22.)

교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영상 보내드립니다. (산타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재빈이를 위한) 산타할아버지의 편지도 있으니 함께 시청하며 이야기 나눠보세요!

재빈 어머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영상이네요. 재빈이가 영상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선생님 얼굴 나올 때마다 반가워했구요.

(씨앗반 교사-재빈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12. 22.)

연구자는 그동안 영유아들만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한 산타잔치에도 부모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사들과 의논하여 반별로 부모들에게 적합한 참여방식을 정하였다. 영아반인 씨앗반과 새싹반은 영유아들이 산타와 만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행사가 끝난 후 부모들에게 전송하여 비대면으로 참여하게 하였고, 유아반인 꽃잎반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부모들이 산타잔치 행사에 비대면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놀이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기’는 김장하기와 산타잔치의 연간 행사 가정연계 외에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생일축하 프로그램과 가정연계 놀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진행되었다. 다음은 부모일일 참여 활동 ‘생일축하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이다.

교사: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찬민이 생일축하 파티(프로그램)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민이 아침부터 생일파티 준비해놓은 책상보며 “찬민이 생일이야!” 하며 무척 신나 했어요. “생일 언제 해?”, “아직 아니야?” 하며 놀이 중간 중간 묻기도 했습니다. 꽃잎반과 새싹반 형님들도 찬민이 생일 축하 해주러 놀러 왔답니다. (중략) 찬민이 엄마, 아빠랑 씩씩하게 인사 나

눈 뒤 (ZOOM을 통해서) 점심도 맛있게 잘 먹고 케이크도 2번 먹었습니다. (중략) 생일파티 하느라 피곤했는지 양치하고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찬민 어머니: 선생님! 찬민이 생일축하 자리 멋지게 만들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찬민이 부끄러워하는 모습, 저요! 저요! 하는 모습, 상장 사랑하는 모습 너무 귀엽고 대견하네요.

(씨앗반 교사-찬민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11. 9.)

찬민의 생일축하 프로그램에는 찬민이 부모가 모두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였고 씨앗반 영아들과 함께 꽃잎반 유아들도 참여하였다. 부모는 찬민의 성장 이야기를 찬민이와 영유아들에게 직접 들려주었고 영유아들은 대형 텔레비전 화면으로 찬민이 부모가 준비한 영상과 사진들을 함께 보며 참여하였다. 3차 실행 기간에 7명의 영유아들이 생일축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모두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였다. 7명의 영유아 모두 부모가 동시에 참여하였으며 각각의 직장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하였다. 영아반 부모들은 주로 놀이에 대한 영상을 삽입하였고 유아반 부모들은 자녀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만들어 읽어주기도 하며 영유아들과 함께 놀이에 참여하였다.

3차 실행의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놀이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놀이하기’는 1차 실행에서부터 지속해오고 비대면 가정연계의 중심이 된 ‘놀이 이야기’를 가정연계에도 적용되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부모님들께 영아들이 최근에 흥미를 보이는 손유희 동영상을 찍어 어린이집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영아들이 부모님들의 영상을 보며 손유희를 따라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놀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놀잇감을 제시할 예정이다

(씨앗반 E교사 일일보육계획안, 2022. 11. 25)

보내주신 손유희 영상을 지연이랑 씨앗반 친구들과 함께 봤어요. 역시나 지연이는 영상 속 엄마 아빠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며 좋아하였답니다. ‘하하하 재밌어!’라며 엄마 아빠를 따라서 손동작을 따라해 보았어요. ‘아빠는 왜 노래를 안

부르지? 아빠 너무 웃겨!’ 하면서 아버님을 보고 재밌어하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 영상 찍을 때 지연이 옆에 있었냐고 물어보니 지연이는 방에서 고양이랑 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씨앗반 교사 스마트 알림장, 2022. 11. 28)

새싹반에서 영아들의 손유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와 관련된 놀이가 진행되면서 교사들은 직접 손유희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가정으로 보내기도 하고 영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손유희 영상을 가정으로 보내기도 하며 손유희에 대한 가정연계 놀이를 진행하였다. 교사들은 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참여와 영아들과 함께 하는 놀이를 위해 부모들이 촬영한 영상을 주말 놀이 이야기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모들이 보낸 손유희 영상을 보고 새싹반 영아들도 따라 하며 놀이하였고 이는 영아들의 놀이 이야기가 되어 가정으로 보내졌다. 새싹반의 가정연계 놀이 이야기를 통한 함께 놀이하기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 ② 놀이주도자로 놀이하기

‘놀이주도자로 놀이하기’는 부모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놀이에 부모가 영유아와 함께 참여하여 놀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첫째,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 방법을 찾고 놀이를 계획하기, 둘째, 부모가 준비한 놀이에 함께 참여하기이다. 이 방안은 부모들이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를 방법에 맞게 놀이를 계획해보고 자녀와 함께 할 놀이를 준비하고 함께 놀이를 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놀이주도자로 놀이하기는 자녀와의 놀이에 부모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단계이며 부모들은 개별 및 소그룹의 형태로 참여하였다.

첫째,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 방법을 찾고 놀이를 계획하기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놀이와 놀이 방법에 대해 교사와 의논하며 놀이를 준비하는 과

정이며 스마트 알림장을 이용하여 교사와 소통하는 비대면 방식을 적용하였다. 둘째, 부모가 준비한 놀이에 함께 참여하기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대면 참여방식의 가정연계이다. 이 방안은 부모가 놀이를 준비한 다음 어린이집에 와서 자녀 그리고 또래 영유아들과 함께 놀이하는 것이다.

놀이주도자로 놀이하기는 사랑어린이집에서 가정연계 부모일일 참여활동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1~3명의 부모가 개별 또는 소그룹으로 참여하였고 참여한 부모들의 신청에 의해 대상이 정해졌다. 놀이주도자로 놀이하기의 자세한 가정연계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놀이주도자로 놀이하기의 가정연계 내용

형태	활동내용	활동방법	방식	형태 (결과)
개별	내용 정하기	놀이 방법 찾고 놀이 계획 의논하기	비대면	
	놀이에 참여하기	인사 나누기, 활동 소개하기, 활동하기 (식빵 쿠키 만들기, 종이접기, 쿠키 굽기) 함께 점심 식사하기, 그림책 읽어주기		씨앗반 2가정 새싹반
	원장-부모 면담	가정연계, 부모참여활동 소감 나누기	대면	3가정 참여
	원장-교사 교사면담	부모참여활동 평가		
소그룹	내용 정하기	놀이 내용 정하기 놀이 방법 안내하기 가정에서 놀이 이야기 나눠보기	비대면	씨앗반 3가정 1그룹, 2가정 1그룹
	놀이에 참여하기	인사 나누기, 활동 소개하기, 활동하기 (재활용품 놀이, 신체 놀이하기, 산책하기)		
	원장 부모 면담	소감 나누기	대면	꽃잎반 3가정 2그룹 참여
	원장-교사 교사면담	부모참여활동 평가		

### 가.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 방법을 찾고 놀이를 계획하기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 방법을 찾고 놀이를 계획하기’는 부모들이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를 찾아 함께 할 놀이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부모가 놀이를 중심으로 한 가정연계 과정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자녀의 놀이 성향을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다. 개별 및 소그룹 대면 참여를 신청한 부모들은 영유아들과 함께 놀이와 놀이 방법에 대해 교사와 스마트 알립장을 활용하여 사전에 조율하여 정하였는데 다음은 그와 관련된 사례이다.

그럼, 참여활동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할 수 있으실까요? 아이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거나, 도움을 살짝 받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종이접기 활동을 2~3가지 준비해주세요. 남호가 집에서 많이 접었거나 좋아하는 모양이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새싹반 교사-남호 어머니 스마트 알립장, 2022. 12. 28.)

오늘은 수인이 어머니, 아버님이 종이접기 선생님이 오셔서 함께 색종이를 접어보았어요. 남호가 설명을 듣고는 정말 잘 따라 하더라고요. 내일 남호 엄마가 오셔서 색종이 선생님이 되어주실 거라고 하니 너무 좋아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이접기의 예시를 보내 드립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쉬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호가 색종이 책에서 골랐어요. 꼭 먹을 것을 접고 싶다고 하네요.



(새싹반 교사-남호 어머니 스마트 알립장, 2023. 1. 2.)

남호 어머니와 수인이 부모님이 정한 놀이 활동은 남호와 수인이 그리고 새싹반 영아들이 몰입하여 빠져있던 종이접기 놀이였다.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난이도 차이가 큰 종이접기에 대해 교사들은 위 사례와 같이 사전 비대면 가정연계 과정을 통해 부모들에게 안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는 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를 생각하는 준비과정부터 놀이의 의미와 어린이집에서의 놀이와 교육의 연계에 대해 생각하도록 지원하였다. 다음은 요리 활동을 놀이 활동 주제로 선정하여 사전에 비대면 가정연계 과정을 통해 준비한 사례이다.

교사: 해인이가 요즈음 집에서 관심 보이는 놀이나, 어머니께서 해인리와 어린이집에서 함께 하고 싶은 놀이를 자유롭게 알려주시면 그중 적합한 놀이로 준비할게요.

해인 어머니: 해인리에게 물어보니 엄마랑 요리를 같이하고 싶다고 해요! 쿠키 굽기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새싹반 교사-해인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12. 30.)

반 전체 공지: 이번 주 1/5(목) 해인리 어머니가 오셨을 때는 쿠키 굽기를 해보려고 해요.

교사: 해인리와 어떤 모양을 하면 좋을지 등 쿠키 굽는 이야기를 나누고 오신 다음 어머니께서 진행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인 어머니: 하트, 동그라미, 별, 네모 모양 쿠키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새싹반 교사-해인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3. 1. 2.)

교사: 내일 할 쿠키 재료들을 준비해두었는데 새싹반 친구들이 모두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오늘은 연습으로 조금만 쿠키를 만들어 보았어요. (중략) 해인리에게 내일 엄마가 오시면 같이 쿠키 많이 만들고 포장해서 집에 가져갈 거라고 했는데 많이 좋아했어요.

해인 어머니: 와~아이들 오늘 한번 해봐서 내일 더 잘하겠네요. 내일 11시까지 가겠습니다.

(새싹반 교사-해인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3. 1. 4.)

해인이 어머니는 해인이 좋아하는 과자 굽기를 선택하였고 비대면 방식으로 교사와 의논하며 영유아들과의 놀이를 준비하였다. 교사들은 해인 어머니의 참여 활동이 있기 전에 어린이집에서도 영유아들과 과자 굽는 활동을 해보면서 부모의 놀이 진행을 사전에 지원하였다.

#### 나. 부모가 준비한 놀이에 함께 참여하기

부모가 준비한 놀이에 함께 참여하기는 1~3명의 부모가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놀이를 이끌어 보며 영유아들과 함께 놀이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방문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교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였다. 부모들은 대면 참여가 있기 전에 준비한 놀이를 어린이집에서 직접 진행하며 자녀 그리고 자녀의 또래들과 놀이하였으며 교사들은 부모들의 놀이 진행을 보조하거나 부모들이 영유아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교사: 수인이가 엄마, 아빠 오기 전에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시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수인이가 지내는 일과를 엄마 아빠께 알려드리며 뿌듯해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중략)

수인 아버지: 어린이집에서 기획하시고 시도하시는 이런 활동들이 정말 의미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활동에서 수인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기질은 어떤지, 교우 관계는 어떤지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었고, 수인리와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학부모가 참여해서 정신없는 활동이 아니라 부모님마다 시간을 할당해주셔서 활동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소수 인원 참여활동) 특히 더 좋았습니다. 종이접기 연습을 여러 개 했는데, 난이도 조절 실패로 가장 귀여운 멍멍이를 못 해서 아쉽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고 책 읽거나 종이접기를 또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새싹반 교사-수인 아버지 스마트 알림장, 2023. 1. 2.)

수인이의 경우 부모가 동시에 영아들과의 놀이에 참여하였다. 놀이 방법에 대해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당일 수인이의 부모는 영아들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부모는 영유아들과 함께 놀이하며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과 수인이 또래들의 놀이도 살펴볼 수 있었고 이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수인이 부모가 교실에서 참여활동을 끝낸 후 교사들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연구자는 부모와 원장실에서 간단한 면담을 하며 대면 참여로 영유아들과 함께 한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평가와 소감에 대해 들어보았다.

연구자: 아이들하고 직접 놀이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 준비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남호 어머니: 어제 (수인이 엄마 아빠가 오셔서) 종이접기를 했다고 해서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애들이 (종이접기를) 또 하면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 남호가 되게 좋아했어요.

연구자: 요즘 새싹반에서 계속 진행된 놀이가 종이접기죠?

남호 어머니: 네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도 계속 종이접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중략) 사실 어제 업무가 늦게 끝나 준비도 많이 못 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해서 저도 기분이 참 좋아요. 아이들한테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모르는 거는 도와 달라고 하는 거 보고 다행스러웠고 남호는 엄마가 왔으니까 다른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었어요.

(원장-남호 어머니 면담, 2023. 1. 3.)

연구자와 교사들은 부모에게 놀이 진행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부모들의 참여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영유아들과의 놀이를 방해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었다. 그러나 부모들에게 미리 놀이를 정하고 준비할 기회를 주고 지원하여 당일의 놀이를 주도해보도록 한 것이 더 의미 있고 즐거움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소그룹 부모참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교사들의 권유로 그룹이 정해졌다. 교사들은 영유아들의 놀이 성향과 개별 및 소그룹 대면

참여 기간에 형성된 영유아들의 놀이 그룹에 따라 참여할 부모들을 정하였다. 참여할 날짜와 시간은 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정하였다. 부모들은 스마트 알림장과 등·하원 시간 등을 이용하여 교사와 영유아들이 좋아하는 놀이에 대해 의논하였다. 부모들은 또한 교사와 의논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자녀들과 함께 놀이하고 싶거나 놀이 방법에 자신 있는 놀이를 정하였다. 놀이가 정해진 다음 교사들은 부모들과 의견을 나누며 구체적인 놀이 방법을 정하고 다음 사례와 같이 안내하여 부모들의 놀이 참여를 지원하였다.

내일 이루어지는 부모참여활동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두 팀씩 나누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활동을 시작하기 전, 아버님들께서 준비해 오신 간단한 스트레칭을 교실에서 함께 하고 첫 번째 팀부터 유희실에서 체육 활동이 진행됩니다. 아버님께서는 계속 지연이와 함께 유희실에서 활동하려고 해요. <3, 4번째> 쪽에 계시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봐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아버님들께서 일일 체육 선생님이 되어 활동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 11시까지 와주셔서 아이들과 놀이하신 뒤 점심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원장님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씨앗반 교사 스마트 알림장, 2023. 1. 12.)

씨앗반에서는 세 명의 아버지가 소그룹으로 참여하였다. 아버지들은 각각 휴게시간 활용, 업무시간 조정, 반차 휴가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자녀들과의 놀이에 참여하였다. 놀이 방법은 대근육 움직임이 활발해진 씨앗반 영아들을 위해 신체활동 놀이로 정하였고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영유아들과의 놀이에 참여하였다. 아버지들의 놀이 참여 결과는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어머니들과 씨앗반의 전체 가정에 공유되었다.

교사: 바쁜 시간 내어 부모참여활동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덕분에 아이들 모두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지연 어머니: (지연이가) 아빠랑 함께하는 오늘만 기다렸었는데 재밌게 잘 놀았나 봐요. (중략) 집에 오면 오늘 하루 어땠는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씨앗반 교사-지연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3. 1. 13.)

소그룹 신체활동을 함께 진행한 아버지들은 놀이가 끝난 후 영유아들과 점심을 함께 한 뒤 놀이 참여를 마쳤고 점심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와 소그룹 면담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놀이 참여에 대한 아버지들의 이야기들이다.

재빈 아버지: 재빈이 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연 아버지: (스마트 알림장 비대면 가정연계가) 처음에는 그 내용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다가 선생님의 피드백을 보고 어린이집에서 그걸 활용해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정민 아버지: 저는 어린이집에 되게 와 보고 싶었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잘 놀고 있는 것 같고 와서 보니까 놀이도 이해가 잘 되네요.  
(원장-씨앗반 아버지들 소그룹 면담, 2023. 1. 13.)

위 사례와 같이 씨앗반의 아버지들은 대면 참여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함께 영아들의 생활을 직접 보았을 때 그동안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한 가정연계 과정이 훨씬 더 잘 이해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은 유아반의 사례이다.

교사: 오늘 서영이는 꽃잎반에 오신 지수 어머니, 현서 어머니, 윤수 아버님과 즐겁게 놀이했습니다. 지수 가정에서 만들어온 피카츄 보드게임도 아주 즐겁게 하고요. 윤수 아버님과 그리고 윤수와 함께 가족처럼 재활용품 게임을 했습니다. -서영 알림장

교사: 지수 어머니, 내일 참여수업은 11시입니다. 늦지 않게 방문 부탁드립니다. 또 지수와 함께 만든 재활용품 게임 및 만들기가 있다면 내일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소개하실 내용이 없다면 어린이집에 있는 재활용품으로 함께 놀이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사: 오늘 바쁘신 중 시간 내어 참여활동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소감 어땠는지 댓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지수 어머니: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재활용품 애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만드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즐겁게 만들기 활동할 줄 몰랐어요. 집에서 재활용품 같이 모으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세팅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지수 알림장

(꽃잎반 교사-부모들 스마트 알림장, 2023. 1. 6.)

꽃잎반 부모들의 놀이 참여는 모두 소그룹으로 진행되었고 위 사례는 두 번째 그룹의 이야기이다. 참여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 외에 다른 유아들과도 친숙하게 놀이하며 참여하였다. 부모들은 유아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스마트 알림장으로 보고 가정에서 유아들을 통해 들어왔던 유아들의 놀이 환경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되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가정연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다시 인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2) 3차 실행방안 평가

3차 실행에 대한 평가는 실행과정 중에 진행한 한 가지 형태의 참여활동이 끝난 이후 교사들과의 개별 또는 소그룹 평가 형식으로 자유롭게 수시로 하였고, 개별 또는 소그룹 부모참여활동이 진행된 23년 1월 3일부터 본격적

으로 하였다. 3차 실행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 ① 비대면 가정연계의 효과와 효율성 확인

3차 실행 중에 일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한 가정연계의 효과와 효율성이었다. 사랑어린이집의 비대면 가정연계는 부모들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상시적,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연계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코로나로 대면 가정연계가 어려웠던 1차 실행과 2차 실행에서 비대면 가정연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이미 확인되었었다. 대면 방식을 확대한 3차 실행에서 적용한 비대면 방식은 비대면 방식이 갖는 근본적인 장점 외에 대면 참여의 효과성과 가정연계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사들은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병행으로 대면 가정연계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였으며 다음은 관련 사례이다.

가정에서의 놀이 모습과 유사한 점, 다른 점이 모두 있다고 느끼셨고, 기존에도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가정에서 어떤 놀이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직접 보니 더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씨앗반 나은 어머니 부모참여활동 교사평가서, 2022. 11. 9.)

나은이 어머니는 비대면 가정연계 과정에서 알게 된 나은이의 놀이 모습을 대면 참여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나은이 어머니는 부모일일 참여활동을 통해 교실 안의 놀이 환경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가정으로 전송된 놀이 이야기가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직접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은 또 다른 사례이다.

A교사: 이전 부모참여활동이 부모님들과 일과를 공유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놀이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는 느낌이었어요.

연구자: 놀이 주제는 부모님들이 정하신 거죠?

A교사: 네 맞아요. 이번에는 대부분 다 부모님이 놀이 주제를 가져왔어요.

연구자: 만약에 비대면 가정연계를 안 해왔다면 어땠을까요?

A교사: 이번에는 대부분 다 부모님이 놀이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만약에 비대면 가정연계를 안 했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부모님들이)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가정연계를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이걸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상도 되는 것도 있었고,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어쨌든 스마트 알림장이나 놀이 뭘 봐도 자기 아이의 놀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좀 같이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거에 흥미 있을 것인지에 대해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놀이에 대한 공유 자체가 이번에 아주 잘 된 것 같고….

(A교사 면담, 2023. 1. 5.)

A교사는 대면 방식만으로 진행했던 이전의 가정연계와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한 가정연계를 비교하며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한 가정연계의 효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교사들은 대면 참여를 신청한 부모들이 비대면 가정연계를 통해 다른 영유아들의 놀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은 부모들과 교사 모두 대면 참여의 가정연계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음은 대면 참여를 비대면 방식으로 준비하는 과정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다.

사전에 어머니에게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질문하고,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하여 사전에 주말 이야기를 받아 가정과 연계가 이루어진 활동으로 계획할 수 있었다.

(씨앗반 재민 어머니 부모참여활동 교사평가서, 2023. 1. 11.)

위 내용은 재민이 어머니의 부모참여에 대한 교사의 평가서 내용의 일부이다. 씨앗반 교사들은 재민이 어머님과 대면 참여의 놀이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논을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

고 평가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들은 1차 실행에서 스마트 알립장을 이용한 비대면 가정연계 방법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고 비대면 가정연계를 지속할 방안을 2차 실행과 3차 실행은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3차 실행에서의 비대면 가정연계는 대면 가정연계와도 연계되어 대면 참여의 효과성을 높이게 되었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병행으로 부모들은 영유아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부모들은 3차 실행의 가정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놀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놀이를 주도해보며 교육과정 운영의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었다.

## ② 부모들의 놀이 참여에 대한 만족감과 놀이 주도에 대한 열의 확인

부모들이 놀이의 의미를 알게 되고 놀이 방법을 찾아 영유아들과 놀이를 직접 하도록 한 3차 실행에서 부모들이 비대면 방식과 대면 방식의 가정연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가정연계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부모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놀이에 참여한 것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고 이와 함께 놀이를 주도하는 것에 대한 열의를 나타냈다.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영유아들도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아현: 오늘이 어린이집에서 최고의 날이었어.

교사: 왜?

아현: 왜냐하면, 엄마랑 같이 놀고, 밥도 같이 먹어서 좋았어요.

교사: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할까?

아현: 네! 다음에는 할머니도 왔으면 좋겠다.

교사: 그래, 그럼, 다음에는 할머니도 오시라고 해보자.

(꽃잎반 유아들의 대화, 2023. 1. 4.)

꽃잎반에서 부모들이 놀이하고 간 다음 유아들은 부모들과 함께 한 놀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사에게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고 다른 가족들도 어린이집에서 하는 놀이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였다. 대면 가정연계에 대한 높은 만족감은 부모들에게서도 나타났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사례이다.

아이들과 함께 쿠키 만들기 하며 조물조물 스스로 모양을 만들고 꾸미는 것을 보며 많이들 성장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스스로 밥도 잘 먹고 양치하는 모습도 기특했어요. 즐거운 시간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싹반 해인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3. 1. 5.)

코로나 때문에 진짜 여기(어린이집) 문턱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건 사실이에요. 선생님들이 알림장 너무 잘 써주시지만 어쨌든 직접 보고 겪고 (아이들과) 얘기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중략) 어제는 일이 갑자기 늦게 끝나는 바람에 밤에 부랴부랴 새벽에 준비했어요. 준비를 많이 못 해서 그나마 (종이접기를) 쉬운 것으로 정했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 하는 것도 있고 어려워하는 것도 있는데 (중략) 잘 끝나서 다행이고...그런데 정말 재미있었어요(웃음).

(원장-남호 어머니 면담, 2023. 1. 3.)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고 '내가 너무 이걸 못했다. 애들이 너무 어려워했다. 수준 맞추기를 내가 실패했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교사가 약간 반성하듯이 하셨어요. (웃음) 그런데 부모님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참여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하셨고 해인이 어머니는 또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중략) 이번에 참여 어렵다고 한 신지 어머님도 신지에게 얘기 듣고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받은 부모님들 추가 신청을 받아서 더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회의-A교사, 2023. 1. 20.)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참여한 대면 가정연계에 대한 영유아들의 높은 만족감과 기대감은 부모들의 대면 가정연계에 대한 참여 의지와 놀이에 대한 열의로 이어졌다. 부모들은 야근으로 피곤한 상황에서도 다음 날 계획된 대면 가정연계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여 놀이를 주도했다. 대면 가정연계를 마친 후에는 영유아들의 놀이 준비가 부족

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아쉬움을 만회할 기회를 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모들의 반응으로 대면 가정연계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아 1월 10일까지 종료하려던 대면 가정연계를 2월까지 연장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3차 실행에서 대면 참여를 확대하고 비대면과 대면 가정연계가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연계를 진행한 것은 부모들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병행 가정연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한 가정연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영유아와 부모 및 교사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1) 영유아의 변화**

연구자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부모 그리고 교사들과 가정연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점이 되었던 것은 영유아와 영유아의 놀이 그리고 놀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가정연계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사랑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변화를 놀이주도자와 놀이전달자의 역할 수행, 놀이로 인한 놀이에 대한 자신감 형성, 놀이 속에서의 문제 해결, 놀이를 통한 배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놀이주도자와 놀이전달자의 역할 수행

영유아들은 주말 동안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한 놀이를 스마트 알립장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의 원격 가정연계 주말 놀이 이야기로 전송받고 이것을 다시 어린이집에서의 놀이 주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놀이의 동기와 소재를 찾게 되었다. 영유아들은 또한 놀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들은 자신의 놀이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 선생님들이 지수가 요즘에 놀이하면서 언어 표현도 많아지고 목소리도 커졌다고 하시던데 가정에서는 어때요?

지수 어머니: 말보다는 놀이로 보여주더라고요.

연구자: 놀이요? 어떻게요?

지수 어머니: 어린이집에서 놀았던 거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모습을 따라 하기도 하고 예전보다 놀이를 주도적으로 하고 또 놀이도 다양해졌는데 그게 어린이집에서 하는 놀이더라고요.

(연구자 노트, 2022. 12. 9.)

연구 시작 당시 지수는 평소에 말수가 적고 표현이 많지 않은 편이었다. 어린이집에서 또래들과 놀이할 때는 물론 가정에서도 어린이집에서의 일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거나 전달하는 데에도 소극적인 편이었다. 어린이집에서 놀이할 때도 스스로 놀이를 제안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제의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정에서도 어린이집에서의 일을 말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지수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이 연계하게 되고 영유아들의 놀이를 우선에 두며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놀이를 주도하고 놀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적극성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의 재활용 놀이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례이다.

현서가 “엄마 나 이거 가져갈 거야 버리지 말아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먹고 빈 병이 나오면 “연수 형이 가져왔는데 나도 이거 가져갈래.”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께 혹시 이런 거 보내도 되는지 여쭙보기도 했어요.

(원장-꽃잎반 부모 소그룹 면담, 2023. 1. 6.)

꽃잎반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한 놀이가 활발해지면서 유아들은 재활용품 모으기에 대한 교사들의 권유가 없어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꽃잎반에서 시작된 재활용품 놀이는 환경교육이나 만들기를 위해 계획된 활동이 아니었고 유아들의 놀이로 확장된 활동이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유아들과 가정에 재활용품을 모아서 가져오라고 안내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활용품 놀이가 지속되고 확장되면서 유아들이 가정에서도 재활용품과 재활용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부모들에게 요구하여 어린이집으로 가져오게 되었다. 교사들이 계획하여 주도하지 않아도 유아들이 관심을 두는 놀이를 위해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를 가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영유아들이 놀이에 보이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가 중심이 될 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의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친구들도 그냥 교사가 주도하는 활동보다는 확실히 더 몰입하는 것 같아요. (중략) 불꽃놀이를 그림으로 그릴 때도 아이들이 교사에게 교실의 불을 꺼달거나, 블라인드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먼저 하고 “(불꽃 모양이) 이런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가야 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A교사 면담, 2023. 1. 25.)

2세 새싹반의 불꽃놀이에 대한 활동을 통해 영아들이 자기 경험과 연결된 놀이에 대해 몰입하는 정도와 몰입의 효과를 알 수 있다. 교사는 불꽃놀이가 정연계로 시작된 불꽃놀이 그림 그리기 사례를 통해 영아들이 놀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또 영아들의 주도로 놀이가 진행

될 수 있는 것과 그에 따른 효과를 느꼈다고 하였다. 다음은 영아의 관심이 놀이를 주도하게 된 또 다른 사례이다.

신지: 어? 이거 뭐예요?

교사: 면봉이라는 거야.

신지: 나 이거 집에서 봤는데! 엄마가 씻고 나와서 귀 속속 했어! 물감 할래.

이거 붓 같아. 이걸로 할래. (교사가 물감을 짜주고 면봉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찍는다. 해인도 다가와 면봉 물감 찍기를 한다)

해인: 눈물 같아.

신지: (하늘에서 오는) 눈이야 눈!

(새싹반 E교사 일일보육계획안, 2023. 1. 27.)

위 사례는 가정에서의 경험과 교사의 즉각적인 지원으로 영유아들이 놀이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놀이를 주도하게 된 이야기이다. 영아는 가정에서의 경험과 교실 안의 사물을 연결하고 다시 사물과 자신이 생각한 물감 놀이를 연결한다. 영아는 물감 놀이를 위해 교사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또래를 자신의 놀이에 참여시키며 놀이를 주도하고 있다. 신지로부터 시작된 놀이에 해인이가 참여하고 두 영아는 면봉 붓으로 찍은 점에서 물감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다시 각자의 생각을 나누게 된다. 다음은 영아의 경험에 대한 교사의 지원과 영아의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준수: 기차! 기차!

교사: 기차 오는 거 틀어줘?

준수: 응!

교사: (휴대용 빔으로 벽면을 비춘다) 칙칙폭폭 기차 다가온다!

준수: 까아! 도망가!

교사: 기차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준수: (눈을 질끈 감는다.)

(씨앗반 F교사 개별 놀이기록, 2022. 12. 15.)

씨앗반에서는 12월에 눈이 오는 날을 본 다음 눈이 오는 영상을 영아들이 좋아하는 빛과 연결하여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교실 벽면과 블라인드에 비춰 보여주는 놀이를 했었다. 교사가 보여준 영상에는 눈 속에서 소리를 내며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의 모습도 있었다. 준수는 처음에 영상 속의 기차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피해 다른 곳으로 숨으러 갔었다. 일주일쯤 지나서 준수는 교사에게 기차를 보여 달라는 표현을 하였다. 준수는 다시 영상을 볼 때 숨거나 놀라지 않고 눈을 감으며 스스로 덜 놀라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기차 영상을 본 다음 준수는 기차놀이를 시작하였고 씨앗반 영아들은 준수의 기차놀이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례를 놀이기록으로 남기며 교사는 11월보다 발달한 준수의 언어표현력과 환경에 대해 적응하는 방법을 발견한 점 그리고 준수가 기차놀이를 씨앗반 영아들의 놀이를 주도하며 사회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 (2) 놀이로 인한, 놀이에 대한 자신감 형성

사랑어린이집 영유아들은 가정에서 부모들과 했던 주말 놀이 이야기와 영유아들의 놀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교사들의 놀이 지원으로 활성화된 놀이를 통해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영유아들은 부모들이 보낸 비대면 가정연계 주말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 경험을 회상하게 되었다. 또한 가정에서의 놀이 경험을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로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놀이 안에서 주인공이 되었고, 그로 인한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정민: (박스로 만든 화로와 음식 모형을 보며) 이거 뭐야?

교사: 정민이가 캠핑하면서 엄마, 아빠랑 먹었던 음식들인가?

정민: 맞아! (교실 벽에 다가가 주말 캠핑 사진을 보며) 이거 정민이야?

교사: 응~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정민이 사진이야!  
 정민: 정민이 조개 먹었어? 고기도 먹었어?  
 교사: 고기랑 조개 맛있었어?  
 정민: 응! 맛있었어. (다시 다가와 화로에 음식을 하나씩 올린다)  
 교사: 맛있겠다. (정민이는 조개껍데기를 화로 위에 올리고 집게로 조개를 뒤집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 한다) 먹어도 되나요?  
 정민: (조개를 건네며) 먹어!

(씨앗반 F교사 개별 놀이기록, 2022. 10. 12.)

정민: (책상 위 굴뚝 모양 과자와 빨대를 보며) 과자야? 과자 먹어도 돼?  
 교사: 응~먹어도 돼. (빨대에 과자를 끼운다) 과자 여기 빨대에 꽂아서 꼬지처럼 만들어 먹자!  
 교사: 오! 정민이 진짜 잘한다. 많이 끼웠네!  
 정민: 이제 먹어? 먹어?  
 교사: 응 먹어도 돼~

(씨앗반 F교사 개별 놀이기록, 2022. 10. 13.)

위 사례를 통해 영아가 가정에서의 경험을 놀이로 다시 표현하고 교사의 지원에 따라 놀이가 확장되고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영아가 자신감을 드러내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에서 교사는 가정에서 캠핑 놀이를 했던 이야기와 사진을 부모에게 스마트 알람장으로 받은 다음 날, 교실에 스마트 알람장으로 온 정민이 주말 이야기 사진을 게시해주고 캠핑을 연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준다. 영아는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놀이 속에서 언어적인 표현과 함께 교사와의 놀이를 주도하게 된다. 교사는 다음 날 영아의 관심에 맞춰 캠핑 음식과 같은 재료를 주고 영아와 함께 상호작용하고 대화를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영아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정할 기회를 주어 영아가 자신감을 표현하도록 지원하였다. 다음은 영유아가 놀이 속에서의 자신감을 형성하고 또 놀이를 통해 자신감을 드러낸 또 다른 사례들이다.

신지: 나랑 같이 놀래?

서연: 좋아!

신지: (빨대 블록을 가리키며) 우리 이걸로 뭐 만들까?

서연: 음 나는 엄마, 너는 아빠 어때? 우리 (빨대 블록으로) 집 만들어 살자!

신지: 좋아.

신지와 서연이가 빨대 블록들을 연결한다.

신지: 근데 아가는 어디 살아?

서연: 여기

남호: (떨어져 있는 곳에서 신지와 서연이를 보다가 다가와) 이렇게 끼우면...  
그런데...집 안으로 못 들어가 가! (남호가 빨대 블록을 다시 연결한다)



(새싹반 E교사 일일보육계획안, 2022. 12. 6.)

새싹반의 빨대 블록은 11월에 새로 구입하여 영아들에게 제공된 것이었다. 평소 블록을 좋아하던 남호는 처음에는 빨대 블록으로 평면구성만 할 수 있었다. 남호는 빨대 블록 놀이에 몰입하게 되었고, 새싹반 교사들은 남호가 빨대 블록 놀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놀이가 진행되던 어느 날 남호는 입체모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빨대 블록으로 입체 구성하기에 자신이 있었던 남호는 신지와 서연이의 방법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 남호는 신지와 서연이에게 스스로 다가가 친구들의 블록으로 집 만들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며 자신 있는 태도로 도움을 주게 된다.

놀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표현하게 되고 놀이 이야기들로 놀이가 활성화되면서 자신감이 상승하게 된 사례는 유아들에게서도 드러났다. 다음은 유아반 꽃잎반의 사례들이다. 첫 번째 사례는 부러워했던 친구의 ‘놀이동산 방문 주말 이야기’가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동산 만들기 놀이로 전환되고 놀이 형태와 놀이상황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아들의 자신감이 상승한 사례이다.

서영이는 놀이 집의 지붕 위에 올라가 서 있고 연수는 지붕 위에서 매트 위로 뛰어내린다. 놀이 집의 다른 면에서는 지수와 현서 그리고 아현이가 놀이 집의 창문을 밟고 지붕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C교사는 놀이 집의 다른 면에 서서 서영이 그리고 놀이 집의 지붕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지수와 아현이를 바라보고 있다. 실습 교사가 놀이 집의 지붕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아이들 옆에 서 있다. 교사가 놀이집의 창문 옆에 분해된 미끄럼대의 ‘ㄷ자’ 부분을 의자처럼 놓아주었고 지수가 밟고 올라서려고 한다. 받침대가 흔들려 두세 번을 시도하여도 올라가지 못한다. 아현이가 지그재그 모양처럼 된 미끄럼대의 부속을 들고 와서 ‘ㄷ자’ 받침과 놀이 집 창문 사이에 걸쳐 거치대를 만들어 밟고 올라간다.

(꽃잎반 놀이 동영상, 2022. 7. 15)

꽃잎반의 놀이공원 꾸미기는 놀이동산에 다녀온 유아의 주말 놀이 이야기가 유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시작되었다. 유아들은 꽃잎반 교실 안에 ‘캐치캐치 놀이동산 만들기’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고 놀이가 진행되면서 교실 안의 모두 교구와 기구가 다양하게 동원되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놀이공원의 놀이 기구처럼 만들어 놀이하기 위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곳이 필요했다. 유아들은 교실 밖 유희실의 놀이 집을 교실 안으로 이동시켜줄 것을 교사들에게 제안했고 교사는 놀이 집의 지붕을 해체해서 교실 안

으로 이동해준다. 유아들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놀이를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고 싶어 했다. 유아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기 위한 시행착오 과정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받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시도를 마음껏 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또한 지붕 위에 올라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자유롭게 해 보면서 호기심과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점점 확장되는 놀이에 필요한 제안을 교사들에게 주저함 없이 요청하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들이 자신이 생각한 방법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키우게 되었으며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다음 사례는 놀이 활성화와 놀이중심 교육을 위한 가정연계가 진행되는 동안 유아가 자신감을 형성하고 상승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교사: 안녕하세요. 오늘 지수가 인사 요일 노래를 스스로 나와서 크게 불러 주었어요. 너무나 씩씩하고 귀여운 목소리로 크게 불러준 지수에게 너무 잘 해주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지수 어머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수 노래 영상 찍어주셔서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지수가 요즘 자기 의사 표현도 조금씩 하고 (중략) 자신감이 좀 생기는 거 같아요!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니...자기 스스로도 (친구들 앞에) 나와서 노래 불렀다는 거에 감격스러워하는 것 같아 저도 보며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세세하게 지도해주시고 자신감 얻을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 영상 보고 감동 받았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수 아버지: 지수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잘 지도해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꽃잎반 교사-지수 부모 스마트 알림장, 2022. 11. 23.)

꽃잎반에서는 가정에서 보낸 주말 놀이 이야기를 매주 월요일 대그룹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의 발표력을 키워주고 가정의 주말 이야기를 모두 함께 공유하기 위해 자신의 놀이 이야기를 친구들 앞에서 말해보는 발표 활동을 진행해왔다. 평소에 말이 많지 않고 목소리가

크지 않던 지수는 어느 날 말하기보다 더 소극적이었던 노래하기를 친구들 앞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소리로 하게 되었다. 지수가 꽃잎반 유아들 앞에서 인사 노래를 하는 영상은 스마트 알림장으로 부모에게 공유되었고 지수 어머니는 지수의 변화에 크게 감동하게 된다. 지수의 스마트 알림장을 지수 어머니가 작성하고 답을 보냈었는데 이날은 지수 아버지도 지수의 모습을 보고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지수의 이러한 변화는 꽃잎반의 놀이중심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아중심 놀이들이 활성화되며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었다. 꽃잎반 교사는 지수의 변화가 학기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해졌다고 하였다.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처음에는 못 믿겠다고 하시기도 했고 우리 아이가 정말 발표를 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너무 좋다. 그렇게 반응을 해 주셨거든요. 평소에도, 상담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지수가 앞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한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그래서 감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었고… (중략)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는지 그렇게 막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었고 친구들 놀이 아니면 서영이 놀이 따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놀이하는 중간에도 자기 의견 얘기하고 (다른 아이들을) 따라 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생각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C교사 면담, 2023. 1. 15.)

교사는 학기 초에는 지수가 다른 친구들의 놀이 제안에 참여하는 형태로 놀이하러 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서서히 놀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2학기 말에는 스스로 놀이를 제안하거나 놀이를 주도하는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지수의 놀이에 대한 제안과 적극적인 표현은 지수의 스마트 알림장들의 기록과 꽃잎반의 일지에서도 확인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영유아들의 사례들을 통해 영유아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놀

이를 통해 놀이에 대한 동기가 더 강하게 부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들은 자신들의 놀이를 자유롭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사 표현과 결정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과 경험이 가정과 어린이집에 공유되면서 영유아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반복되었고 영유아들은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 (3) 놀이 속에서의 문제해결

놀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유아들이 자신들의 놀이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유아들이 놀이 속에서 발생한 갈등이 감소하거나 문제들이 해결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다음은 영유아 간에 발생한 갈등에 대한 사례들이다.

아이들이 다투게 되는 원인이 기관에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 자체가 너무 아이들을 지루하게 하는 등의...그런데 저희는 그럴 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놀이하게 해서 욕구를 계속 충족시켜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계속 흥미를 느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중략)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블록 같은 경우 개수를 충분하게 2~3세트씩 주어야 했고, 그렇게 주어도 결국은 나중에 그것도 개수가 모자란다고 다투거나 그 블록의 특정 색깔이나 모양 가지고 다시 싸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제가 예전에 2세 담임했을 때는 많이 있었거든요.

(A교사 면담, 2023. 1. 25.)

연수: (의자 3개를 뒤집어 겹쳐 놓는다) 올라가도 돼요? (교사를 보고 웃는다)

교사: 네 올라가도 돼요. 그런데 뭐 만드는 거야?

연수: 전망대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려고요.

서영: 나도 책상 뒤집을래.

지수: 나도 뒤집을 거야!

서영: 책상이 모자라는데~ (연수, 서영, 아현이가 서로 책상과 의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교사: 너희가 되고 싶은 경찰, 피겨스케이팅 선수, 소방관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어때?

지수, 서영, 아현, 연수: 좋아요! (뒤집어 놓은 반달 책상 위에서 아이들이 차례로 뛰어내린다)

서영: 나는 소방관이 될 거야!

지수: 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꽃잎반 B교사 일일보육계획안 및 놀이 동영상, 2023. 2. 3)

사랑어린이집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진행으로 영유아들의 욕구가 충분히 발산되면서 영유아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빈도가 낮아졌다고 하였다. 영유아들은 원하는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민감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 교사의 지원은 영유아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영유아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가진 가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은 영유아들이 놀이상황 속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례들이다.

연수: (종이상자 3개를 가지고 와서) 이걸 다 연결하자! 선생님, 다 붙일래요!

교사: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

연수: (종이테이프로 종이상자를 연결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연결한 상자 안에 들어가 앉는다) 이렇게 하면 찢어져 안 될 것 같아요. (종이상자를 가리키며) 여기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긴 끈을 가지고 와 길이를 재어 보고 자른다) 길이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중략) (종이상자 기차에 끈을 연결하여 친구들과 유희실에서 기차놀이를 한다)

연수: 혼자 끌기 너무 힘들어요. 둘이 끌어야 할 것 같아요! (현서에게 도와 달라고 한다)

(꽃잎반 B교사 일일보육계획안 및 놀이기록, 2022. 7. 6.)

신지: 어 선생님 여기에 장난감 빠졌어요!

지민, 남호: 어디? 어디?

지민: 어? 정말이네! 어떻게 하지?

신지: 팔이 안 닿아!

남호: 내가 해 볼게, 안 되네~  
지민: 이 막대로 해 볼까?  
남호: 나는 더 긴 막대 가져올게.  
해인: 아니면 교구장 밀어서 이렇게 하면 어때? 다 비켜봐! 우리 이거 밀자.  
나 도와줘!  
지민, 남호, 신지: 알았어!  
교사: 선생님도 도와줄게.  
신지: 와 꺼내기 성공! 휴~  
지민: 여기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

(새싹반 E교사 일일보육계획안, 2022. 11. 21)

위 사례들을 통해 영유아들이 놀이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며 방법을 찾아보거나 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고 친구들과 의논해보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한 방법에 대해 교사와 또래의 지원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놀이를 통한 배움

놀이를 중심으로 한 실행과정에서 영유아들은 다양한 형태의 배움을 찾았고 교사들과 부모들도 영유아들의 놀이와 놀이에 대한 표현을 통해 배움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유아들의 배움에 있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배워가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다음은 영유아들의 놀이 속에서 배움이 보이는 사례들이다.

영아들이 종이 벽돌 블록이 잘 무너져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며 우레탄 블록, 큰 와플 블록을 제공하였음. 영아들이 우레탄 블록을 높이 쌓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와플 블록으로 터널을 만들기도 하며 놀이했음.

찬민이가 터널을 만들고 싶어 해서 교사가 도움을 주어 터널을 만들었음. 찬민이가 만든 터널을 밟고 다니면서 ‘칙칙’이라고 이야기하여 교사가 ‘기차가 되었네’라고 얘기하자 찬민이가 말을 가리킴. 교사가 ‘바퀴가 있어야 해?’하고 묻자 찬민이가 공을 가지고 와 밑에 붙이는 흉내를 냄. 교사가 ‘공을 바퀴처럼 붙일까?’ 하고 이야기하자 찬민이가 고개를 끄덕여 테이프로 붙여 줌.

(씨앗반 D교사 일일보육계획안, 2022. 5. 9.)

위 사례는 교사가 영아들의 놀이를 지원하며 관찰한 장면이다. 교사는 처음에 영아들이 좋아하는 종이 블록을 주었고 쉽게 무너지는 종이 벽돌 대신 크고 다소 무게가 있는 플라스틱 블록을 주었다. 플라스틱 블록은 찬민이의 놀이와 교사의 지원으로 결국 바퀴 달린 기차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이어진 씨앗반의 놀이와 배움의 이야기가 다음 사례이다.

교사: 뭐 만들까? 점프할까?

준수, 정민: 뭘까? (교사가 와플 블록으로 사각 모양을 만들어준다. 다시 나온  
이가 와플 블록을 L자 모양으로 끼운다)

나은: 이거는 썩썩이야!

(씨앗반 D교사 놀이기록, 2022. 6. 22.)

영아들의 놀이를 따라가는 것은 종종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큰 와플 블록을 제시해주었을 때 상자처럼 만들어 의자, 탁자, 자동차 등으로 놀이할 생각밖에 못 하고 있었는데, 한 영아가 와플 블록을 직각으로 꿰고는 “이거는 썩썩이야.”라고 이야기하며 교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해 반에서 아이들이 한동안 와플 블록을 썩썩이라고 표현하며 열심히 끌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기차를 직사각형 모양으로만 만들다 보니 항상 와플 블록이 부족했는데, 아이들이 썩썩이를 연결하여 기차를 만들게 되자 반의 모든 친구가 기차를 만들어 탈 수 있게 되었다.

(D교사 저널, 2022. 12. 29.)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었고 영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있었다. 사고의 확장에 따라 영아는 바퀴가

필요할 때 교사에게 공을 보여주었고 큰 블록 두 개를 결합한 간단한 모양에서 기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놀 거리를 찾아내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영아가 스스로 놀이 속에서 발전된 생각을 표현한 이야기이다. 나은이의 쌍쌍이 이야기는 가정에서 쌍쌍이를 사고 주말에 타고 놀았다는 가정연계 이야기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새싹반 아이들은 블록 쌍쌍이 놀이를 다양하게 확장해 나갔다. 다음은 유아반 배움의 사례이다. 꽃잎반의 재활용 놀이는 잔반을 줄이고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하려는 교사의 생활지도에서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들에게 지구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되었고 유아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위한 재활용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교실 안에 재활용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놀이는 확장되고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현: 이걸로 미끄럼틀 만들기 하면 재미있겠다!

교사: 그렇구나. 그럼 이걸로는 뭐를 만들까?

아현: 이걸요! 뚜껑이 있으니까 도시락으로 하면 좋겠어요.

교사: 도시락 좋네.

아현: 이걸 볼링? 볼링 핀 만들까요?

(꽃잎반 B교사 개별 놀이기록, 2022. 11. 28.)

B교사는 처음에 유아들이 모아놓은 재활용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교사가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 모습을 유아들에게 보여주기만 했다고 했다. 이후 유아들의 관심이 형성되고 위 사례와 같이 유아들은 재활용품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하게 되었다. 교사가 보여주는 만들기에서 시작된 재활용품 활동으로 유아들은 종이 죽 만들기, 골집질 난로 만들기 등의 과학적 실험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호기심과 탐구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영유아들의 배움은 부모들에게도 전해졌으며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서영 어머니: 서영이가 이제 집에서 지구를 아껴 써야 한다고 하면서 불을 끈  
대요. 원래 진짜 안자는 아이인데 저녁 10시에 눕는답니다.  
아현, 현서 어머니: 어~너무 좋겠다. (박수 소리) 정말~ (중략)  
아현 어머니: 아현이는 재활용 놀이하면서 요즘에 계속 지구가 아파요~ 하면  
서 불 안 끄냐고 그러면서 막 쪼르르 가서 불 끄고... “불 안 끄고 그럼 지  
구가 아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머니들: (모두 웃음)

(원장-꽃잎반 부모 소그룹 면담, 2023. 1. 4.)

꽃잎반의 재활용 놀이는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효과로 나타났고  
유아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 가정에서 유아들이 지도하는  
결과까지 이어졌다. 유아들의 이런 변화로 부모들도 놀이에 의한 교육의 효  
과를 알게 되었다. 다음은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배움에 관심을 두게 된  
또 다른 사례들이다.

이진: 나 글씨 쓰고 싶어요.  
신지: 이제 신지 이름 쓸 수 있어.  
수인: 수인이도. (교사가 이름 도안을 준다)  
영찬: 이게 영찬이 이름이야. 너 건 어디 있어?  
지민: 신지는 혼자서 이름도 잘 쓰네.  
이진: 엄청 알록달록하지요.  
해인: 햇님(토끼인형)이도 이름 써 줄 거야. 햇님이 안아볼래?  
서연: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고 잘 붙였어요.  
남호: (붙인 이름을 보며) 남호 거랑 신지 거는 어디 있어?  
신지: 이름도 혼자 쓸 수 있어. 지민아! 지, 민 글자 알려줄까?  
수인: 수인이(이름 그림)는 무지개색이야! 이진이도 무지개색이니?  
(새싹반 E교사 일일보육계획안, 2023. 1. 10.)

현서가 원래 포켓몬에 관심이 없어서 TV로도 한 번도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수가 그걸 좋아하니까 책을 사달라고 해서 보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글자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B교사 면담, 2023. 1. 27.)

첫 번째 사례의 영아들은 이름 쓰기 도안 활동을 시작하면서 각자의 이름 도안이 있는 그림을 보면서 글씨와 도안에 대해 각각 다른 관심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아들은 모두 놀이를 통해 자기의 이름에 사용되는 글자에 관심을 갖고 글자를 알아가고 있다. 두 번째 사례의 현서 아버지는 2022년 3월에 연구자가 진행한 개정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부모교육에서 현서와 놀이하다 보면 무엇인가를 자주 가르치려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현서가 놀이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했다. 연구자는 현서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현서가 원하는 놀이를 충분히 하게 해주는 방법과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적인 관심이 형성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현서 부모는 꽃잎반에서 가정연계에 지속해서 참여해 온 가정이었고 2학기 담임교사와의 면담에서 현서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글자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 2) 부모의 변화

사랑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참여를 확대한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한 것은 부모가 영유아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해 신뢰하게 하고 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더 활성화하고 정확하게 운영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병행 가정연계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들의 변화는 놀이에 대한 관심 형성과 놀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확대, 놀이를 통해 나타난 자녀의 변화 인식, 교육과 놀이의 연결에 대한 이해 형성,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 (1) 놀이에 대한 관심 형성과 놀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 확대

본 연구에서 실행된 가정연계 과정에서 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었고 부모들은 영유아들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비대면 가정연계가 주로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부모들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주고받는 스마트 알림장의 놀이 이야기를 통해 영유아들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다.

교사: 지민이가 가져온 호비 놀잇감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한번 해 봐~! 할 친구는 장난감 정리하고 나한테 와~!” 하고는 빌려주기도 했어요. 호비 노래도 함께 들으며 놀이했답니다.

지민 어머니: 친구들에게 본인 물건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궁금하네요.

지민 아버지: 지민이가 요즘 자꾸 없는 얘기를 하네요. 오늘 가져간 호비 장난감도 선생님이 어린이집으로 가져오라고 했다고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지민 어머니: 아, 그건 이전에 화장용품 가방 저번에 못 가지고 놀아서 (김치 담긴 날) 선생님이 다음에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하던데 그건 맞을까요? ‘다시 가져와 → 지민이가 갖고 싶은 것’으로 이어진 듯 보였는데요.

교사: 네~지민이가 전부터 호비 장난감 세트로 많이 산다고 이야기하고 집에 도착했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여쭙보고 다 가지고 와도 돼~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한테 화장실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캐릭터 이름도 설명해주더라고요.

(새싹반 교사-지민 부모 스마트 알림장, 2022. 12. 7.)

위 사례는 영아의 부모가 어린이집에서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교사와 함께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소통하는 내용이다. 부모들은 영아의 기분이나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교사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스마트 알림장 작성을 주로 하는 편이었는데 놀이 이야기를 어린이집과 주고받으면서 영유아들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다음 사례는 부모가 영아의 관심을 발견하게 된 내용이다.

결혼식장 입구에 있는 기린을 보며, “기린이다”하고 좋아하었어요. (중략) 엄마의 화장에 관심이 많은 정민이는 립글로즈도 가져가서 열고 발라보기도 하고, 구르프도 머리에 맡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루나 이모 보러 아쿠아리움에도 가고, 닥터 피쉬 체험도 이제는 잘하더라고요. 요즘 정민이는 부쩍 가지고 싶은 게 많아진 거 같아요. 악어 3마리도 집어 들고, 인어 이모도 사달라고 하고, 기념품 가게에서 나오기 싫다고 떼쓰던 날이었어요.

(씨앗반 정민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3. 1. 16.)

정민이 어머니는 가정연계 초기에 야외나들이나 특별한 체험에 대한 기록 등으로 스마트 알림장을 작성했었다. 그러나 위 사례는 어머니가 정민이의 관심과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부모들이 영아들의 관심과 행동의 변화를 보게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놀이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놀이에 대한 부모들과의 가정연계로 부모가 영유아들과의 놀이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정에서도 놀이를 이어나가는 변화도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서영 어머니: 서영이는 꼭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치카(양치질)나 손에 비누칠할 때 물이 아까우니 잠그고 하라고 저희에게 가르쳐 준답니다! 지구를 사랑하기 위해 가정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꽃잎반 서영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11. 24.)

서영 어머니: 서영이에게 오늘은 지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냐고 물으면 밥을 싹싹 먹으려고 노력했어요~한답니다! (웃는 표정)

(꽃잎반 서영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11. 30.)

교사: 재활용품들을 가지고 두더지 게임처럼 종이만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중략) 혹시 가정에서도 다양한 재활용품으로 한 놀이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서영 아버지: 서영이가 재미있어하는 놀이 기구가 있어 좋습니다! 집에서도 재활용품 놀이를 해볼게요.

(꽃잎반 서영 아버지 스마트 알림장, 2022. 12. 8.)

서영 어머니: 지구는 빌려 쓰는 것이고 음식을 남기지 말고 쓰레기를 줄이라고 늘 얘기하는 서영이랍니다. 저희가 일회용품을 많이 쓰면 서영이에게 혼나요. (우는 표정).

(꽃잎반 교사-서영 부모 스마트 알림장, 2022. 12. 13.)

위 사례를 통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스마트 알림장의 교육내용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유아와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로 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가정연계 놀이 이야기로 인해 유아와의 놀이를 더 생각해보고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했는데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주말에 어떻게 아이랑 놀아줄까 되게 고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운수가 뭘 좋아하는지 자꾸 저희도 고민하게 되고 또 이제 주말에 있었던 거 또 선생님들께 적어 내야 하잖아요. 숙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매번 아이랑 어떻게 놀아줄까 뭘 좋아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저희 신랑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저희는 좋았어요.

(원장-윤수 어머니 면담, 2022. 10. 18.)

연구자는 윤수 부모와의 면담에서 가정연계로 진행하는 ‘주말 놀이 이야기’ 보내기로 인해 가질 수 있는 부담감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윤수 부모님은 가정연계 놀이 이야기로 인해 유아와의 놀이에 더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 사례는 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놀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로 이어진 경우이다.

남호 아빠랑 같이 찾아보다가 겨울 간식 3종 세트(군고구마, 군밤, 붕어빵)를 준비해보았어요! 군밤은 아이들 모두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두개는 중간에 약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나 비교적 단순하고 쉽다고 판단했어요. 난이도는 군밤<군고구마<붕어빵인 것 같습니다. 붕어빵 입을 만들 가위랑 눈이랑 비늘 그릴 펜도 같이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새싹반 남호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3. 1. 3.)

위 사례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와서 영아들과 함께하는 놀이 활동을 주도하기 전에 교사와 의논하는 과정이다. 그동안의 부모참여수업이 교사가 주도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함께 놀이하기 단계에서 부모들은 직접 영아들의 놀이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영아들이 좋아하는 놀이에 대해 집중하였다. 부모가 아이들의 놀이 방법을 고민하고 놀이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놀이를 직접 주도해보게 하는 것이 부모들이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 (2) 놀이를 통해 나타난 자녀의 변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

부모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놀이로 인한 자녀의 변화를 인식하게 되었다. 영유아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부모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고 노력의 효과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자녀의 변화를 보게 하는 것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이었다. 연구자가 실행 평가 기간이 아니어도 교사들과의 대화와 회의 그리고 등원과 하원 시간에 부모들을 만나 자주 나눈 이야기가 영유아들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자기가 발표했다고 뿌듯해하기도 하고요. 저도 아이들끼리 직접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서로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중략) 제가 맨날 좀 정신없고 기억을 잘못해서 사진을 가끔 못 보내면 자기가 뭐 이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 사진 안 올렸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원장-아현 어머니 면담, 2022. 10. 18.)

2022년 4월에 시작한 비대면 가정연계 주말 놀이 이야기가 한 달 정도 진행되었을 때, 연구자는 하원 시간 현관에서 아현이 어머니에게 가정연계에 대한 참여 소감에 관해 물었었다. 아현이의 어머니는 아현이가 친구들 앞에서 본인이 집에서 한 놀이를 이야기하며 발표한 것에 대해 부끄러웠다고 하

면서도 뿌듯해 해서 신기하다고 했었는데 2학기에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꽃잎반 유아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교사와 부모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가정연계 실행 초기에 참여가 적극적으로 않았던 부모들이 시간이 지나 대부분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에 알게 되었다. 또한 초기에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한 가정에서도 2차 실행단계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다음은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가 영아의 새로운 모습과 변화에 대해 알게 된 사례이다.

많이 놀랐어요. 나은이가 그런 것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중략) 집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해봐야겠어요. 저는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원장-씨앗반 나은 어머니 하원 시간 대화, 2022. 12. 7.)

강냉이? 그 구멍이 뚫린 과자 그거 가지고 운동화 끈을 가게에서 사서 집에서 끼우기하고 먹으면서 놀이했어요.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원장-씨앗반 나은 아버지 하원 시간 대화, 2022. 12. 9.)

위 사례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의 놀이에 대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어린이집에서의 놀이 방법을 가정에서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은이는 꽃잎반 유아들과의 놀이에 참여하면서 ‘언니들의 구슬 꿰기’를 함께 해보았고, 교사들은 나은이의 놀이 영상을 가정으로 보냈다. 나은이 부모님은 나은이가 어른들도 쉽게 끼우기 어려운 작은 크기의 구슬을 낚싯줄에 끼우는 모습을 보고 야외에서 뛰어놀거나 거친 신체 놀이를 좋아하는 줄 알았던 나은이가 정적 놀이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다음 사례들 또한 부모가 영유아의 변화에 대해 인식하게 된 내용이다.

선생님이 준수랑 같이 자동차 사이렌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스마트 알림장으로)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저도 준수랑 그 방법으로 해 보았는데 준수가 진짜 집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특징을 파악해

서 자기가 나를 그리려고 하는 거...근데 처음 시도는 엄마가 먼저 해야 하고 자기가 사이렌이라고 하면서 사이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씨앗반 F교사-준수 어머니 면담, 2022. 12. 8.)

어제 지수랑 집에서 지내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주도적인 놀이를 하며 습관이 된 것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스스로 놀이 생각해서 해보기, 다른 놀이 전환 시 정리하기, 목표 완성했을 때 성취감 만끽하기 등 지수가 노는 걸 보며 이전보다 많이 컸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집에서 연장선으로 어려운 것들에 더 도전해보며 성장하는 기쁨을 알아가게 하려고요! 아이들 생각을 키우고, 내면을 강하게 만들기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큰 틀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꽃잎반 지수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3. 1. 16.)

부모들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으로 인해 달라진 변화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정에서 영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와 부모들의 반응을 통해 부모들이 놀이 속 자녀들의 발달에 관심을 두고 발달과정과 변화를 인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 (3) 교육과 놀이의 연결에 대한 이해 형성

본 연구의 실행과정을 통해 부모들은 교육이 놀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경험하고 알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랑어린이집은 개원 초부터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실행해 왔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고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과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놀이를 통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영유아들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교사들에게

어린이집 이외의 교육에 대해 항상 문의하였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부모들이 교육과 놀이의 연결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다음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놀이에 대한 부모의 관점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지수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요리만 하고 싶다는 말할 정도로 진짜 요리에 빠져 살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매실청을 담근 덕에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로 참된 교육이에요

(꽃잎반 지수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7. 20.)

분리수거라니 기특하네요. 집에서도 분리수거에 대해 잘 알려 주고 참여하도록 잘 알려주겠습니다.

(꽃잎반 연수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11. 24.)

꿀겉질 난로라니 너무 신선하네요. 집에서도 함께 만들어 봐야겠어요.

(꽃잎반 연수 어머니 스마트 알림장, 2022. 11. 30.)

위 사례는 어머니들이 스마트 알림장으로 받는 어린이집의 놀이 이야기를 보고 놀이가 교육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놀이가 진행되는 과정이 유아들이 배워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음 사례는 영아가 놀이 속에서 학습에 대한 동기를 찾게 된 내용으로 놀이와 교육의 연결에 대해 부모가 인식하게 된 또 다른 경우이다.

집에서 한글 쓰기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어려워했어요. 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펜 잡는 것부터 (중략)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 건지 어려워서 너무 싫어하는 건가 궁금해요.

(새싹반 E교사-지민 어머니 부모면담, 2022. 12. 14.)

지민: 엄마 나 이거 썼어.

지민 어머니: 이거 지민이가 썼어?

교사: 지민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편지 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연하게 써주고 그 위에 따라 쓰기 한 거예요.

지민 어머니: 아이들이 한글을 이렇게 배우는군요.

지민 어머니: 지민이가 이렇게 잘 쓰는구나. 이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쓸 수 있겠네.

(씨앗반 E교사-지민 어머니 하원 시간 대화, 2023. 01. 10.)

사랑어린이집 영유아들은 가정에서 ‘학습지’ 라고 일컬어지는 별도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 이런 활동에 대한 참여 유무를 떠나 부모들은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학습과 학습지의 필요성에 대한 문의를 꾸준히 해왔다. 위 사례 속의 지민이도 가정에서 학습지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흥미를 보이지 않아 어머니가 교사에게 문의하였고 지민이의 어머니는 학습적인 관심에 대해 우려하였다. 그러나 지민이는 새싹반 영아들과 놀이하던 중 엄마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하며 글씨 쓰기에 관심을 보였고 지민 어머니는 놀이 속에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들은 학습지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지만, 이는 결국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례의 내용처럼 부모들은 영유아들이 학습지로 인한 학습 상황보다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놀이 속에서의 학습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이런 자발적인 관심이 배움으로 더 잘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사례는 유아들의 놀이가 배움으로 구체화 되는 것을 부모가 인식하게 된 내용이다.

저는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의 생활이 단순하게 아이들의 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서영이가 그냥 편하게 어린이집에서 지내고 안전한 환경이 되면 그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말에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던 것들로 인해서 놀이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

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지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장-서영 어머니 면담, 2022. 10. 20.)

쓰레기 많이 버리지 마라. 그리고 이런 주차장이나 길거리에 쓰레기 버려져 있는 거를 보면 너무 속상해하면서 왜 여기다가 사람들이 버리는지 모르겠다. 화가 난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배워온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줘요. 지구에 대해서...요새 진짜 제일 관심 많은 건 지구 같아요. 빌려 쓰는 지구에 대해서 아껴 써야 한다고 하고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쓰게끔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재밌어요. 되게 얘기하면서 보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꽃잎반 B교사-서영 어머니 면담, 2022. 12. 13.)

위 사례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안전과 위생,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했던 부모가 놀이중심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의 노력과 변화를 느끼게 되었고, 영유아들의 교육적 환경 변화가 교육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이해하며 만족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고 놀이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사례는 영아들의 부모들에게서도 확인되었다.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면 지난주에 어린이집에서 뭐를 했나~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고 (중략) 뭔가 어린이집에서 관련된 활동을 하고 오면 애가 그걸 되게 더 빨리 인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걸 친구들과 같이 했을 때 뭔가 애가 더 기억을 잘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중략) 집에서는 제가 뭘 아무리 알려줘도 잘 모르다가 어린이집에서 그걸 한번 보고 오면 그때부터는 알더라고요. 제가 백날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씨앗반 E교사-찬민 어머니 면담, 2022. 12. 08.)

이전의 스마트 알림장은 주로 컨디션 체크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보였었는데 변화를 많이 느낄 때가 이제 월요일 주말 지나고 나서라든지 이럴 때예요. 친구들 이야기에서 연계해서 거기에서 더 경험을 확대할 수 있게끔...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게 요즘에 꾸준히 알림장으로 오니까 그때야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이

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훨씬 놀이할 때 집중도라든지 이런 게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원장-영찬 어머니 면담, 2022. 10. 14.)

위 사례를 통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놀이를 통한 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가정연계 과정에서 영아들의 놀이와 교육의 연결 관계 그리고 놀이를 통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놀이중심 교육의 효과도 함께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가정연계에 참여한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이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놀이로 하는 교육이 영유아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고 지원하며 확장해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자신의 자녀의 놀이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영유아 개별 중심의 가정연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 **(4)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 형성**

사랑어린이집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연계하는 놀이를 통해 영유아들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였다. 부모들은 특히 비대면 가정연계를 통해 어린이집의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사랑어린이집의 비대면 가정연계는 스마트 알림장을 주매체로 하였고 부모들은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쉽게 가정연계에 참여하여 어린이집의 교육 상황을 매일 볼 수 있었다. 부모들은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전해지는 매일의 놀이와 놀이를 통한 교육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게 되었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가정연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중심 교육에 대해 신뢰감을 느끼게 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고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졌고 (중략) 시은이가 어린이집에서도 좋아하는 와플 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친구들과 놀이하면서 질서도 같이 체험하고 놀면서 배우면서 아기들이 정서적인 유대감도 갖고 사회성 이런 것들을 많이 잘 배우고 있는 거 같아요.

(원장-시은 부모 면담, 2022. 10. 18.)

시은이 어머니는 가정연계를 통해 시은이가 좋아하는 놀이가 어린이집에서도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시은이와 씨앗반 영아들의 놀이에 대해 상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시은이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의 놀이로 하는 교육방법과 놀이가 영아들에게 주는 교육 효과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감을 표현하였다. 다음의 사례는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방법을 가정에서도 적용하여 도움을 받게 된 경우이다.

어린이집에서 아이하고 놀이하는 방법 가르쳐 주시고 스마트 알림장으로 아이와 대화하는 내용 이런 거 써주시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는 선생님의 질문 방식을 보며 공부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재밌어? 이거 해 볼까? 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질문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해파리가 어떻게 움직였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아이들도 대답할 때 그냥 ‘재미있었어. 좋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어요.’라고 답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할까...대화가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진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아이도 다양하게 뇌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대화나 놀이 방법들을 보면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씨앗반 E교사-나은 어머니 면담, 2022. 12. 16.)

나은이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하는 놀이 방법과 교사들이 아이들과 하는 대화 방법이 늘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나은이 어머니는 가정연계에 참여하는 동안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하는 교육방법을 가정에서도 나은이에게 적용해보고 그에 대한 보람과 만족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왔

다. 사랑어린이집의 가정연계에 참여한 많은 부모가 나은이 어머니같이 교사들의 교육방법 즉 놀이 방법이 모델링이 된다고 하며 놀이중심 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내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그동안 보면 만 2세 이맘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학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학기에 비교해서 공부시키고 싶다는 분은 한 분만 계세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시키려고 한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냥 글자도 자기가 원하면 하겠다고 하시고 집에도 한글 같은 것도 안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중략) 놀이에 대해서 신뢰하고 어린이집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싶다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일단 조금 놀랐어요.

(A교사 교사회의, 2022. 12. 26.)

사랑어린이집의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는 학습에 대한 관심과 학습에 대한 부모들의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세 영아반 부모들에게서 두드러졌던 인지적 학습에 대한 요구는 본 연구가 진행되면서 현저하게 줄었고, 표면화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부모들이 놀이중심 교육에 대해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 또한 이런 부모들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놀이를 통한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앞으로도 아이들 생각이 증진되도록 놀이 교육 확장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놀이중심 교육을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방식에서 조기교육에 대한 마음을 내려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사를 놀이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어린이집 콘텐츠를 믿고 보낼 수 있겠습니다.

(2학기 부모교육 모바일 평가 결과, 2022. 09. 27.)

2학기의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뢰감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교육에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보이며 가정연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열정적으로 실행하고 이로 인한 영유아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아교육 기관의 노력이 부모들의 관심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도 하였다.

### **3) 교사의 변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을 위한 놀이의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였으며 놀이 활성화를 위한 가정연계 실행 방안 또한 적극적인 태도로 모색하였다. 교사들은 가정연계를 진행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과정에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변화를 비대면 가정연계에 대한 자부심과 효과 확인,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가정연계의 효과 확인 및 만족감 상승, 부모-교사 소통의 편안함과 이해 및 신뢰의 폭 확대,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신감 상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비대면 가정연계에 대한 자부심과 효과 확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들은 유아교육도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생각과 부모들이 대면 참여를 원하는 것과 동시에 비대면 방식의 가정연계에도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가정연계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스마트 알립장을 활용한 주말 이

야기 전송을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비대면 가정연계에 대한 경험은 물론 다른 유아교육기관의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 단계의 실행과정 평가에 따라 개선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부담도 갖고 있었다.

어떤 원장님은 처음부터 OT에서 우리는 놀이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놀이 소식지를 저희처럼 보내는 곳도 있고 다 한 가지씩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초반에 OT에서 원장님이 우리 교육관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원장님께서 부모교육도 하고 또 저희도 스마트 알람장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매일 소통하고 있고 그래서 학기 초보다 부모님들 생각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또 놀이 소식지도 매번 나가고 있고 주말 지낸 이야기로 아이들의 놀이가 조금씩 이어지는 모습을 보시더니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셨다고 우리 어린이집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 반응을 들어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이 다른 곳보다 한 단계 좀 더 빨리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B교사 S시 맞춤형 컨설팅 종결회의 결과 공유, 2022. 12. 13.)

위 사례는 맞춤형 컨설팅 종결 회의에 원장을 대리해서 참석했던 B교사가 연구자에게 공유한 회의 내용과 B교사의 소감이다. B교사는 컨설팅에 참여한 여러 기관과 함께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가정연계를 실행 사례를 공유하였다. B교사는 사랑어린이집의 비대면 가정연계 사례가 종결회의에 참여한 다른 기관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였다. B교사는 또 외부 기관과의 사례 공유를 통해 사랑어린이집이 실행하고 있는 가정연계가 선진적인 시도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음은 가정연계의 효과성에 대한 사례이다.

제가 지난번에 원장님께 저희가 가정으로 보낸 놀이 키트랑 놀이 방법에 대해 부모님들의 피드백이 많이 안 와서 속상하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후 상담시간에 부모님들께 여쭙보니까 어린이집에서서 키트 받았을 때 바로 못해 본 가정에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랑 다 한 번씩 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서 저희가 보낸 내용을 아예 안 보시는 건 아니구나 하

고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바로 반응을 못 하신 거였어요. 부모님들이 나중에라도 키트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건 이걸 저희가 비대면 방식으로, 스마트 알림장으로 놀이 방법을 안내해서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고 또 지속적으로 가정연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F교사 교사회의, 2022. 12. 26.)

F교사는 1차 실행 평가회의에서 부모들의 가정연계에 대한 반응이 예상보다 적은 것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었다. F교사는 부모들의 반응이 적은 원인을 자신의 안내 방법 또는 가정연계 운영 미숙에 두었었다. 그러나 이후 부모들과의 대화와 면담을 통해 다수의 부모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스마트 알림장을 다시 확인하여 교사들이 안내한 놀이 방법으로 자녀들과 놀이를 해 보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부모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어린이집에서 보낸 놀이 방법을 쉽게 다시 확인하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 가정연계의 효과성을 인정하였다. F교사는 다음과 같이 비대면 가정연계를 부모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재민이가 밀대 놀이했던 주말 이야기에 대해 미리 재민이 어머니께 여쭙보고 함께 준비했었어요. 저희도 밀대를 준비하겠지만 어머니께도 밀대를 가져와도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밀대로 재민이랑 놀이했는데 어머니께서 그 과정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사전에 준비할 때도 저희가 스마트 알림장으로 밀대를 활용한 놀이 방법 안내해 드리고 등하원 시간에 어머니와 구체적인 내용을 의논했거든요. 어머니께 재민이가 밀대 놀이를 좋아했다고 해서 밀대를 이용한 놀이로 쿠키 굽기 아이들과 해보면 어떻겠냐고 의논드렸는데 어머님께서 너무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어느 때 보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D교사 평가회의, 2023. 1. 20.)

위 사례는 교사들이 가정연계를 지속하면서 비대면 방식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을 확인하고 이를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교사와 부모가 함께 만족하게 된 사례이다. 한편 교사들은 비대면 가정연계를 시작했을 때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초기에 도입할 때는 신선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약간 감이 안 잡혔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이 잡히고 그걸 잘 활용하고 있으니 굉장히 좋아요. 비대면 가정연계가 활용하기 더 좋은 배경이 돼요. (중략) 비대면 가정연계를 위해 영상 하나하나 편집하는 것이 솔직히 또 하나의 일로 느껴지긴 하는데 영상을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것이 효과가 크고...또 그것도 편집하다 보면 편집에 또 재미 붙여서 이것저것 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C교사 면담, 2023. 1. 25.)

C교사의 경우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비대면 가정연계 방법 모색 단계에서 비대면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실행과정에서 비대면 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비대면 가정연계 과정에서 필요한 놀이자료의 영상과 사진 편집과정이 업무 부담이 되었지만, 이 과정이 즐거움으로 작용하고 이런 자세 변화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B교사 또한 비대면 가정연계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대면은 부모님들이 직접 오지 않고 간단하고 쉽게 소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방식은 항상 부모님들이 직접 오셔서 참여하는 방법이었고 비대면은 처음 경험해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소통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B교사 면담, 2023. 1. 27.)

B교사는 사랑어린이집에 2년째 근무한 교사로 이전에 비대면 방식의 가정연계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했다. B교사는 4월에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

해 진행된 간담회에 대해 평가하면서 대면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행과정에서 비대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비대면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D교사도 비대면 가정연계 방식이 부모들에게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 평가하면서 효과성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놀이에 대해 더 자세히 기록한 스마트 알림장의 효과도 나타났다. 가정에서 경험하지 않은 것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놀이가 시작되면 ‘어린이집에서 저런 놀이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 알림장이나 놀이 소식지를 살펴보면 아이의 놀이가 더 이해하기 쉬워졌다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놀이할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데 교사의 말과 아이의 대답이 들어간 스마트 알림장의 내용을 보고 ‘저렇게 대화해주니까 아이의 반응이 달라지는구나.’ 하고 느꼈다는 것이다.

(D교사 저널, 2022. 12. 30.)

영아반인 씨앗반을 담임하고 있는 D교사는 F교사와 함께 주간보육계획안인 놀이 소식지를 스마트 알림장으로 부모들에게 안내하면서 매주 어린이집에서 했던 놀이의 확장된 놀이 방법을 함께 안내하였다. 이 과정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부모들과의 대화와 면담을 통해 자신들이 안내한 내용들을 부모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비대면 가정연계의 장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 **(2)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가정연계의 효과 확인과 만족감 상승**

사랑어린이집 교사들은 본 연구를 실행하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가정연계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만족감이 상승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부모일일 참여활동을 진행할 때, 부모님께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끝나가시며 아이들과 함께하니 교사로서 부담감이 덜 느껴졌다. (중략) 부모님께서 중심이 되니 더 적극적이고 즐거움을 느끼며 참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활동이 끝난 뒤에 주말 지낸 이야기에 변화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깥에서의 이벤트성 활동 위주의 스마트 알림장 주말 이야기를 주로 보내주셨는데 최근에는 자녀가 가정에서 관심 가졌던 물건을 활용한 놀이를 했다는 점과 사소한 부분에서 발견한 아이가 흥미 가진 것을 공유해주셨다. 또 하원 할 때 식사, 컨디션에 대해 질문을 하셨더라면 “오늘 무슨 놀이가 재미있었어? 뭐가 재미있었어? 뭐 했어?” 라고 아이의 놀이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시며 적극적으로 아이와 이야기 나누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F교사 저널, 2023. 1. 21.)

F교사는 부모참여활동 이후 달라진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가정연계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사례에서 언급된 부모의 경우 부모참여활동 이후 놀이에 대한 표현이나 관심이 달라졌는데 교사는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노력했던 결과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A교사가 느낀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가정연계의 효과이다.

주말 이야기를 공유하고 집에서 했던 놀이와 놀잇감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간접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저희 반 어머니가 원장님이랑 면담할 때 아이가 불꽃놀이를 못 봤는데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의 불꽃놀이 주말 영상을 보고 그걸 놀이로 해서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간접 경험들이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에도 결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여기에서 친구들이랑 언어로 상호작용하고 신체적인 놀이를 하면서 발달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이 발달이 빨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놀이 이야기 공유라든지 가정연계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게 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A교사 면담, 2023. 1. 25.)

A교사는 가정연계 과정에서 영유아들의 놀이 이야기를 부모들과 공유한 것이 부모들도 어린이집의 교육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

가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부모들이 다른 가정의 놀이 모습과 놀이 방식에 대해 궁금해 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가정연계 과정에서 부모들이 보이는 다른 가정에 대한 관심은 가정연계 방향 모색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E교사는 놀이중심 가정연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준비를 안 하는 느낌이 컸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준비해줄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많이 부담이 덜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놀이를 바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어요.

(E교사 면담, 2023. 1. 25.)

E교사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정연계가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했다. 교사들이 놀이중심 교육을 전면 도입했을 때 가졌던 고민은 시간이 지나 영유아들의 놀이가 활성화 되면서 줄었다. 교사들은 또한 가정에서 보내온 영유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놀이를 전개해 나가면서 놀이 지원 방향을 찾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효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교사로서의 만족감이 상승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C교사는 개정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표준 교육과정이란 누리과정의 기본 틀대로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반도 그렇고 다른 반도 그렇고 교수법이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이번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반마다 다양한 교육법들이 보이는 거예요. (중략) 이번 학기에는 더 눈에 띄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독 올해는 교실 자체 분위기가 아이들 관심 있는 거에 따라 확확 바뀌었어요.

(C교사 면담, 2023. 1. 25.)

C교사의 사례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으로 교사들 간의 상호 교류가 원활해지고 상호 간에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와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됨으로써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진 것을 알 수 있다.

### (3) 부모-교사 소통의 편안함과 이해 및 신뢰의 폭 확대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 교사들 간의 소통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가정연계를 실행하면서 부모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였고 의사소통의 빈도는 가정연계 실행 전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졌다. 이는 교사들에게 어려움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 사랑어린이집 교사들도 초기의 부담감을 언급하였다.

F교사: 작년에는 부모님들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비대면도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ZOOM으로 하는 생일축하 프로그램만 해도 되게 막 덜덜 떨면서 긴장했었는데 이번 연도는 확실히 그런 부담감이 줄어든 것 같아요.

D교사: 아이들이 모르는 상처가 있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부모님이랑 소통이 있으니까 그냥 다 자기가 끊었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더 이해해 주시려고 하고 뭔가 오해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굵직한 상처 입으면 친구가 끊은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그런 오해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문의할 때도 그냥 정말 궁금해서 걱정돼서 물어보시는 느낌이어서 그런 점들로 신뢰가 쌓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씨앗반 부모참여활동 평가회의, 2023. 1. 20.)

1세 영아반 담임인 F교사와 D교사는 가정연계가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부모들과의 소통이 다소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들과

의 관계가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부모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교사의 업무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B교사의 사례이다.

부모참여활동하기 전에 부모님들께 어린이집에 오셨을 때 아이들과 함께 재활용품으로 만들기를 할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할지 미리 생각해보시도록 스마트 알림장으로 안내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의견에 대해 계속 피드백하고 했는데 당일 날 참여한 한 아버님이 미리 해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오시자마자 활동 전에 미리 만들기 보고 시작하는 것이 어땠냐고 권해보기도 했는데...그런데 아버님이 오셔서 바로 자연스럽게 교실에 모아놓았던 재활용품 던지기 놀이를 시작하시면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이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이 아이들과 놀이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도 자연스럽게 놀이할 수 있구나~내가 괜히 걱정했다고 다시 보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B교사 평가회의, 2023. 1. 20.)

제가 이번 부모참여활동을 하고 나서 약간 후회가 된 점은 부모님들께 미리 놀이를 그러니까 생각해오세요~까지만 했어야 했는데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그걸 만들어오세요~라고 하니까 회사일로도 아주 바쁘신데...부모님들이 주말 동안에 만들어 오신 분도 있었지만, 어찌면 부모님들께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하라고 하고 그랬어요.

(B교사 면담, 2023. 1. 27.)

B교사의 경우 부모들과의 소통으로 인해 부모의 입장을 더 고려하게 되고 부모들을 더 배려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가정연계의 효과로 교사들은 각 가정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부모들의 성향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폭이 깊어지게 되었다. 부모들과의 소통이 편안해진 변화는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서도 공통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학년과 같은 방식의 가정연계를 실행하기 전과 비교해보면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도 면담 때나 등하원 때 잠깐씩 얘기하고 또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 직접 오셔서 얘기 나누기도 했었지만 이제

가정연계로 스마트 알림장 활용이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보내주시는 (주말 이야기) 내용이랑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도 부모님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훨씬 더 편해진 것 같아요.

(C교사 면담, 2023. 1. 25.)

5년의 경력을 가진 C교사의 경우도 부모에 대한 응대는 늘 긴장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사랑어린이집에서의 근무 시점과 코로나 시작 시점이 같은 C교사의 경우 사랑어린이집에서 부모와의 직접적인 소통 기간이 길지 않은 편이었지만 비대면 방식과 대면 방식으로 하는 부모들과의 소통이 많아진 결과 가정연계를 실행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D교사의 경우에도 가정연계로 인해 부모에 대해 더 세심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정민이의 경우 이전에는 주로 어디에 다녀왔는지가 주말 이야기에 적혀있었는데, 부모참여활동 이후에 온 주말 이야기는 정민이가 관심을 보이는 놀이 중 특히 어떤 행동을 반복했는지, 방문한 곳에서 어떤 것에 흥미를 보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적히기 시작했다. 부모참여활동이 끝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변화의 시작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정민의 놀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한 걸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다.

(D교사 저널, 2022. 1. 21.)

위 저널 내용을 통해 D교사가 부모참여활동에 대해 끝내고 일상적인 평가로 마무리하지 않고 부모의 반응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D교사는 그동안 보아왔던 정민이 놀이에 대한 부모 반응과 부모참여 활동 이후의 반응을 비교하여 부모의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하고 있으며 부모에 대해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교사들은 놀이 활성화를 위한 가정연계를 통해 부모와의 소통을 더 편안하고 긴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신감 상승

교육과정에 대해 연수 과정을 갖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은 교사의 노력과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일이다. 교사들이 연수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향상되는 평가 결과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사랑어린이집 교사들도 놀이 활성화를 위한 가정연계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성 신장과 자신감 상승을 느끼고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아이들이랑 하고 싶은 활동이나 놀이를 제시했을 때 아이들이 관심이 없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해보자~해보자~’라고 마치 사정하듯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안 하면 아예 그 활동을 포기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놀이를 그냥 따라가니까 점점 저도 더 재미있고 그러더라고요.

(F교사 면담, 2022. 12. 13.)

연구자는 영유아 놀이 활성화와 놀이중심 교육 실천을 위한 가정연계에서 교사들의 사전 준비와 함께 방법 모색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하였다. 가정연계의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에서 F교사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을 실행하면서 교사 주도로 영유아들의 놀이가 진행되는 것을 고민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었다. 그러나 F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활성화와 가정연계를 위한 새로운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만족감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사랑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이 가장 많은 A교사의 경우에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하고 영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저는 저희 반 아이들 발달 수준이 영아인데도 아주 빠르다고 보고 아이들을 더 지원해주고 싶고 제가 최근에 관심을 두게 된 몬테소리 교육도 경험시켜 주

고 싶어서 소도구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어서 놀이하게 하고 점심도 아이들이 스스로 음식을 먹을 만큼 뜨는 자율 배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명도 식판을 엮지 않고 자율 배식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먹을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A교사 교사회의, 2022. 6. 14.)

A교사는 영아라는 한계를 적용하지 않고 영아들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시도를 하며 놀이중심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한편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기회를 얻게 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교사들의 사례이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것을 다시 가정연계로 진행하면서 더 생각해보게 되고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었어요. 이것저것 자료를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놀이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B선생님과 의논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막 찾아오기도 했는데 이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C교사 면담, 2023. 1. 25.)

사랑어린이집의 유아반을 함께 담임하고 있는 C교사와 B교사는 유아들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초기에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고 가정에서의 놀이 이야기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지원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컸다고 했다. 특히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실행한 초기에 유아들의 놀이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편향적으로 흐를 때는 그 고민의 깊이가 더했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그런 고민을 해결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료교사와 함께 놀이의 지원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함께 자료를 찾아보고 적용하면서 교사 스스로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게 되면서 교사들은 자신들이 배운 교사의 전문적 지식을 적용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드러내고 싶진 않았지만...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뭔가 적용을 시켜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책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걸 다 펼쳐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껏 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마음만큼 잘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의 고정관념이나 그런 것 같아요. (중략) 다음 학기에도 유아반을 맡게 되었으니까...그래서 (이번 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B교사 면담, 2023. 01. 27.)

대학생 때 '맞아 이런 것도 배웠는데 이런 게 변화 되었구나'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 것을 좀 새롭게 다시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됐었고 뭔가 교사로서 교육과정을 해보면서 연구원, 연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방법도 되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도 다른 생각도 알게 되고 그렇게 의견 나누며 생각이 넓어지는데 다양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C교사 면담, 2022. 12. 15.)

위 사례들을 통해 교사들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자신들이 배운 전문적 지식을 적용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B교사는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교육과정 연수를 여러 번 받았지만, 사랑어린이집의 방식으로 실천해본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 영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할 때 고민도 많았고 부담도 되었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개정 교육과정의 연수내용을 적용해보면서 방향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B교사는 2차와 3차 실행과정을 거치면서 유아들의 놀이 흐름을 읽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 실행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이론을 다시 찾아보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꾸준히 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B교사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스스로 잘 운영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실행 경험을 토대로 다시 유아반을 맡아 잘 운영해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C교사 역시 배운 것을 재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부모들의 가정연계가 활발해지고 유아들의 놀이에서 배움의 과정에서 자신도 배웠던 지식을 찾아 확인하고,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스스로 연구자의 느낌이 들어 보람을 느꼈다고 했고, 이 과정을 통해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며 활성화하고 놀이중심 교육의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 교사들이 영유아들의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가정연계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감을 상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원장인 연구자가 사랑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비대면과 대면 방식의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교사, 부모, 영유아들과 함께 실행한 연구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병행 가정연계의 실행과정

사랑어린이집의 원장인 연구자는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놀이 활성화가 제한되었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한 요소인 놀이의 활성화와 부모들의 협력 및 참여는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더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이 사랑어린이집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뢰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부모들이 사랑어린이집의 교육에 대해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자는 또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영유아의 놀이가 활성화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랑어린이집에 필요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놀이의 활성화와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가정연계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결국 원장과 교

사들이 부모들의 참여와 영유아들의 놀이를 바탕으로 함께해야 할 과제였기 때문에 이를 위한 모든 과정을 실행연구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랑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은 2022학년도 놀이중심 교육과정 활성화를 목표로 2021년 11월부터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준비과정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놀이 활성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이어 2022년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부모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사랑어린이집의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교사들은 계속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코로나 이후 중단된 가정연계의 재개를 결정하였다. 연구자는 사랑어린이집 개원 이후부터의 가정연계 과정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가정연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랑어린이집에서 일찍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실행해왔던 비대면 가정연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는 가정연계를 실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자가 파악한 사랑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운영과 가정연계의 문제점은 첫째, 가정연계가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부모가 이해할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 둘째, 부모들이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속해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점, 셋째, 가정연계의 방식이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방식으로만 이루어졌고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은 첫째, 부모들이 놀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방법을 개선하는 것, 둘째, 놀이 활성화를 위한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가정연계를 일상화하는 것, 셋째, 사랑어린이집의 가정연계를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사랑어린이집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를 돕는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한 다음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차 실행에서 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하여 부모들과 영유아들의 놀이 사진과 영상, 놀이에 대한 설명을 담은 놀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1차 실행에서는 비대면 가정연계 방법의 모색과 안내, 스마트 알림장으로 놀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식의 가정연계를 지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놀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각각의 실행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독립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되는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놀이를 활성화하는 교육 활동에는 부모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적용한 가정연계는 부모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위해 방법과 장소 및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가정연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 증진에 효과적이고, 가정과 기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부모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나혜선, 2016; 이옥희, 2018; 이지연, 2019; Cairney, 2000; Christenson, 2004).

또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효과적인 연계활동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모들의 다양한 여건과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배지희 외, 2011; 임효선, 2010; 주희경, 2017; 최혜미, 2014). 특히 근래에는 부모들의 다양한 여건은 물론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비대면-대면 병행 방식의 가정연계는 부모들의 다양한 여건에 대한 고려(유구종 외, 2014; 윤경옥, 이대균, 2019; 최희선, 2020; Pancsofar et al., 2017),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부모참여 및 부모와의 소통에 적합한 방법(박영아, 조미현, 2020; 최희선, 2020)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모든 실행단계에서 사용한 비대면 방식은 스마트 알립장이다. 스마트 알립장은 코로나 시기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한 놀이 꾸러미(놀이 키트)와 영상 콘텐츠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박영숙, 김낙홍, 신미영, 2021). 스마트 알립장은 부모와 교사 모두 사용법에 익숙하여 별도의 교육과 안내 절차를 갖지 않아도 되는 장점 이외에 스마트 기기들과 컴퓨터에서 동시에 활용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김윤정, 2020; 박민경, 2017; 이지선, 2019; 안소연, 2020; Beecher & Buzhardt,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스마트 알립장을 선택한 것은 가정연계의 효과성과 코로나 상황에서의 적합성 외에 가정연계의 편의성을 높여 장기화를 가능하게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스마트 알립장을 통한 부모와의 소통 내용을 일상적 정보교환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매체로 활용하여 부모들이 영유아 놀이를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교사들이 스마트 알립장을 활용한 가정연계에 놀이기록을 활용하면서 놀이기록과 스마트 알립장 내용 정리의 업무를 줄이게 되는 효과도 있었다. 이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수행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과 교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이양숙, 하양승, 전홍주, 2020; 이정아, 2022; 임명희, 2021; 허민정, 2020).

한편, 1차 실행에서 스마트 알립장을 활용하여 주말에 했던 놀이 이야기를 어린이집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가정연계의 방법을 잘 못 알고 있어 참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참여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모들은 놀이 이야기를 보내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꼭 찍어야 하거나 특별한 행사나 나들이 등과 관련된 내용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가정연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가정연계 과정에서 참여한 부모들이 가정연계의 방법을 잘 모르거나 참여 과정에 부담을 느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이세나, 2012; 장지원, 2020; 최미순, 2016; 현선영, 2022). 부모들이 가정연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과정에서 부모의 참여 상황을 파악하고 부모들의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또한 비대면 방식만의 가정연계로는 부모들과 소통하거나 부모들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놀이하는 모습을 직접보고 놀이들이 교육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하도록 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였다.

1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평가 및 실행 결과를 적용하여 2차 실행에서는 비대면을 유지하면서 대면 참여를 시작하며 놀이의 다양한 방법을 부모와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부모들의 놀이 방법 이해도모를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비대면과 대면이 상호 연결되도록 하여 부모들에게 다양한 놀이 방법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모들과 함께 영유아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비대면으로 공유하며 부모들이 영유아들의 놀이를 통한 교육 활동을 보고 교육적인 놀이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차 실행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모교육과 가정연계에 대한 안내과정에서 연구자는 부모들의 가정연계 참여 현황을 확인하며 가정연계의 내용과 방법을 점검하고 동시에 부모들이 가정연계의 목적과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들은 가정연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선행연구(김효진, 2022; 박윤아, 2020; 장지원, 2020)에서도 가정연계의 실행 중에 부모 안내와 교육 그리고 부모 협의 및 면담 과정을 갖는 것은 가정연계를 지속하게 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의 가정연계를 실행할 때 부모들의 참여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며 가정연계를 지속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교육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하여 부모교육을 전면 대면으로 진행한 다음 부모들의 희망에 따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의 부모교육을 추가 진행하였다. 부모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놀이 영상과 함께 어린이집에서의 놀이와 이를 가정과 연계하여 진행한 실제 놀이 영상을 보면서 놀이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동시에 놀이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2차 실행과정에서 시작된 부모들의 대면 참여는 사전과 사후에 진행된 비대면 가정연계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었다.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영유아들과 함께한 금연캠페인은 사전 비대면 교육을 수강한 이후의 대면 참여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부모모니터링과 영양교육은 부모들의 대면 참여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공유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부모들은 비대면과 대면이 상호 연계된 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놀이를 통한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비대면과 대면을 연결한 방식은 가정연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이는 블렌디드 러닝방법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가정연계의 효과성을 확인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박성환, 2013; 신혜영, 2020; 이미정, 2020; Ingersoll et al., 2016).

또한 영유아들의 확장된 놀이와 교육적인 놀이 내용을 부모들과 지속해서 공유하여 부모들이 영유아들의 놀이가 다양화되는 과정과 놀이를 통해 배워나가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는 놀이중심 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놀이를 통한 교육의 효과를 부모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이승숙, 송나리, 배지희, 2017; 임효신, 나종혜, 2011; 전효훈, 엄정애, 2011).

2차 실행 평가 결과 비대면 가정연계는 부모들이 놀이와 교육의 순환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부모들이 지속해서 가정연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대면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들이 영유아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교육과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대면 가정연계가 효과적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사들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참여하는 가정연계 기회를 늘려 놀이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회의 확대를 제안하였고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3차 실행을 계획하였다.

3차 실행에서는 2차 실행 결과를 토대로 대면 참여를 확대하여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영유아들이 함께 놀이하도록 하였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전체 대면 참여와 부모가 놀이를 주도하는 개별 또는 소그룹 대면 참여를 통해 영유아들과 어린이집에서 함께 놀이하었다. 부모들이 대면으로 참여한 놀이의 사전 준비와 사후 마무리는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부모들이 놀이 방법과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놀이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3차 실행은 부모들에게 개별적인 참여 기회를 마련해 주어 더 의미 있는 가정연계가 되기를 원했던 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되었다. 3차 실행에서 이루어진 전체 대면 참여는 김장하기 부모참여수업이었으며, 부모들과 영유아들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개별 및 소그룹 대면 참여 놀이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와 놀이 방법을 직접 찾아보고 부모가 놀이를 주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3차 실행평가 결과 1차 실행에서부터 시작된 비대면 가정연계의 효과와 효율성이 확인되었는데, 장기간 지속해서 진행된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 부모들은 가정연계의 방법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본 연구 과정에서 부모들은 가정연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실행과정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의 병행이 부모참여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편의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적합하여(권기남, 2012; 김애란, 2010; 서희전, 2017; 윤지영, 2020; McBride et al., 2019) 가정연계에 활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정연계가 목적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장기간 실행될 때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진되고 부모들의 협조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는 부모교육의 지속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윤미경, 민선희, 김미숙, 배지희, 2019; 이미화 외, 2016; 최미순, 2016; Comer & Haynes, 1991).

3차 실행에 대한 또 다른 평가 결과는 부모들이 사전에 교사들과 비대면 방식으로 놀이를 준비하고 놀이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 다음 대면 방식으로 놀이를 주도해보게 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만족감과 열의가 확인된 것이다. 교사들의 제안과 부모들의 희망에 따라 부모들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개별 및 소그룹 놀이 참여를 원래 계획보다 연장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실행과정을 통해 비대면 방식이 가정연계를 장기간 지속하고 효과성을 높이는데 적합한 방식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가정연계에서 그동안 비대면 방식을 대면 방식에 대한 일시적 대안으로 활용되어왔던 것에서 확대하여 대면 방식의 효과를 높이는 가교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영유아 놀이를 위한 교육적 의미로 연결하며 병행하는 방식의 실행은 비대면을 활용한 가정연계의 다양한 방법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병행 가정연계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영유아와 부모 및 교사의 변화**

놀이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한 가정연계의 실행과정

에서 나타난 영유아와 부모 및 교사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1) 영유아의 변화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한 가정연계를 통해 영유아는 놀이주도자와 놀이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놀이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놀이 속에서의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었고 놀이를 통한 배움이 형성되는 변화를 보였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들은 가정과 연계된 놀이를 통해 놀이주도자와 놀이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영유아들은 가정에서 했던 놀이를 어린이집에서 소개하고 자신들의 놀이가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놀이의 동기와 놀이의 소재를 찾게 되었다. 이는 어린이집과 부모가 가정연계를 통해 영유아들의 놀이가 중심이 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영유아들이 놀이를 주도하게 되는 선순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에서 영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효과와 중요성을 확인한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안창희, 2019; 임명희, 2021, 정주인, 권기영, 2020).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들은 가정에서의 경험을 어린이집에서 표현하며 놀이 방법을 생각해 내고 이를 놀이로 연결하는 놀이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영유아가 자신의 놀이 경험을 회상하고 이야기해보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은 놀이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놀이로 전개한 활동에 대한 연구(류수향, 2019)와 가정에서의 활동 결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김창희, 2014), 그리고 유아들의 내러티브 구성과 전개로 유아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한 연구(박향원, 2013)들에 의해 지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에서 영유아 주도의 실제 놀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론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며 영유아에게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놀이에 대한 몰입과 적극성이 강해지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된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영유아들은 가정연계 과정에서 활성화된 놀이를 통해 자신감을 형성하였다. 영유아들은 가정에서의 놀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놀이 환경에서 부모와 함께한 놀이 경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영유아들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놀이지원과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한 방법으로 놀이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며 이를 놀이를 통해 자신감을 형성하였다. 영유아들은 자신의 놀이 경험과 선택한 놀이와 그리고 놀이 방법이 존중받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활발하게 놀이를 주도하였고 이러한 놀이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유아들의 놀이를 수용하고 영유아들이 선택한 놀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지원으로 영유아 놀이의 주도성 향상과 자신감 상승의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유사하다 (강영식, 2021; 문주리, 2022; 박민정, 2019; 서혜정, 이한아, 2011; 윤경옥, 2019).

영유아들의 자신감 상승은 놀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교사들의 지원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부모들이 스마트 알림장으로 보낸 가정에서의 놀이 사진과 설명을 보고 영유아의 놀이 내용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 교사들이 영유아들의 놀이 이야기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유아들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즉각적인 놀이 환경 구성과 놀이 지원이 가능하였다. 이는 가정연계 과정과 부모의 놀이참여로 영아들의 놀이성이 향상되고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자발성 등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권봉금(2019), 문성영(2019)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또한 유아는 물론 어린 영아들의 자신감 표현과 향상을 위한 교사와 부모의 지속적인 연계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영유아들은 놀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영유아들의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준 결과 놀이 속에서의 갈등이 감소하였다. 영유아 간의 갈등 감소는 교사들이 가정연계를 통해 영유아들의 놀이 관심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개별 놀이 지원을 하면서 호기심과 욕구가 충족된 것과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교사 중재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놀이 몰입에 의한 또래관계 개선 효과(나은숙, 2018),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의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 향상(김수인, 2020, 한유진, 2021), 전래놀이를 활용한 가정연계에서의 또래 간 갈등 해소의 효과(최미순, 2016)를 보고한 연구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들은 놀이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사와 또래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교사들은 이 상황에서 관찰자와 지원자의 역할로 영유아들의 문제 해결을 도왔다.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놀이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이정아, 2022; 정주인, 권귀엽, 2020; Broadhead, Howard & Wood, 2010).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의 가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놀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영유아들은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정연계의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배움을 찾기도 하고 배움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사랑어린이집에서 놀이중심 교육이 중점적으로 실행되면서 놀이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찾는 영유아들의 모습은 연구자와 교사들에 의해 수시로 꾸준히 관찰되었다.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서 전승된 놀이 이야기를 토대로 한 놀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놀이의 교육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놀이를 통해 배운 것을 가정에서 직접 실천하기도

하였으며 부모들은 가정연계를 통해 영유아들의 놀이가 활성화되는 모습과 영유아에게서 나타나는 교육적 변화와 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영유아들의 놀이를 통한 학습적 동기와 놀이로 인한 배움의 효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곽향림, 2019; 윤경옥, 2021; 이미경, 2010; 정현주, 2020; Hyun, 2008). 이는 놀이가 중심이 되는 가정연계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영유아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적 효과를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놀이를 활성화하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비대면과 대면 병행 가정연계가 영유아들이 놀이를 주도하고 놀이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놀이를 통한 자신감 형성 및 놀이 속에서의 갈등 감소와 문제해결력을 갖도록 하고 놀이를 통해 다양한 배움을 형성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대면과 대면 병행방식의 가정연계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안착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법의 가정연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2) 부모의 변화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과 대면 병행 가정연계 과정에서 부모들은 놀이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게 되고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놀이를 통해 나타난 자녀의 변화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교육과 놀이의 연결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가정연계에 참여하면서 놀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

며 영유아들과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화를 보였다. 부모들은 가정연계에 참여하면서 스마트 알람장을 통해 놀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놀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또한 부모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놀이 기준에 의해 자녀의 놀이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던 자세에서 자녀의 놀이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 방법을 알아내는 변화를 보였다. 부모들은 또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했던 놀이를 가정에서도 함께해보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부모들은 초기에 비대면 방식인 스마트 알람장을 통해 가정에서 놀이한 내용을 기록하여 전송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에서 자녀와 더 놀이를 많이 하게 되고 함께 하는 놀이 방법을 고민해 보는 변화를 보였다. 부모들의 이러한 변화는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지속적인 연계과정에 참여한 부모들이 가정연계의 취지에 부합되는 변화를 보였음을 보고한 김효진(2021), 박윤아(2020)의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정과 협력하여 실시한 후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배진희, 2019; 이옥희, 2018; 임성혜, 2017; 조미정, 2022)에 의해 지지되고 부모참여활동 운영이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Gestwicki(2015)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들에게 가정연계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여 놀이에 대해 부모가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들은 가정연계에 참여하면서 놀이를 통해 나타난 영유아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연계에 참여한 부모들은 영유아의 개별 놀이를 중심으로 한 놀이 이야기와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놀이 환경과 놀이 모습을 비대면으로 공유하고 대면으로 참여하면서 영유아의 변화를 인식하게 되었다. 부모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의 새로운 놀이 성향을 발견하

기도 하였다. 부모들이 놀이를 통해 자녀의 기질을 파악하게 되고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것은 교사들과 영유아의 놀이 관찰 기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소통한 결과로 유추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들과 관찰 기록을 공유하며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음을 보고한 연구(권은주, 2022)와 유아들의 놀이에 대한 기록작업을 매개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연계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변화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다(김희연, 정선아, 오문자, 2005). 또한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과정에서 부모와 영유아의 놀이에 대해 공유하고 대화하는 방식의 부모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이성희, 이미영, 2021) 연구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 함께 자녀의 놀이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과정을 지속해서 가지면서 영유아의 개별적인 발달 특성과 기질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놀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과 대면 병행 가정연계는 부모들이 교육과 놀이의 연결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교육에 대한 낮은 신뢰감을 보였던 부모들은 놀이 활성화를 위한 가정연계를 통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부모들은 또한 영유아들이 놀이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과 놀이를 통해 학습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되고 놀이과정에서 학습효과를 얻게 되는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오채선, 2019; Samuelsson & Johansson, 2006; Singer, Golinkoff & Hirsh-Pasek, 2006). 이는 또한 부모들과 유아교육기관이 영유아의 교육활동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김춘선, 2023; 배지희, 김신영, 이수영, 2016; 윤경옥, 2021)와 놀이중심 교육에서 유

아교육기관이 가정과 연계하며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연구(임명희, 2020)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자녀의 놀이를 중심에 두고 장기적·지속적으로 연계하며 놀이의 교육적 기능과 효과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가진 영유아 중심, 부모의 적극적 참여라는 원론적 대전제가 갖는 효과성과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부모들은 가정연계 참여를 통해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다. 놀이를 활성화하고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비대면과 대면 병행의 가정연계에 참여한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신뢰하게 되었다. 가정연계에 참여한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놀이 이야기를 통해 가정과 연계한 놀이가 교육적인 효과를 보이는 과정을 지속해서 보게 되었다. 또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와 놀이와 교육의 연계에 대한 설명을 실제 자녀들의 놀이를 통해 들으면서 놀이중심 교육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 이는 부모들이 가정연계 활동으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부모들이 결국 교육과정과 기관에 대해 신뢰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효진, 2022; 박은혜, 2020; 심수아, 2021; 장지원, 2020)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한 협력자이며 이를 위한 가정연계의 방법 모색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 3) 교사의 변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놀이 활성화를 위한 가정연계 과정에서 비대면 가정연계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비대면 가정연계의 효과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가정연계의 효과를 확인하고 만족감이 상승

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교사들은 또한 부모들과의 소통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부모들에 대한 이해 및 신뢰의 폭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연구 과정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게 되었고 자신감이 상승하였다.

교사들은 비대면 가정연계의 실행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비대면 가정연계의 효과를 확인하게 되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교사들은 스마트 기기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비대면 가정연계에 대해 유아교육현장에서도 시대적 흐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교육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스마트 기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비대면 가정연계 활용 방법에 대한 고민을 부담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선진적인 시도로 생각하였고 이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반면 교사들이 비대면 방식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느낀 비대면의 효과와 새로운 시도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 결과는 서혜정, 정하나(2023), 이미정(2020), 이혜선, 배지희(2021)의 연구 결과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다.

교사의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경험은 교사의 자아 성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남선화, 2021; 한수란, 황해익, 2007).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에게서도 비대면 방식에 대한 반성적 사고 과정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교사가 자신이 수행한 원격교육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성찰을 이루어낸 선행연구의 결과(김경철, 장예술; 2022; 김민정 외, 2020; 서윤희, 한유진, 2021)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고 이 과정을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은 교사들이 부담을 갖는 과정이지만 교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직무만족감과 효능감을 느끼기도 한다(강희정, 2020; 이지희, 2020; 장지원 2020).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비대면 가정연계의 새로운 방식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선진적인 시도로 여기고 스스로를 비대면 가정연계의 운영 주체로 인식하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새로운 교육적 시도에서 교사의 인식과 가치 정립을 선행하고 교사 스스로 실

행에 대한 효과와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지원한 결과이다. 이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가정연계를 통해 교사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비대면과 대면 병행 가정연계를 통해 교사들은 놀이를 통한 교육과 가정연계의 효과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가정연계에 대해 만족감이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다. 교사들은 가정연계가 진행됨에 따라 부모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효과와 동시에 가정연계의 효과를 느끼게 되었다. 즉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적용 방법으로 가정연계가 주효하다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 부모의 참여와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김효진, 2022; 유기미, 2022)와 맥락을 같이 하며 개정 누리과정의 실천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제안(문수영, 조영주, 2020; 박윤아 2020; 윤민아, 2019; 전효훈, 엄정애, 2011)이 반영된 것이다.

셋째, 교사들은 가정연계 과정을 통해 부모들과의 소통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폭을 확대하게 되었다. 교사들이 부모들과 영유아들의 놀이기록을 매일 사용하던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 주고받으면서 부모들과의 소통 및 교류하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또한 교사들이 스마트 알림장에 영유아들의 개별 관찰 놀이기록과 놀이에 대한 교사의 해석 및 지원과정을 기록하고 부모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들은 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적 관점과 지원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게 되고 교사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교사들 또한 초기에는 부모들과의 소

통에 대해 어색함과 부담감을 가졌다가 점차 부모들과의 소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부모와의 소통이 영유아 교육의 필수과정임을 인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모들과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가정연계의 초기에 느낀 부담감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배울미, 조유진, 2014; 윤경옥, 이대균, 2019; 이병호, 2014). 반면, 가정연계 과정에서 교사들이 부담감을 해소하고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부모들의 인정 및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확인하게 된 결과는 이명순(2011), 이지운, 강은진(2020), 최미순(201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넷째,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대면과 대면 병행의 가정연계 과정에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으며 이에 따라 자신감이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다. 교사들은 자신이 배웠던 전문적인 지식을 실천하고 스스로 성찰하며 변화시키고 또 그 효과를 확인하면서 교사로서의 만족감을 갖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Carter, 1990).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그동안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사 주도적인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활용되지 못했던 경험과 다르게 놀이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교사들이 이와 같이 실천적 지식의 실행과정과 역량 발전을 스스로 인지하게 된 것은 본 연구의 준비단계에서 진행한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연수 및 교사들 간의 지식 공유와 협의 과정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의 자신감 상승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같다(사영숙, 2017; 이원미, 2021; 진다정, 2020). 교사들의 자신감 상승은 부모들과의 관계에서도 확인되었다. 교사들의 놀이중심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정과 발전적인 변화는 부모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교사들이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교사들의 직무 효능감 상승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장지원, 2020) 및 교사와 부모의 협력으로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연구(강미숙, 송승민, 박남심, 이승은, 2018; 최해주, 문수백, 2013)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 활성화의 실천적 지식 실행을 전문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여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을 확신하도록 하였다. 기관에서는 사전 준비 기간을 여유 있게 가지면서 교사들이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준비로 교사들은 가정연계의 주체가 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들을 놀이 활성화의 협조자로 참여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 스스로 실행과정에서 자신의 발전을 인식하도록 하고 실행의 주체가 되어 성장하도록 한 것에 의의를 들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실행과 가정연계에서 교사의 준비와 이를 위한 교사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 2.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한 본 연구의 결론을 실행연구의 과정에 따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랑어린이집의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정연계를 개선하고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 가정연계를 실행하였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협력이 중요한데 사랑어린이집에서 이루어져 왔던 가정연계는 부모들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와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방법 또한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였다.

사랑어린이집의 가정연계 개선을 위한 비대면과 대면 병행 가정연계는 1차에서 3차까지 진행되었으며 부모들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협력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들이 모색되고 적용되었다. 가정연계는 1차 놀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 확장하기, 2차 놀이의 다양한 방법을 부모와 공유하기, 3차 놀이의 의미를 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실행의 모든 단계에서 부모참여 그리고 소통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해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하였다. 모든 단계의 실행은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또는 병행하거나 복합되어 진행되었으며 계획, 실행→확인·점검, 평가·반성의 순환적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차 실행과정에서 비대면과 대면 병행 가정연계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이해한 부모들의 부담감이 확인되었고 대면 방식의 병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차 실행에서 부모들에게 비대면 가정연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 유지를 독려했으며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대면 가정연계를 부분적으로 시작하였다. 2차 실행 평가에서는 비대면 가정연계의 지속 필요성과 함께 개별 및 소그룹 형태의 대면 가정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3차 실행을 시작하였다. 3차 실행은 비대면과 대면 가정연계가 상호 연관되어 사전·사후 활동의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가정연계가 실행되는 동안 부모들의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한 비대면 놀이 이야기 전송은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동시에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메일, QR 코드 등의 비대면 방식도 함께 적용되었다. 또한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가정연계에 대한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었다.

둘째, 비대면과 대면 병행 가정연계로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긍정적인 변화 효과가 있었다. 영유아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가정연

계 과정에서 놀이를 주도하게 되었고 놀이를 어린이집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전달하며 확장해 나갔다. 또한 가정연계에 의한 놀이 정보를 토대로 하는 놀이 속에서 자신감을 형성하였으며 갈등 감소로 친 사회적 모습을 보였고 놀이 환경 속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배움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들은 가정연계 과정에서 놀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녀들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놀이를 통해 자녀의 변화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으며 교육과 놀이가 어떻게 연결되고 전개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신뢰감을 느끼게 되었다. 교사들은 실행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가정연계를 실행하면서 선구자적인 자부심과 함께 비대면 가정연계의 효과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한 것과 가정연계의 효과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교사들은 부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부모들과의 소통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부모와 교사 상호 간의 신뢰가 강해졌다. 교사들과 연구자가 인정한 마지막 효과는 교사들 스스로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가정연계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어 연구자의 느낌이 들 정도로 자신감이 상승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종식을 가늠할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해 유아교육현장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교육방법의 적용이 제한되고 금지된 시기에 영유아들의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친 사회적인 놀이의 활성화 필요성을 체감하게 된 사랑어린이집 교사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와 계획에 의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놀이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정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실행한 후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교사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더 자유롭고 즐거운 놀이를 주도적으로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유아들의 놀이가 활성화

화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의 놀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놀이 방법을 찾아 함께 놀이하게 되었고 놀이를 통한 교육방법과 효과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진일보하여 접근하게 되었으며 놀이중심 교육과 가정연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교육과정과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실천하는 가정연계의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의 재확산이 거듭되고 이로 인한 거리 두기가 적용되어 유아교육기관의 부모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가정연계의 폭이 좁았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부모참여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고 있으나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가정연계 연구는 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과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가정연계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유아교육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가정연계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비대면 방식은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하면서 드러난 고민은 영유아들이 스마트 폰의 카메라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된다는 연구자와 부모의 우려였다. 사진 기록의 편의성과 장점 그리고 이와 분리되기 어려운 스마트 폰의 사용은 불가피하면서도 빈도 조절을 고민하게 하는 사유가 되었다. 비대면 방식의 장점과 강점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스마트 기기나 영유아들의 사진에 대한 노출 등의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여러 형태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활성화하

기 위한 가정연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자가 원장이면서 장기간 근속해 온 점, 연구기관이 부모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직장어린이집인 점, 참여 부모의 70% 가까이 2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해 온 점, 영유아 인원이 적은 점, 교사들의 근무 기간이 길어 원장과의 유대가 강한 점 등은 본 연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장점이 되었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일반적인 어린이집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문희, 문미옥, 박정자, 서영숙, 우남희, 이강미, 이숙재, 이영, 이옥(2016). 21세기 유아교육. 서울: 학지사.
- 강미숙, 송승민, 박남심, 이승은(2018).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부모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5), 1-17.
- 강숙현, 김정아, 김희정, 윤숙희, 이은희(2013). 놀이지도. 서울: 창지사.
- 강영식(2021). 숲체험 놀이에서 밧줄 놀이가 유아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4), 255-262.
- 강영식, 마지순, 안라리(2013).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와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8(5), 189-202.
- 강은영(2015). 가정연계를 통한 그림책 읽어주기가 영아의 읽기 흥미도와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정(2020). 유치원교사의 교사-학부모 간 상호작용 경험 탐색.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정화, 박문환(2018). 초등예비교사 교육에서의 플립드 러닝 적용 사례 연구. C-초등수학교육, 21(1), 1-17.
- 고은별(2021).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향림(2019). 누리과정에 따른 단위유치원 교육과정설계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유아교육연구, 39(2), 333-359.
- 곽혜경, 박애경, 백혜리, 조혜경(2010). 놀이지도. 서울: 창지사.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 해설서. 세종: 교육과학기술

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2020. 03. 27a).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기준안 마련.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013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6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년 3월 22일 인출.

교육부(2020. 03. 31b).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코로나 19).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016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년 3월 22일 인출.

교육부(2020. 08. 24c).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교실 수업 혁신,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 교사 5,000명이 이끈다!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164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년 3월 22일 인출.

교육부(2020. 10. 29d). 현직 교사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38개 교육대학원이 힘을 합치다.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239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년 3월 22일 인출.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a). 2019 개정누리과정 해설서.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b). 2019 개정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립국어원(2023).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에서 2023년 3월 26일 인출.

- 권경미, 고재욱(2021). 2019년 개정 누리과정 연구 동향 분석. 아동교육·보육 복지연구, 25(4), 55-77.
- 권기남(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능력 향상을 위한 e-learning 기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아동교육, 21(1), 5-20.
- 권기현(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정연계활동참여가 양육효능감, 양육태도 및 배우자의 양육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봉금(2019). 일상생활용품을 활용한 가정연계 감각탐색활동이 만 2세반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놀이성에 미치는 효과.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성호, 이정은(2009). 유러닝의 도전과제. 학습과학연구, 3(2), 1-23.
- 권은주(2022). 영유아 놀이 관찰기록과 공유를 통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변화 및 경험.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혜진(2022). 음악 실기교육을 위한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설계원리 개발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대욱, 신수진(2021).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5(1), 197-223.
- 김경철, 장예술(2022). 유치원 교사가 경험한 2020년 원격수업의 교육적 의미. 유아교육연구, 42(1), 5-26.
- 김동호(2020. 4. 6.). 서울시교육청, 수업결손 대책으로 ‘집콕 유치원’ 운영. 파이낸셜뉴스. <https://news.zum.com/articles/59295900>에서 2022년 3월 22일 인출.
- 김량희(2022).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요구, 그리고 변화.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순(2018).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8(5), 57-75.
- 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2013). 부모와 유아 자녀의 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5(1), 37-53.
- 김명순, 김의향, 이유진(2012). 영아의 차례 말기와 어휘발달 관계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0(2), 75-84.
- 김명이(2016). 동화재구성을 통한 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조망수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2021).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학습공동체 참여 원장의 경험과 의미탐색.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자(2022). 2019개정누리과정에 대한 부모 인식 및 만족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재(2021).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수학교사의 인식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16). 만 5세 사랑반의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19). 놀이중심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이야기나누기 활동 실행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김희영, 김남연, 문가영(2020). 유아 대상 원격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탐색. 한국유아교육연구, 22(3), 201-229.
- 김미소, 서영숙(2018). 유아의 “진짜” 놀이 경험에 대한 의미 탐구. 유아교육연구, 38(3), 349-368.
- 김성현(2015). 인지놀이에 기반한 유아 정서, 사회적 유능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경(2021). 가정연계 놀이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현(2020). 놀이기록 인터페이스 중심 가정연계 운영관리 APP 개발 및 효과.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12). 가정연계 기자 발표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발달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인(2020).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유아의 놀이몰입과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임(2020). 비대면 감성코칭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만 3세반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반응 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연(2017).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인성 프로그램이 만 5세 유아의 인성에 미치는 효과. 질서, 나눔, 존중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란(2010). 비대면-취업모를 위한 On & Off-Line 통합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진, 배지현(2019). 놀이중심 부모소모임을 통한 어머니의 놀이이해 변화 과정 탐색.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1), 127-130.
- 김영신(2022).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놀이중심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옥(2016). 부모교육. 파주: 공동체.
- 김영옥(2019). 유아중심 관점의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사유(思惟). 유아교육연구, 39(2), 235-253.
- 김영천(2013). 질적 연구방법론3.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예슬(2016). 국내 학교에서의 에듀테크 활용 현황 및 실태 분석. 고려대학

-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2007). 전통놀이 활동이 유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숙(2020).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적 배움공동체 실행과정 2019 개정 누리 과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정(2020). SNS기반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성 기술과 발달지체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분(2018). 전래동요놀이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신체발달에 미치는 효과.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영(2022). 초등교사들의 원격수업 경험과 교사 역량 탐색.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자(2011). 직장보육 시설 부모참여 실태와 원장, 교사, 부모의 인식 차이. 계명대학교 유아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준(2021). SNS를 활용한 주중 성경학교 교사들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례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71, 195-224.
- 김지성, 김경철(2021).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 교사들의 놀이 보기 (seeing)의 어려움과 다시 보기를 통한 배움. 유아교육연구, 41(4), 231-263.
- 김진아, 우민지, 임민정(2021). 코로나19 전후 열린 어린이집 운영 변화: 원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28, 55-76.
- 김춘선(2023). 가정연계교육에 근거한 손끝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소근육운동기능 발달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희(2014).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일반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편견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희(2021).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놀이지원자 역할 실행에 대한 유아  
 반 보육교사의 인식 및 어려움.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아(2004). 주제 환상극 놀이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감정조망수용  
 능력에 미치는 효과. 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14). 만 4세 유아를 위한 유치원 신체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실행연구-기본운동 기술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김혜진(2011). “U-Learning Scheme.”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12),  
 5486-5492.
- 김효진(2021). 영유아교사의 원격수업에 대한 실태와 인식 및 요구분석. 아  
 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2022). 어린이집 원장의 놀이중심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교사부모 협  
 력에 관한 실행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숙(2010). 극화놀이가 유아의 언어능력과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연, 정선아, 오문자(2005). 기록작업을 매개로 한 부모참여에 관한 실행  
 연구: 학습공동체를 지향하며. 유아교육연구, 25(6), 221-255.
- 김희영(2019). 유치원 만 5세 산들반 놀이중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행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영, 정우영(2021). 코로나19로 인한 예비유아교사의 원격교육 수업 경  
 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485-508.
- 김희정(2009). 가정과 연계한 신체활동이 유아의 기초체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숙(2018). 유아의 자아개념 및 행복감이 놀이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25(3), 159-176.
- 나혜선(2016). 가정연계를 통한 유아 배려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선우(2020). 에듀테크 기반 플립러닝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 인문사회 21, 11(3), 1677-1692.
- 남선화 (2021). 원격교육-원격교육 실행과정에서 보육교사가 직면한 도전과 대응.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주원(2020). 언택트(Untact) 기법의 공연예술 마케팅에 관한 연구 온라인 기반의 미디어를 활용한 공연예술 마케팅.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미숙(2014). 동화를 통한 가정연계 인성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다음백과사전(2023).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5530>에서 2023년 3월 26일 인출.
- 류수향(2019). 놀이중심 이야기 나누기 시간의 실행연구, 유아의 참여를 기반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승희(2022). 유아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관한 사례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모용희(2015).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도덕적 판단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무경, 박창현, 송기창, 김문정(2017).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7-07.
- 문성영(2019). 부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놀이성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수영, 조영주(2020). 어린이집원장의 개정누리과정 실천에 대한 실행연구: 유아반 교사의 자율성 지원하기. 유아교육연구, 40(6), 61-83.
- 문은경(2022). 대학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주련(2022).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에서 유아교사가 인식한 유아-교사 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주리(2022). 생태유아교육에 기반한 통합적 맞춤형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동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혜(2015). 반편견 동화를 활용한 가정연계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경(2017). 전자알림장을 통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현황 및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2019). 유아교사의 놀이지도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훈 외 (2020), 원격교육 수업 실행 방안, 연구자료 RM 2020-11, 2020 KERIS 이슈리포트,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박성환(2013). 블렌디드러닝 기반 부모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신영(2011). 인터넷 동화를 활용한 가정연계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규(2022). 팬데믹 선언이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언택트 기업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마니아 가설.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 김낙홍, 신미영(2021).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교육의 연령별 학급에 따른 실태 조사. 유아교육논집, 25(1), 225-249.
- 박영신, 박은주, 석은조, 신은정 오성숙, 이경하(2015). 영유아교육과정. 서울:

창지사.

- 박영아, 조미현(2020).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25, 145-172.
- 박윤아(2020). 부모들의 놀이이해 실행연구, 2019 개정누리과정 공유를 통해.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신은수, 김현진(2012). 유아의 사회적 놀이행동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2(4), 249-268.
- 박은혜(2020). 열린어린이집에 참여한 아버지와 교사의 변화에 관한 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중열(2020). 코로나 19로 촉진된 대학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고찰. 대학기계학회저널, 60(7), 32-36.
- 박향원(2013). 유아교육과정의 심미화를 위한 실행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희숙(2009). 가정 연계 모델 중심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열린유아교육, 4(5), 1-23.
- 방은경(2012). 유아 기초체력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울미, 조유진(2014). 유아교사의 교사-부모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연구: 의사소통 어려움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8(1), 323-340.
- 배지희, 김신영, 이수영(201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버지 참여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기대. 유아교육연구, 36(2), 271-294.
- 배지희, 조미영, 봉진영, 김은혜(201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 및 참여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과 기대. 유아교육연구, 31(3), 277-302.
- 배진희(2019). 만 3세 유아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가정연계

-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지현(2017). 기본생활습관 관련 동화를 활용한 가정연계 활동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20a).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 보건복지부(2020b).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문.
- 보건복지부(2020. 3. 17c).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3592&SEARCHKEY=TITLE&SEARCH\\_VALUE=%EC%96%B4%EB%A6%B0%EC%9D%B4%EC%A7%91](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3592&SEARCHKEY=TITLE&SEARCH_VALUE=%EC%96%B4%EB%A6%B0%EC%9D%B4%EC%A7%91)에서 2022년 3월 25일 인출.
- 사영숙(2017). 수업전문성을 추구하는 영유아교사의 학습공동체 경험 탐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사유정(2014). 스마트 러닝 학습의 모션그래픽 요소가 유아의 학습태도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나래(2022). 초·중등 영어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 온라인 개학(2020)의 특수한 맥락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미(2011). 어머니의 부모역할이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및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윤희, 한유진(2021). 유치원 교사들의 원격수업 경험에서의 의미 구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1285-1312.
- 서혜정, 이한아(2011).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에 대한 유아교사의 경험. 유아교육학논집, 15(6), 119-144.
- 서혜정, 정하나(2023). 코로나19 상황에서 줌(Zoom)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 유치원 교사의 경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3), 39-59.
- 서울시교육청(2020).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대응 일일 브리핑(2020. 04. 06).  
<https://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seoul2012&logNo=221893248635>에서 2022년 3월 22일 인출.
- 서희전(2014). u-러닝 통합 생태체험활동이 유아의 환경 친화적 태도와 정서 지능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447-472.
- 서희전(2017). 숲-유치원-가정이 연계된 스마트러닝 환경에서 유아 창의·인성 활동의 개발 및 적용. 유아교육연구, 37(4), 779-809.
- 성지현(2000). 1세 영아-어머니의 언어와 놀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인순(2014). 유아의 또래놀이 접근 및 수용행동과 감정조망수용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영란(2020). 유아를 위한 가정연계 긍정훈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미랑(2018). 전래동화를 활용한 가정연계 활동이 만 3세 유아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희, 김태연(2023). 유보통합에 대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의 현황 및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139, 25-45.
- 신혜영(2020). 만 1세 맞벌이 아버지, 어머니 동반참여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은수, 김명순, 신동주, 이종희, 최석란(2010). 놀이와 유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남주(2010). 동화를 활용한 가정연계 수학활동이 유아의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2021). 놀이중심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유아교사들의 노력과 변화 과

- 정. 한국보육학회지, 21(1), 17-33.
- 심미영(2018). 어머니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역할수행과 유아의 놀이성, 사회성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수아(2021). 어린이집 부모참여 활성화 수준이 부모의 기관신뢰 및 교사신뢰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태은(2016). 유아를 위한 가정연계 긍정훈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대진(2006).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e-러닝을 이용한 학교교육의 변화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소연(2020).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개선요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수영(1995). 招高速情報通信基盤의 조기 확산을 위한 遠隔教育.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창희(2019). 유아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교사지원방안 탐색: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영자(2010). 가정연계 다문화 교육 활동이 유아와 어머니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옥승, 이정란, 나은숙(2002). 유아의 관점에서 본 자유놀이. 열린유아교육연구, 7(1), 143-165.
- 엄정애(2001). 놀이와 유아교육 : 그 조화의 방향에 대한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5(3), 1-25.
- 엄정애(2004). 놀이와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과 현황. 유아교육연구, 24(1), 145-164.
- 엄정애(2009). 영유아 놀이와 교육. 경기도 파주: 교문사.
- 오영희, 박창옥, 박영양(2005). 유아를 위한 놀이 이론과 실제. 경기도 파주:

- 21세기사.
- 오채선(2019). 누리과정, 놀이와 교육의 변증법적 이해. 유아교육연구, 39(2), 279-305.
- 왕혜원(2012).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의 유형과 사회적 힘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혜민(2020). 놀이와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기미(2022). 영아반 보육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적 경험.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구중, 한명옥, 김명숙, 최승연(2014). QR코드 교육계획안 활용이 유치원 학부모의 수업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415-445.
- 유 리(2022). 코로나19 시대 대학생의 비대면 학습경험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상희(2021). 놀이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교사교육 요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수정(2021). 모바일 알림장 앱을 매개로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실행 연구: 만 1세반 영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강원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순(2016).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실행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인, 이민영, 김경철(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공립 유치원의 운영실태와 지원요구 조사. 어린이미디어연구, 20(1), 249-276.
- 유한구(1983). 교육방법으로서의 놀이, 그 인식론적 고찰. 서울교육대학교 논

- 문집, 16, 319-330.
- 유한나(2014). 교사의 놀이 개입에 대한 유아의 생각과 기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2022).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팀장 리더십 역량.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경옥(2021). 보육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경옥, 이대균(2019). 열린어린이집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바람. 유아교육학논집, 23(3), 87-113.
- 윤미경, 민선혜, 김미숙, 배지희(2019). 부모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어머니들과의 경험과 사후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육아지원연구, 14(3), 77-107.
- 윤민아(2019). 유아교사의 놀이중심교육과정 실천에 대한 어려움과 현장 지원 요구. 유아교육연구, 39(3), 5-30.
- 윤선혜(2022). 코로나19 시대의 음악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영(2020). 부모-영아 상호작용과 영아 발달 증진을 위한 앱 기반 가정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가은(2021).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유치원 놀이자료 개선 방향 모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2016). 유아교육과정. 경기도 파주: 교문사.
- 이나련, 정유진(2021). 영유아자녀 아버지의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7(2), 73-88.
- 이동국(2015).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1(1), 91-110.

- 이명순(2011). 보육시설 부모 참여에 대한 시설장과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15(4), 23-43.
- 이미경(2010). 가정연계 교통안전 그림책읽기 활동이 유아의 교통안전지식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2020). 유치원 원격수업 가능성 탐색을 위한 실험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화, 김은설, 김길숙, 이진화, 윤지연(2016). 영유아기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 10(3), 1-24.
- 이병호(2014).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교사-부모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육아지원연구, 9(3), 119-142.
- 이뿐새, 최진락(2018). 바깥놀이 신체활동이 유아의 대근육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체육수업의 조절효과. 한국체육학회지, 57(2), 647-659.
- 이성주, 성영실(2021).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자유놀이시간에 나타난 만 4세 반 유아들의 놀이양상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7), 437-451.
- 이성희, 이미영(2021).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 적용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467-496.
- 이세나(2012). 희망유치원의 가족참여활동 개선을 위한 실험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2017). 영유아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순복(2010). 쌓기놀이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기하 및 공간 감각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30(1), 95-119.
- 이승미(2020). 장애유아 통합교육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에 대한 교사들의 이야기.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숙, 송나리, 배지희(201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놀이에 대한 유아교사의 생각과 갈등. 육아지원연구, 12(4), 215-240.

- 이승희(2021).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의 한국어 쓰기 지도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양숙, 하양승, 전홍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과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23, 49-78.
-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곽향림, 이정욱(2001). 탐색 및 놀이활동 중심의 1, 2세 영아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2), 133-154.
- 이옥희(2018). 가정연계를 통한 유아 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2005).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하는 실행연구 방법. 서울: 학지사.
- 이원미 (2021).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무지개어린이집의 교사학습 공동체 이야기.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화(2021).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 배움공동체의 이해와 재구성 과정.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2019). 스마트 알림장을 통한 영아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19).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위계의 교차위에 놓여있는 이중민족사회화. 가족과 문화, 31(2), 182-227.
- 이지운, 강은진(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용 SNS 앱의 유아 원격교육 활용 가능성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5(6), 347-369.
- 이지희(2020). 만 2세 영아의 숲 놀이 경험의 교육적 의미 탐색.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호(2016) 가정과 연계한 기초체력 증진 신체활동이 유아의 체력과 신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아(2022).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만3세반 보육교사의 경험과 실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종희(1995). 놀이와 교육: 구성놀이에 대한 재고. 유아교육연구, 15(2), 91-104.

이현목(200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학점 인정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경(2022). COVID-19로 인한 원격교육 상황에서 과학 교사의 교수 실행의 변화와 행위주체성 발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혜선, 배지희(2021). 사랑어린이집의 비대면 부모참여 및 가정연계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실행연구, 육아지원연구, 16(2), 5-35.

이호형, 김재운(2016). 취학 전 신체활동 놀이 참여가 초등학교 아동의 체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홀리스틱교육연구, 20(3), 53-67.

임명희(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경험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20(3), 1-23.

임명희(2021).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놀이지원자로서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 변화. 한국보육학회지, 21(2), 43-68.

임부연, 곽승주, 권혜진, 김성숙, 서보순, 손은실, 신은미, 연희정, 염지숙, 오채선, 윤민아, 이경화, 이연선, 이현진, 장혜진, 정선아(2022). 유아·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 경기도 파주: 공동체.

임부연, 오정희, 최남정(2008). 비구조적인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보여주는 진짜 재미있는 놀이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8(1), 185-209.

임성혜(2017). 가정과 연계한 효 중심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춘금(2006). 주제환상극 놀이가 유아의 언어능력, 정서지능, 마음이론 발달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효선(2010). 가정연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참여 실태 및 인식 요구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효신, 나종혜(2011). 보육과정에서의 자유놀이 현황과 교사의 놀이인식. 대한가정학회지, 49(2), 27-36.
- 장상현(2013). 창조교육을 위한 스마트시대 교사의 역할. 창조교육을 위한 스마트시대 교사의 역할, 한반도선진화재단, 95-103.
- 장지원(2020). 어린이집 유아,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수학교구에 관한 실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병호, 김용(2017). 블렌디드 러닝에서 교수자 요인이 학습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러닝학회 논문지, 2(1), 35-40.
- 전효훈, 엄정애(2011).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의 활용에 관한 경력 교사의 경험과 어려움의 해결방안. 유아교육학논집, 15(5), 305-334.
- 전효훈, 엄정애 (2016). 조형활동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놀이 양상과 교사의 반응에 관한 사례연구. 유아교육연구, 36(4), 93-125.
- 정경희(2017). 가정연계 자연물놀이가 영아의 자연친화적 태도 및 놀이성에 미치는 효과.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애(2012). 가정과 연계한 유아 정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선영(2019).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6(3), 73-82.
- 정순원(2020). 초중등학교의 원격수업에 관한 법령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교육, 47(2), 53-82.
- 정영심(2017). 유아교육에서 이러닝 앱과 일반교수자료 이용의 차이에 관한

-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정순화(2016).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진화(2021). 유아의 인지적 놀이행동과 인지능력, 갈등해결능력, 운동능력, 성취동기 간의 관계 분석. *Global Creative Leader*, 11(4), 1-25.
- 정주인, 권귀염(2020). 놀이중심교육과정 시대 변화를 위한 유아교사들의 시도. *유아교육연구*, 40(3), 93-118.
- 정지은(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의 실천적 경험 탐색.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주(2020). 유아놀이에 대한 유아교육 현장전문가들의 이야기: 포커스 그룹토론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욱, 김지원(2022).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5세 학급 유아교사의 인식. *육아지원연구*, 17(1), 95-118.
- 조미정(2022). 가정과 연계한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광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용환(2000). 놀이와 교육의 딜레마. 2000년도 중앙유아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다문화 시대의 유아교육, 69-81. 서울: 중앙유아교육학회.
- 주봉관, 신미영, 박영숙(2021). 유치원 원격교육 운영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학논집*, 25(2), 139-162.
- 지성애(2009). 발달적 모델 중심 유치원-초등학교 연계교육 프로그램개발. *유아교육학논집*, 13(4), 387-413.
- 주희경(2017). 원장의 전문성과 진정성 리더십이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다정(2020). 원내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놀이중심 교육의 이해와 실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성철(2013). 가정연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체력과 정서지능에 미

- 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인순(2022). 언택트 교육환경에서 초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어려움 극복에 관한 질적 연구.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순(2016). 전래동요놀이를 활용한 u-Learning 가정연계에 대한 실험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연희(2022).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놀이 활동이 기본생활 습관, 언어 및 사회정서에 미치는 영향-만 2세 중심-.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지, 이윤경(2011). 영유아의 상징놀이 발달과 초기 표현 어휘 발달과의 관계. 언어청각장애연구, 16(3), 248-260.
- 최지현(2020). 유아 부모교육 연구 주제의 시대적 분석 : 누리과정의 시기별, 대상별, 주제별 분석을 중심으로, 상담심리교육복지, 7(2), 259-270.
- 최해주, 문수백(201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원장의 변혁적 지도성, 그리고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3), 69-87.
- 최혜미(2014).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어머니들의 요구분석.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7(3), 95-102.
- 최혜영(2001). 학교생활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부모역할. 윤리연구, 48(0), 85-102.
- 최희선(2020). 영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 선호도 및 요구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민경, 김은정(2021).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25(2), 163-182.
- 한유진(2021). 유아반 놀이 중심 교육의 실천을 위한 협력적 실험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수란, 황해익(2007). 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 경험을 통한 교수행동의 변화.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161-183.
- 황사연(2018). 스마트러닝의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자의 자기 효능감, 몰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현정(2020). 주제중심 쌓기 놀이 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리뷰*, 5(3), 19-40.
- 현선영(2022). 2세 영아 부모를 위한 과학중심 부모교육 실행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민정(2020) 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인식에 대한 개념도 분석: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소영(2022). 누리과정에서 전통놀이의 교육적 적용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nderson, G. L. (1994). *Studying Your Own School. An Educator's Guide to Qualitative Practitioner Research*. Corwin Press, Inc. 2455 Teller Road, Thousand Oaks, CA 91320.
- Beecher, C., & Buzhardt, J. (2016). Mobile technology to increase parent engagement. *IxD&A*, 28, 49-68.
- Belanger, F., & Jordan, D. H. (Eds.). (1999).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of Distance Learning: Technologies, Tools and Techniques: Technologies, Tools and Techniques*. Igi Global.
- Bigner, J. J., & Gerhardt, C. (2014).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9th Ed.). Boston: Pearson.
- Broadhead, P., Howard, J., & Wood, E. (2010). *Play and learning in the early years: From research to practice*(Eds.). Thousand Oaks,

-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Bogdan, R., & Biklen, S. K. (2010). 질적 연구 방법론의 기초[*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조정수 역). 서울: 경문사. (원전 2007 출판)
- Caimey, T. H. (2000). Beyond the classroom Wall: the rediscovery of the family and community as partners in education. *Educational Review*, 52(2), 163-174.
- Casey, D. M. (2008).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Distance Education Through Technology. *TechTrends*, 52(2), 45-51.
- Carter, K. (1990). Teachers' knowledge and learning to teach.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er education*, 2, 291-310.
- Christenson, S. L. (2004). The family-school partnership: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learning competence of all students. *School psychology review*, 33(1), 83-104.
- Comer, J. P., & Haynes, N. M. (1991). Parent involvement in schools: An ecological approach.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1(3), 271-277.
- Dauber, S. L., & Epstein, J. L. (1993). Parents' attitudes and practices of involvement in inner-cit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Families and schools in a pluralistic society*, 53, 71.
- Elliott, J. (1991). *Action research for educational change*.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Epstein, J. L. (1986). Parents' reactions to teacher practices of parent invol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6(3), 277-294.

- Frost, J. F. (1992). *Play and Playscapes*. Albany, NY: Delmar.
- Gestwicki, C. (2015). *Home, school, and community relations*. Cengage Learning.
- Glenda, M, N., & Patrick, H. (2013). 유아교육에서 실행연구 하기[*Doing action research in early childhood studies: A step-by-step guide*](박 은혜, 이진화, 고동섭, 최혜윤 역). 서울: 창지사. (원전 2008 출판)
- Göncü, A. (1993). Development of intersubjectivity in the dyadic play of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99-116.
- Gordon, I. J. (1977). Parent education and parent involvement: Retrospect and prospect. *Childhood Education*, 54(2), 71-79.
- Henderson, R. W. (2013). *Parent-child interaction: Theory, Research, and Prospects*. Academic Press.
- Hyun E. (2008). 유아교육과정의 재개념화와 실천[*Teachable moments: Re-Conceptualizing curricula understandings*](손유진, 김남희, 남미경, 정혜영, 이경화, 손원경 역). 경기 고양: 서현사. (원전 2006 출판)
- Hoorn, J. V., Nourot, P. M., Scales, B., & Alward, K. R. (2018). 놀이중심 교과과정[*Play at the Center of the Curriculum*](순진이, 정현심 공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15 출판)
- Hutt, C. (1971). *Exploration and play in children*. In R. E. Herron & B. Sutton-Smith (Eds.), *Child's play*. (pp. 231-251). New York: Wiley.
- Ingersoll, B., Wainer, A. L., Berger, N. I., Pickard, K. E., & Bonter, N. (2016). Comparison of a self-directed and therapist-assisted telehealth parent-mediated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ASD: A pilot RCT.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6(7), 2275-2284.
- Johnson, E. J., Christie, F. J., & Wardle, F. (2014). 놀이, 발달, 유아교육

- [*PLAY,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이진희, 손원경, 안효진, 유연옥 공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전 2005 출판)
- Johnson, E. J., Christie, F. J., & Yawkey, D. T. (2001). 놀이와 유아교육.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신은수, 김은정, 안부금, 유영의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 1999 출판)
- Kannan, P. K., Chang, A. M., & Whinston, A. B. (2001). Wireless commerce: marketing issues and possibilities. *In Proceedings of the 34th Annual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pp. 6-pp). IEEE.
- Kemmis, S., & McTaggart, R. (1998).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559-604).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Kieff, J. E., & Casbergue, R. M. (2000). *Playful learning and teaching: Integrating play into preschool and primary programs*. Boston: Allyn and Bacon.
- Lewin, K. (1952). *Group decision and social change*.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Newcombe and Hartley (Eds.) Henry Holt, New York.
- Lillard, A. S., Lerner, M. D., Hopkins, E. J., Dore, R. A., Smith, E. D., & Palmquist, C. M. (2013). The impact of pretend play on children's development: A review of the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39*(1), 1-34.
- McBride, E., Worster, L., Logue, M. E., & Blagojevic, B. (2019). Developing family partnerships using new communication tools. *Teaching Young Children, 12*(5), 8-11.
- Mills, E. J. (2005.) 교사를 위한 실행연구[*Action Research: A Guide For The*

- Teacher Researcher*](강성우, 부경순, 심영택, 양갑렬, 오세규, 이경화, 이혁규, 임진영, 허영식 공역). 서울: 우리교육. (원전 2003 출판)
- Pancsofar, N., Petroff, J. G., & Lewis, A. (2017). Father-friendly classrooms: Making a space for dad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49*(5). 309-317.
- Piaget, J. (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ew York: Norton.
- Samuelsson, I. P., & Johansson, E. (2006). Play and learning-inseparable dimensions in preschool practic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6*(1), 47-65.
- Simonson, M., Zvacek, S. M., & Smaldino, S. (2019). Teaching and learning at a distance: Foundations of distance education 7th edition.
- Singer, D. G., Golinkoff, R. M., & Hirsh-Pasek, K. (Eds.). (2006). *Play=learning: How play motivates and enhances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emotional growth*.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tone, S. J. (1995). Teaching strategies: Integrating play into the curriculum. *Childhood Education, 72*(2), 104-107.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3). General comment no. 17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art. 31)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sixty-second session (14 January-1 February 2013).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Vygotsky, L. S. (1994). 사회 속의 정신: 고등심리과정의 발달[*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조희숙, 황혜익, 허정선, 김선옥 역). 서울: 서원사. (원전 1978 출판)

## **ABSTRACT**

### **An action research on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family involvement to facilitate play at Sarang Childcare Center**

**Lee Hye Su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this study, in order to revitalize the play of young children at the Sarang childcare center, a family involvement that can increase parents'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play was sought and implemented.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family involvement in both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ways and looking into the changes of young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provide implications for family involvement plans to practice a play-based curriculum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parallel family involvement to activate play at the Sarang childcare center?

2. What are the changes in infants, parents, and teachers in the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parallel family involvement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activation of play at Sarang childcare center?

This study was conducted at Sarang childcare center in S city.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are the researcher who is the director, 7 teachers, 23 young children from 1 to 4 years old and parents of 22 familie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4, 2021 to February 12, 2023, and went through a third phase of implementation based on the spiral implementation research model of Kemmis and McTaggart (1988). The researcher recognized that the family connection carried out by Sarang childcare center did not provide enough opportunities for parent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lay and actively cooperate with and continue to participate in play and play-centered curriculum. And the family connection method was a face-to-face method before COVID-19. during the COVID-19 period, it was conducted only in a non-face-to-face manner, requiring improvement in term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it was recognized as a problem that it was not smoothly linked to the curriculum. For the improvement of this problem, a plan for family involvement that combines both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was implemented as follows in order to support for parent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lay and to actively participate with interest in the play of young children.

In the first implementation of family involvement, in order to increase

parents' interest in play, storie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s play in the childcare center and at home were exchanged with parents through a smart notification board. In the second implementation, parent education and face-to-face participation were planned and implemented to help that parents can understand various play methods. In the third implementation, activities in which infants and parents participate in play together were planned and implemented at childcare centers to help that parents actively participate in play.

Each stage was performed in a circular process of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During the execution of each stage, the execution process was checked and inspected, and improvement methods were sought along with the evaluation of the execution. Qualitative data about young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were collected in all stages of the implementation. The collected data include play observation records and video data of young childrens, daily and weekly childcare plans, parent interview data, parents' evaluation documents, smart notification records, consultations with teachers, and meeting data.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 process of arrangement, memo, open coding and categorization. And all idea and analytic meaning generated during the datalization process were re-documented and then repeatedly reviewed and organ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first implementation of family involvement to activate play, parents and young children used the smart notice board to increase parents' interest in play, and exchanged play stories containing parents and young childrens' play

photos and videos with explanation through the smart notice board. In the second implementation, in order to share various play methods with parents, parents were allowed to see play cases such as photos and videos revealing the process of play and play methods of young children through a smart notice board. In addition, face-to-face parent education and face-to-face parent participation were initiated to promote parents' understanding of how to play. Finally, in the third implementation, researcher planned and implemented face-to-face activities in which parents participated in play with young children at childcare center.

Second, the young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took the role of leading the play at the childcare center or delivering the play at home, formed confidence in play and solved problem by themselves on their own in the process of play and got the learn through the process. Parents became interested in play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lay of young children and were able to recognize the changes of their children through play. Parents also understood educational play and formed trust in the play-based curriculum. Finally, teachers got the pride in the non-face-to-face family involvement implementation experience and became satisfied because they experienced the effects of the play-based curriculum and family involvement.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play-based curriculum and family involvement was confirmed, and the results were satisfied, and through family involvement, it communicated comfortably with parents and improved trust, which increased the professionalism and confidence level of teach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positive changes young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after conducting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methods to enhance parents' interest and understanding in order to revitalize play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Researcher expects that more studies to explore various ways to revitalize play and family involvement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